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본연구 98 - 06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999. 5

충 남 발 전 연 구 원

발 간 사

1960년대 이후 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면서 한국 사회는 일대 개편을 경험하였다. 정부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였고, 가난을 벗어나려는 농민들은 그러한 상·공업도시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 속에서 국토의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많은 지역이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

불균형은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도시민들은 다소나마 생활의 여유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 동안 무시되었던 문화적 욕구를 갈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산업都市는 빌딩과 자동차만으로도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이제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웠다. 산업도시에서는 기껏해야 인공적인 위락단지가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민들은 기꺼이 도시를 떠나 여행을 택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의 동맥이었던 교통망이 동시에 여행이라는 기능까지 감당해야만 했다. 국가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뒤덮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택하였다.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성장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논리인 셈이다. 동해안과 제주도의 개발은 그러한 결과였다. 이제 휴가철이면 제주공항과 영동고속도로가 북새통을 이루는 풍경은 이 시대의 풍속도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여타의 지역은 일반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역사·문화 자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신라의 고도 경주나 백제의 고도 공주와 부여 등에만 관심이 쏠렸고, 민속자원마저도 민속마을나 민속경연대회 등으로 한정시켰다. 그 결과 다른 지역들은 마치 역사·문화의 불모지인양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포(內浦)는 현재의 충청남도 서북부지방을 일컫는 말이다. 고대 백제 불교가 유입되는 관문이었었고, 조선시대까지 삼남의 물자가 운송되는 통로상의 요충지였던 곳이다.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고찰·마애불 등은 한국 불교사의 전통에서 제외될 수 없는 유산이며, 안면도운하 등은 전통시대의 교통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유적이다. 호락논쟁(湖洛論爭)으로 대변되는 남당(南塘)과 외암(巍巖) 선생을 비롯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활동은 회덕·연산·노성 지역과 더불어 조선시대 기호학맥

을 대표하는 정신적 유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발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은 내포의 문화유산들이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본 연구는 사장되다시피 한 내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수행되었다. 원론적으로 내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라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틈틈이 내포의 곳곳을 답사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허락치 못하여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았고, 또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섭렵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 협조해주신 관계자들, 특히 향토학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며, 이 연구를 수행한 오석민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999년 5월

충남발전연구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황응주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관광과 사회	3
제1절 관광이라는 활동의 특징	3
제2절 무엇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가?	15
제3절 관광자원의 선정과 연출	22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28
제1절 내포의 지명유래	28
제2절 내포의 산줄기와 물줄기	33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	46
제1절 선사유적	50
제2절 바다 관련 유적	52
1. 조운(漕運) 관계 유적	52
2. 국마장(國馬場) 유적	63
3. 금산(禁山) 유적	66
4. 서산 A·B지구 간척지	69
제3절 가야산 주변의 유적	71
1. 불교유적	71
2.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	83
3. 덕산온천	84

제4절 종교 관련 유적	84
1. 불교유적	85
2. 천주교 관련 유적	88
3. 동학 관련 유적	91
제5절 인물 관련 유적	92
1. 명현(名賢) 관계 유적	93
2. 충절인 관계 유적	104
 제 5 장 관광자원의 활용전략	110
제1절 관광개발의 방향에 관한 제언	110
제2절 개발 일정에 관한 제언	127
제3절 관광코스에 관한 제언	129
1. 태안해상국립공원 순환코스	129
2. 가야산 순환코스	135
제4절 관광거점에 관한 제언	138
1. 예산군 덕산면	139
2. 서산시 운산면	142
3. 서산시 해미면	144
4. 안면도	147
5. 만리포와 안흥항	149
 참 고 문 헌	152

제 1 장 서 론

관광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20세기 중·후반에 대중관광이 성립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사회에서도 관광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3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관광산업은 급격한 신장세를 보여, ‘굴뚝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벤처산업의 범주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막상 한국 관광학계는 외국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거나, 또는 한국과 세계의 관광 동향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 관광업은 태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이론적 논의나 거시적인 지표를 통한 관광동향의 분석은, 관광개발 자체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잠재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가능성을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광개발주체 나아가서 연구자까지도 관광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일상적인 효율성이라는 원칙 등에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는 과로를 피하려 하지만, 관광활동 중에는 기꺼이 탈진할 정도로 몸을 혹사하면서도 만족스러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관광객의 구체적인 욕구를 분석하고, 또한 적합한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였을 때, 비로소 관광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관광객이(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욕구의 역동적인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광업에서 대응하여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적합한 관광자원을 찾아내어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내포지방의 자연·문화·역사적 자원의 관광상품화 가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능성을 진단함에 목적을 둔다. 우선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배경과 함께 개개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상품화의 가능성을 진단한 후에, 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는 순서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이미

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소극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정책에 필요한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자원들의 연계시키는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개발권역의 설정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초석으로도 삼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① 일상생활에서 관광이 점하는 의미를 되새겨봄 (內浦)지방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고, ③ 곳곳에 산재된 잠재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가능성을 살펴본 후에, ④ 관광개발의 전략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제 2 장 관광과 사회

제1절 관광이라는 활동의 특징

관광개발은 관광업을 전제로 한 것이며, 관광업은 관광객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산업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논의의 출발점은 “관광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 의문에는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관광객들은 어떠한 태도로 관광에 임하는가?” 등등이 포함된다.

대중관광은 역사적으로 볼 때 최근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미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관광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분분하며, 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우선 관광활동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자.

관광에 대하여 부정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관광객들의 행동방식도 한 몫을 차지한다. 『영국령 버진제도 관광안내서』에 기재된 충고를 보면, 관광객과 주민 사이의 알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

당신[관광객]이 해변이나 물 속이라면 벌거벗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해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차림을 한다면, 주민들은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거지역이나 상가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단정하기만 하다면 간편한 차림이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가슴이나 배를 내놓은 차림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계의 홍보전략도 관광객으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1) 특히 제3세계의 사회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때로는 서슴지 않고 ‘관광공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평범한 서민들까지도 여러 가지 용무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시점에서 관광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 요인이 다. 여가와 레포츠를 소개하는 신문·잡지·방송을 보면, 어렵지 않게 자극적이고 때로는 선정적인 호기심을 촉발하는 문구를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무절제한 행동의 근본 원인은 관광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관광객의 차림새와 마음가짐은 이미 평상 생활과는 사뭇 다르다. 보통 ‘가벼워 (보이는)’ 복장과 ‘일상에서 해방된 (듯한)’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르기 마련이다. 관광은 기본적으로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사에서 벗어나서, 흥분·쾌락·놀이 등을 통하여 정신적 활력을 회복시켜 주는 기회이다.²⁾

이러한 점은 ‘놀이’, ‘여가’, ‘여행’ 등과 맥을 같이한다. 놀이에 관한 호이징하의 개념규정은 관광을 보는 데에도 유용하다.

놀이의 형식적인 특성을 종합해 보면, 놀이는 곧 “진지하지 못한 일”이며, “일상”생활의 바깥에 속한 자유활동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놀이에 참가한 사람을 강하고 철저하게 빨아들인다. 놀이는 물질적 이해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며, 놀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지도 못한다. 놀이는 그 자체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필자) 규칙에 입각하며, 놀이가 행해지는 시간과 공간은 일상생활과 구별된다. …… 놀이는 꾸미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세계와는 뚜렷하게 다름을 강조하는 …… 사회집단을 만들어낸다.³⁾

위의 정의에 의하면, 놀이는 “일상생활”과는 별개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자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관광도 놀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즉 관광, 여가, 놀이라는 활동은 세속적인 일상생활과는 구분되며, 종종 정반대의 특징을 보여준다.⁴⁾

2) Nelson Graburn,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3, 10(1), p.p.9-33.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2장 관광인류학) 참조.

3) Huizinga, J., 1938, 『Homo Ludens』. (권영빈 역, 1989, 『놀이하는 인간』, 기린원) p.23. 번역서에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필자가 운문을 가했음을 밝혀둔다.

4) 만약 직장 야유회에서 평소처럼 위계를 지킨다면, 그 순간 흥미는 사라지게 된다.

사실 프로이드의 논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사회규범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는 자체가 큰 압박이며 긴장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마다 일상생활 중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일정한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속칭 ‘뒷풀이’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마당이 펼쳐지는 순간 파격적인 행동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러한 기회는, 곧 성원들간의 오해를 푸는 등,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된다.⁵⁾ 뒷풀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사회규범을 깨기도 하고, 그 자리가 끝난 뒤에도 “술자리 일은 뒷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용인해주는 것이 한국사회의 관습이다.

특정한 기회를 빌어서 조직과 그 성원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관행은, 구체적인 모습을 달리할 뿐 어느 사회에나 있다. 인류학의 민족지적 자료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례 마당에서, 성원 대부분 참여하는 놀이·춤·노래 등의 방식을 빌어서 의도적으로 일상생활의 규칙을 깨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⁶⁾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관광 또는 여가라는 이름으로 그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다. 그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와는 달리 ‘성스러운’ 종교적인 의례의 기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산업체에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여가·스포츠·관광 등을 통하여 일상의 리듬을 벗어버리고 ‘무아경’의 경험을 하면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⁷⁾ 바꾸어 말하면 이전에는 공동체에서 사회제도로 확립된 ‘규범에 따

‘일상 : 놀이’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도식은, 본래 종교학 또는 종교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세속 : 성스러움’을 구분했던 데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인류학자들은 일상생활의 질서가 의도적으로 깨어지는 종교적 순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5) 한경구는 한국사회에서 규범적 질서가 깨어지는 술자리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한경구, 「상징전달의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曖昧와 模糊性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6) Emile Durkheim, 1916, 『Lé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노치준·민혜숙 역,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제7장 참조.

7) 때로는 일에 몰입하여 종교 의례에 못지 않는 흥분을 경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평범한 직장인일지라도, 일을 해나가는 도중에 짧은 시간이나마 격렬한 감정이나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순간적인 것이지, 언제나 그렇지는 못하다.

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광이나 여가 활동 등이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관광 등의 상품을 소비자가 '기꺼이 구입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관광업이란 사실상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생겨난 자본주의적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관광객이 '특별한'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일상사'를 잊고 싶어한다는 점은, 종교적 의례를 통한 '활력의 재충전'[revitalization]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막가고 싶은" 기분은, '잠시라도 일상사를 잊고 싶은' (때로는 무의식적) 욕망의 속된 표현이다. 실제로 바로 그러할 때, (휴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통상 짐을 꾸려서 여행을 떠나곤 한다.

일찍이 빅터 터너(V. Turner)는 의례의 일정 시점에 극도의 혼란이 초래되는 순간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커뮤니티스(communitas) 또는 반구조(anti-structure)라고 개념규정하였다.⁸⁾ 일부 학자들은 관광활동도 의례와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광 현상을 터너의 방식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레트(James W. Lett, Jr.)는 '일상적 시간'에 관광 준비를 마친 후, "휴가기간의 시작 - 비행기 탑승 - 관광지 도착"의 과정을 거쳐서, 일상생활과는 시·공간적으로 격리된 관광지라는 '금지구역'에 도달한 후, 일상적 규범이 무시되고 혼란은 용인되며 낯선 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친해진다고 하였다.⁹⁾

사람들은 위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벌어지는 관광객의 행동을 '추태'라고

8) Victor W. Turner, 1969, 『The Ritual Proc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원시사회에서는 성년식과 같은 의례를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곤 한다. 상징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 죽음'과 '새로운 탄생'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네덜란드의 인류학자인 반 겐넵으로 알려져 있다. Arnold van Gennep, 1909, 『Les Rites de Passage』 (전경수 역, 1985,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참조.

9) James W. Lett, Jr., 'Ludic and Liminoid Aspects of Charter Yacht Tourism in the Caribbea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3, 10(1), p.p.35-56.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6장 카리브해 전세 요트 관광의 유희적 측면과 리미노이드 측면)

규정짓고 비판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① 현실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잠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② 특정 순간에 주어진 공간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려 한다.

‘현실에서의 해방’이란 곧 ‘일상생활을 지배하던 규칙을 거부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사실 관광지를 ‘낙원’이라고 선전하고, 관광객들도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개인들을 구속했던 규제들을 벗어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질서, 기존 질서의 역전, 또는 새로운 질서의 경험욕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들을 (때로는 의식적으로) 거리낌없이 감행하기도 한다. 결국 관광산업은 이러한 행동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셈이다.

평소에는 허용되지도 않고, 때로는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행위를 스스로럼없이 자행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관광업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례를 들면, 매매춘(賣買春)을 비롯한 성적인 타락일 것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행동조차 기존의 사회규범에 관한 거부로 해석할 수가 있으며,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특정한 기회에 발생하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관광객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관광산업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심지어는 현재)도 전체 공동체 성원이 참여하는 축제라면, 모두가 돌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주민과 사회규범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관광객이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한다면 문제가 다르다. 평상시라면 관광객 스스로도 용납하기 힘든 행동을, 주민들이 선뜻 용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때문에 관광시설을 일상생활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10) 관광지에서의 성적 방종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James W. Lett, Jr., 'Ludic and Liminoid Aspects of Charter Yacht Tourism in the Caribbea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3, 10(1), p.p.35-56.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6장 카리브해 전세 요트 관광의 유희적 측면과 리미노이드 측면)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것이다. 이제 관광업에서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문제를 떠안은 셈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관광활동을 매도하기도 어렵다. 인간의 사회생활에서는 주기적인 긴장해소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¹¹⁾ 그 과정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이 모두 활력을 되찾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기회에 무질서를 경험한 후, 개인들이 기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²⁾ 즉 무질서의 경험은, 역설적으로 기존의 사회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역시 집이 최고야!” 식의 반응은, 단적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관광개발은 ① 일상과는 다른 주제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② 그 대상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③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단과 방법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는 성적 억압의 정도가 심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무한정으로 성적 자유를 허용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치 못하게 허용되더라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 내에서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관광지로서 각광받는 지역은 이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실상을 공식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가’¹³⁾의 문제가 있지만) 억압된 감정을 충족시켜 주는 곳이며, 단지 비교우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포지방에는 개발가능성이 큰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은 편

11) 사실 관광은 반구조의 상태에 계속 머물겠다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반대로 일정 기간 후에는 반드시 원래의 사회로, 즉 사회규범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채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

12) Victor W. Turner, 1969, 『The Ritual Proc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3)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는 행동이 벌어지는 관광지의 경우, 그 측면을 부각시킬 수는 없으며, 단지 우회적인 표현의 암시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소위 “물 좋다.”는 용어는 그러한 경우에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이다. 수많은 해수욕장이 산재한 바다는 물론이요, 내륙에 산재한 역사유적 등은 다른 지방에 비하여 전혀 뒤질 바가 아니다.

더욱이 상품성이 다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성을 제고(提高)시키고 보완하거나,¹⁴⁾ 관광자원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높이는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내포지방의 관광자원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포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잠재적 관광자원에서 ‘주제를 포착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겠다.

관광개발을 할 때, 관광활동에서는 ‘연극적인 과장과 과시’가 강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접촉과정에는 다분히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우선 가상의 사례 한 가지를 들어보자.

남편의 직장동료들을 집들이하는 신부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음식 장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자상은 물론이요 밥공기나 접시, 어느 것 하나 모자라지 않는 것이 없었다. 신랑은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라고 하였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기회를 빌어 그릇을 장만할 생각도 하였지만, 빠듯한 형편이라 포기하고, 결국 이웃집에서 빌리기로 하였다. 대청소는 물론이요, 집안을 신희생활답게 단장하는 일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상차림과 시중을 들려면 번거로운 관계로 평상복을 입고 싶었으나, 친정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한복을 입기로 하고, 아침에는 틈을 내어 미장원에서 머리 손질도 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보아 넘긴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단정한 정장이 제격이고, 부부동반의 파티에는 조금은 화사한 야회복이 어울린다. 이와는 반대로 장차 시어머니가 될 어른을 만나러갈 때 청바지에 샌들을 신고 갈 수는 없으며, 취직면접시험에 핑크스타일의 머리치장은 상

14) 후술하겠지만, 유명 관광지는 그 자체의 우월성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지역에 관한 수많은 윤색이 가해진 결과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할 수도 없다.

한국사회에서는 상황에 맞게 차려 입고 말하며 행동하고 상대방을 대접하는 일이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하여 ‘철딱서니 없다.’, ‘짜가지 없다’, ‘철부지라서...’ 등의 말로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꾸며낸 행동과 말이 기꺼이 용인되기도 하고, 최소한 묵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심각한 상태를 그대로 알릴 수는 없는 법이다. 서비스업종사자는 설령 억지일지라도 손님에게 친절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기억하는 척한다. 신체상의 변화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환자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설령 “완전한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괴롭다하더라도, 환자는 기꺼이 의사에게 말하려 한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가 잊고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사가 가장 최근에 어떤 약을 처방했으며,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환자는 몹시 자존심을 상하게 될 것이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극인’인 셈이다. 가정에 돌아와서는 근엄한 ‘아버지’이지만 술자리에서는 호기를 부리는 ‘술꾼’이며, 자녀들에게는 자상한 ‘어머니’이지만 계모임에서는 주위의 눈살을 찌프리게 만드는 ‘수다쟁이’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듯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적

15) Erving Goffman,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김병서역, 1987,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경문사: p.29. 물론 한국 의사가 이러하지는 않다. 의사의 수가 적다는 등등의 관계로,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한국에서는 의사가 오히려 고압적이다. 그러나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의 경우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합하게 변신하는 존재인 셈이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하여 반드시 이해타산에 따르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음식도 단순히 맛이나 영양가라는 기준에 따라 선택되지 않는다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데이트하는 남성이 이태리식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 행동은 분명한 과시이다. 이러한 식당의 장식¹⁶⁾이 매우 세련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고 있건 아니건, (행동하기에 편한 복장이 아니라) 세련된 복장을 입고 복잡한 식탁예절을 지키는 한편, 종업원들도 우아하게 ‘서비스’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한 마디로 ‘세련됨’이라는 주제의 연극인 셈이다. (때로는 평상복으로 가식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과격적인’ 행동조차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일종의 ‘과시적 연극’의 범주에 속한다. 바꾸어 말하면 점잔을 빼는 다른 손님과는 달리, “자신은 이러한 식사는 항상 즐기는 수준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는 셈이다.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온 손님이라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태리식 고급 레스토랑을 ‘한 끼 때우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안다.)¹⁷⁾

관광에서 ‘연극적 과장과 과시’는 일상생활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을 단순히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부지의 소박한 착각이다. 관광객들은 보통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빼어난 풍경을 배경으로 다소 과장된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사진은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왔으며’ ‘그곳은 이만큼이나 가보고 싶은 곳이다.’라는 표식(標識)이 된다. ‘더 나은 곳으로 간주되는’ 곳으로 여행했던 상대방에게는 자랑을 삼간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 할 것이다.

관광객의 의상은 자신의 목적을 과시하는 분명한 기호(記號)이다. 때로는 선정적으로, 때로는 호사스럽게, 때로는 편하게 차려 입어서 (어쩌면 바쁜 현

16) 이러한 경우에는 ‘장식’이라는 말은 이미 ‘촌스러운’ 표현이 되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라는 단어조차도 ‘세련됨’을 표현하는 데에 부족한 듯하다.

17) 서현정, 1992, 「상품소비의 문화적 규칙 및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 도시생활 중에서 관광을 나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시겠지만)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관광객의 식사도 평상과는 다르게 마련이다. 언제나 술이 따라 다니는 것은 상식이요, 아침까지 술 취한 것마저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다. 대부분 별미를 찾게 마련이고, 식사시간도 일정치가 않다. 이처럼 관광은 일상을 깨는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다.

따라서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의 ‘과시적’ 목적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역사적 관광자원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관광지로서 매력은 이미 반감되었다고 할 것이다.

과거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방문객에게 심리적 만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지금이라면, 최소한 유럽 고적지 답사는 되어야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현재 국내 역사유적지 가운데에서 방문 자체만으로 심리적 만족을 느끼게 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지겨운’ (학교)교육의 연장이라는 인상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의 쇠퇴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이제는 역사관광도 전환기에 서있다고 하는 인식으로 타개책을 모색하여야 할 단계라 할 것이다. 과감한 연출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¹⁸⁾

관광객들이 이와 같이 극적인 연출을 기대한다면, 관광업 종사자는 최소한 그 연극의 조연(助演)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보다 완벽한 연출이 되도록 ‘간·쓸개까지 내놓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관광업 종사자는 물론이요, 관광지의 주민들이 모두 관광객들의 연극에 들러리를 서는 셈이다.

그러나 조연이라도 연극을 주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능숙한 종업원이라면 지체가 높은 손님일지라도 정중하게 손님의 요구에 앞서서 일을 처리할 수

18) 이에 대하여 혹자는 역사유적의 훼손을 우려하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하게 될 것이다.

있고,¹⁹⁾ 능란한 연출자라면 관객을 압도할 수 있듯이, 관광객을 소위 ‘요리’할 수 있는 능력 여부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때로는 ‘천박해지기 쉬운’ 관광을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도 있다.²⁰⁾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야 말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고, 종사자 개개인들은 모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의 추태를 비난하는 태도는 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면, 관광지를 방문할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계로 퇴폐적인 관광시설을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인 일탈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상생활로부터 격리시킨다고 하여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에서 만연된 불법 영업의 실태만으로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광시설과 주거지를 격리시키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활동은, 일상 자체가 깨어지는 곳을 찾아서 즐기려는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찾는 대상에는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을까? 이는 ‘관광주체들이 개발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상통한다. 그런데 이 글의 목적이 일반적인 이론적 논의에 있는 것이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생략하고, 단지 내포지방의 잠재적인 관광자원의 면면, 그리고 개발 가능성을 덧붙이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한편 관광은 ‘순례’, ‘여행’, ‘여가활동’ 등의 활동과 많은 부분에서 서로 중

19) Erving Goffman,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김병서역, 1987,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경문사: p.11).

20) 폴리네시아의 문화센터(Polynesian Cultural Center)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Max Stanton,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Host and Guest, 1977, p.p.193-206. (전경수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8장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참조.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침되고, 때로는 서로가 다른 활동의 부분이 되기도 한다. 순례는, 특히 정치·종교적인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그 활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관광과 상통하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듯하다.

여행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이 되었으므로 관광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굳이 관광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여가활동은 오히려 관광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일을 떠나서 휴식을 취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관광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단지 여가활동을 어떻게 관광으로 유도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또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의 변화추세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동향에 대한 계량적 통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광동향은 오히려 언론 매체 등에서 거론되는 단어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위 ‘테마 관광’, ‘목적성을 가진 여행’ 등이 좋은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계량적 수치는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하며, 이 글에서는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특정 목적을 가진 여행’과 ‘적극적으로 즐기는 관광’이 주류를 이루거나,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전제 아래 관광자원의 발굴 가능성을 진단하게 될 것이다.

제2절 무엇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가?²¹⁾

관광개발은 ① 이미 주민들이 집단을 이루어, ② 특정 지역을 점하여, ③ 대대로 살아오면서 독특한 생활방식을 발전시켜온 곳을 정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산업이다. 때로는 디즈니랜드나 라스베이거스처럼 불모지를 개발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도 기왕에 살던 주민들이 있었다. ‘불모지’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단지 주민의 힘이 미약하여 그들의 이익과 문화적 전통을 완전히 무시했든지, 아니면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은 결과 주민과 개발주체 사이에서 큰 마찰이 없었을 가능성 등등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관광개발,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기왕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를 관광에 맞게 전용시키게 마련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에서는 ① 공간적으로는 자연환경, ② 역사적으로는 문화적 전통, 그리고 ③ 지역주민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²²⁾

그런데 빼어난 자연경관은 흔히 ‘이국적’, ‘환상적’ 또는 ‘○○의 진주’ 등의 상투어로 칭송되는 관광의 대상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이라 하여 단순히 주어진 천혜(天惠)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연적 조건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은 물론, 선대(先代)의 땀이 배어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연환경은 사실상 ‘인위적 자연환경’인 셈이다. 제주도의 유채꽃밭이나 각지에 산재한 수목원의 경우, 인간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21) 관광자원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논의에서는 관광자원의 분류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역사문화관광의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거론하는 것으로서, 자연자원의 경우에도, 역사문화관광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지어서 논의할 것이다.

22) 따라서 개발을 진행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그들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고려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주민의 동향과 그 집단의 문화적 전통은 때로는 관광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으나, 때로는 장애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고자 한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없다. 조상들이 풍수적(風水的) 비보술(裨補術)의 관점에서 조성한 가산(假山)이나 숲 역시 자연환경의 한 요소를 구성한다.²³⁾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문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자연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인위적’이다.²⁴⁾ 금강산·월출산 등이 유명한 것은 빼어난 경관에만 있지 않다. 선인(先人)들이 평가가 유명세를 더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소양강·칠갑산·정동진·하의도가 유명관광지로 부각되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라. 반대로 과거에 칭송되던 절경들이, 그 명성을 잃은 사례 역시 드물지 않다. 결국 자연환경이 관광대상이 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인(世人)들이 내리는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동이 빈번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연미만으로는 생활의 자극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영화와 같은 오락을 통하여 짜릿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연미는 이미 매력을 상실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노래·소설·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를 찾는 추세는, 단순히 자연경관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반영한 추세라 할 것이다.

즐기는 관광이라면 흔히 단순히 오락, 때로는 매매춘과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락이나 또는 매매춘이 주요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²⁵⁾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생활 체험이나 영화촬영 체험 등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박물관을 관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견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직접 제작하게 해보는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23) 바로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24) 세상을 보고 분류하는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놀랄 만큼 서로 다르다. 무지개의 색을 셋 또는 다섯이라 하는 문화도 있는 바, 일곱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서구 유럽적인 관념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벼·쌀·밥·죽 등의 세세한 분류용어가 발달하였으나, 영어권에서는 단지 rice로 통칭된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렇듯 문화적 분류방식의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그러한 흐름을 인지인류학이라 한다.

25) 누구라도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매매춘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관광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곳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미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문학 또는 예술 창작무대가 될 만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라면,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창작과정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자연자원에서도 연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즐기는’ 관광을 넘어서서 (부분적·가식적이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관광이라 할 것이다.

현재 역사적 전통은 흔히 유형의 유물 또는 유적을 가리킨다. 그리고 역사 관광은 대부분 과거의 삶에서 ‘기념비적인’ 흔적들을 (때로는 복원하여) 관람케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물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민속촌처럼 문화적 유산과 자연환경을 분리시킬 수 없거나, 또는 무형문화재처럼 인간의 행동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유형의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역사적 유물은 대개 ‘민족의 자부심 (또는 위대성)’ 등으로 치장되며, 따라서 흔히 오락적 측면보다는 교육적인 면이 강조된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의 유산(遺産)이 그러한 지위를 향유하는 것일까?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장소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었던 마당이었다. 결국 과거 흔적 중에서 몇몇의 ‘특기할 만한’ 사건만이 선택되고 전면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현재의 평가이다.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역사적인 유산”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너무나 소박한 생각이다. 현재 민속자료로 지정된 초가가 과거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현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²⁶⁾

그런 점에서 소위 ‘전통의 확립’이란, 어차피 과거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26) 전통의 현대적 창출에 대해서는 홉스보움의 고전적 저작이 있다. E. Hobsbawm and T. Ranger(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최석영 역, 1996, 『전통의 창조와 날조』, 서경문화사)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현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가 '전통'이라는 (종종 왜곡된) 이름으로 현재에 녹아 있는 셈이다.

나아가서 역사문화관광이란 (상업적 목적이기는 하지만) ① 모르간이 말했다시피 '없어졌던 것을 되살려서'²⁷⁾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출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② 대중들에게 '과거를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연출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역사적 유적지에서는 '경건함'을 강조하고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춤과 음악과 같은 무형의 문화재마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불경스러운 망동으로 간주되기 일쑤이다.²⁸⁾

그러나 단순히 문화재로 지정(·복원)시킨 후 관람케 하여 교훈을 얻도록 하는 관광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그것은 마치 사회에서는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칠판을 사용한 교육을 고집하는 것과 같다.

접근이 제약된다는 사실은 일종의 사회적 규제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방문지가 될 수 없다. 관광의 한 특징을 일상과는 다른 질서라는 측면에서 찾는다면, 그 특징을 스스로 체감했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고 할 것이다.

역사 유적지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별게 아니네!"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아예 관광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를 보면, 다분히 그러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역사적 문화재는 방문객의 접근을 제약할 소지가 많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²⁹⁾

27) Prys Morgan, 'From a Death to a View', E. Hobsbawm and T. Ranger (eds),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최석영 역, 1996, 『전통의 창조와 날조』 제3장 없어진 것을 되살리기, 서경문화사)

28) 현재 국악(國樂)의 침체는, 보존이라는 이유로, 또는 최소한 그러한 분위기 탓에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데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9) 자연환경의 경우에도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역사관광은 관광객의 느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³⁰⁾ 이미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유산의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 자체가 아니라 현재 속에 있는 과거라는 명제를 되새겨볼 때,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점진적으로 퇴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보다는, 오히려 일반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역사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필자는 이제 역사 유적지 탐방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역사 교육이 민족 정체성 확립의 한 방법이라면, 생생한 경험이야말로 그 첩경이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한 유적지의 복원은 소극적인 방식에 그칠 뿐이며,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역사 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혹자는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성이란 기본적으로 “과거, 그리고 전현대적(前現代的)이고 저개발에 머물러 있는 현재의 여러 사회를 현대화 대비시키는”³¹⁾ 구조이며, 그러한 비현대적 사회를 인위적으로 보존하고 개조하면서 현대인의 위안거리로 제공한다는 맥켄넬의 지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³²⁾

이다.

30) 그렇게 한다면, 특히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광은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를 만들어 가는 작업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학문적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라면, 관광개발이 학문적 연구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

31) Dean MacCannell (오상훈 역), 1994, 『관광객』, 일신사, p.9. (원저 : 1976, The Tourist, Shocken Books Inc..)

32) 그는 기본적으로 관광에 관하여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관광의 논리적 구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특히 반대해석을 통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실제로 관광 대상물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것들이며, 바로 그 때문에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도시 생활에 진저리를 치는 도시민들이 자연 생활을 동경하며,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이 과거 생활에 대하여 향수를 간직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적 질서와 대비되는 특성들은 언제나 상품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비적인 매력을 위해서라면 관광객들은 기꺼이 생활의 불편함이나 피곤함도 마다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보인다.

관광개발을 논함에 있어서 인적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좁게는 관광업 종사자에 그치지만, 넓게는 지역주민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광학에서는 보통 인적 요소를 관광자원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이라는 요소, 또는 사회적 배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광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을 강조하는 주장도, 그러한 배경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업 종사자가 단순한 일자리로 생각할 뿐, 자신의 일에 관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주민들에게는 지역 발전이라는 구호에 그칠 뿐, 구체적인 사회·경제적인 실익이 없을 때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설령 친절교육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관광에 의한 폐해가 실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면 (최소한 주민들이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지속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민의 축제나 공연에 관광객이 참가하는 것과 같이, 주민활동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더욱이 관광객들도 점차 수동적인 관람객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신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을 관광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주민활동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축제의 상품화도 그러한 사례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민속축제라 할지라도 단순히 과거 형태를 복원하는 것에 그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주민들의 의식주가 변하고, 사고방식도 달라졌으며, 외부와 접촉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 형태를 고집하는 시

도는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사실 민속놀이마당에 노인들만 관람하고, 젊은층은 외면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전통이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며, 그것은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변화의 거부는 곧 생명력의 상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현대에 맞게 변형시키려는 시도는 과연 어떠한가? 전통축제의 경우, 복식이나 손동작 등의 외형 보존에 치중하지 말고, 집단을 결속시키는 구심점이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떠한가? 현대적 감각으로 변형된 잔치마당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흥겹게 참여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시킨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존과 복원을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정책 아래서는, 방문객들이 소중한 자연 자원과 역사유물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이제 주민 참여를, 단순히 자본 참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될 듯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실생활, 특히 역사적 유래를 가진 의례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애향심과 같은 모호한 구호가 아니라, 주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실익이라 하여 반드시 경제적 수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물론이요, 작금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례(冠笄禮)의 고증과 실연,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원과 향교 등을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볼 만하다.

만일 실생활과 관광을 접목시키기 힘들다면, 모형 문화를 제작하거나 공연하는 방안도 시도할 만하다. 전통적인 박물관 전시 또는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문화강좌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마치 실제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환경 속에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면, 실생활에 침투하려 하는 적극적인 방문자들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실제보다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실제 생활 경험에서 느끼는 실망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가적인 효과라 할 것이다.

주민이라는 모호한 범주도 제고해 볼 여지가 크다. 농촌 공동체마저 이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전체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한 면에서 주민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특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 또는 조성하여 일부 전문가를 육성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생활규제를 담보로 하는 민속마을보다는 전통 마을을 모방한 단지를 조성하여 직접 삶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선비 또는 산사(山寺)의 승려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수련장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관광이라 하여 무작정 폐기할 것도 아니다. 주민의 일상에서 격리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서해안에 산재한 유·무인도들은 이러한 장소로는 적격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관광자원의 선정과 연출

흔히 관광은 모두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역사탐방, 순례관광, 수학여행 등등은 그 중의 몇 사례에 불과할 뿐이며, 그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종교순례일지라도, 고행을 거치는 수도(修道)로부터 단순한 수련 활동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색다른 경험을 향유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 말은 일상생활에서 구하기 힘든 독특한 느낌을 얻는다는 말이다. 관광을 홍보할 때 ‘이국적’, ‘환상적’, ‘충격적’……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수식어는 일상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색다름’을 관광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홍보전략인 셈이고, 따라서 관광개발의 주요 주제는 ‘색다름’이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색다름’이란 무엇인가? 이국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색다름의 한 방법일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행동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국적’이라는 단어가 ‘색다름’과 같을 수는 없다. 경쟁사회에 치열함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광란 속에 몰입하여 현실을 잊을 수도 있지만, 평화로운 안온함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자극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재래시장의 ‘치열한’ 삶의 모습이 청량제가 될 수도 있다. 광란의 분위기, 목가적인 풍경, 치열한 경쟁 등등 모든 특성이 색다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색다름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일상성에서 벗어났다.’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일상과는 다른 색다른 주제를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관광개발의 관건 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러한 경험을 위하여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또한 여행이 일상화되고 수많은 관광지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백제의 고도(古都)였던 부여나 공주 이외의 지역에서 ‘백제’를 강조하는 전략은, 식상함을 주거나 또는 들러리의 지위를 자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히 주제를 ‘포착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유한 주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다면 내포(內浦)에서 고유한 것, 우리만의 것이라고 느낄 만한 특징은 무엇일까? ‘내포’라는 단어를 ‘남도(南道)’에 버금가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서 주민이 아니라, 관광객들로 하여금 ‘내포’의 고유성을 규정짓도록 하는 방법은 불가능할까? 이 작업은 한 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포지방의 특징적 요소들을 분리해내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포의 특징적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 항목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필자가 제시하게 될 ‘내포의 주제’는 단지 잠정적인 것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무단히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주제는 내포의 문화자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을 개괄한 뒤에 제시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충청도는, 한편으로는 수도권과는 다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독특하지 않다는 대중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색다른 매력이 없는 지방으로 평가되어 왔다. 실무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이 점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신비성의 본질은 아무런 신비함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³³⁾ 그것은 관광에서도 마찬가지이니, 그 어떤 관광대상물도 그 자체만으로는 관람객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³⁴⁾ 오히려 적절한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경외감은 강화되듯이,³⁵⁾ 방문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상징을 만들고, 그 상징적 기념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관광할 가치가 있는 명소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 과정에서, 종종 방문객의 평가보다는 책·영화 등과 같은 매체 또는 학문적인 연구성과가 큰 역할을 한다. 관광객들은 명성 때문에 방문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몰입하고, 단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로는 몰려든 관광객 자체가 관광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생산주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유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야산 일원의 불교유적, 태안반도 해역의 조운 관계 유적, 각지에 산재한 조선조 호서사림(湖西士林) 관계 유적 등은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천수만 일대의 조류, 안면도의 식물

33) Goffman, Erving (김병서역), 1987,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경문사, p.p.67-70. (원저 :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관광 명소의 경우도 반드시 명소일 필요는 없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34) Dean MacCannell (오상훈 역), 1994, 『관광객』, 일신사, p.p.138-145. (원저 : 1976, The Tourist, Shocken Books Inc..)

35) Goffman, Erving (김병서역), 1987, 『자아표현과 인상관리』, 경문사, p.p.67-70. (원저 :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군락은 생물학자들의 큰 관심사이다. 덕산온천과 태안해상국립공원은 이미 상업성을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를 위한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2년 꽃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 안면도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은 이미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한편 가야산 일대의 역사유적과 온천 개발도 병행한다면, 안면도의 바다와 가야산 일대의 산악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문화패들이 정착하도록 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창작과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 심훈 선생이 창작활동을 하였고,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던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의 경우, 역사적 배경만 놓고 본다면 창작자들의 창작 공간의 후보지로 손색이 없다.³⁶⁾

한편 내포적인 특성이라 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모한 노력이다. ‘우리 고유의 것’이란 없으면,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믿는 것’일 뿐이다. 모든 전통은 부단히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외부의 요소들이 첨가되는 것이다. (영국이라는 식민지 국가의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말타의 예를 살펴보자.)³⁷⁾

또한 관광권역을 구분하는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의 방향을 설정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설정된 관광권역을 변경하지 못할 바가 아니며, 그 권역에서는 모두 그 주제에 맞추어 관광개발

36) 현재까지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한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유명 관광지 가운데에는 그러한 곳이 많다. Jeremy Boissevain, 「Tourism and Development in Malta」, *Tourism and Economic Change*, 1978, p.p.37-56.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5장 말타의 관광과 발전) p.p.113-115 참조.

37) Jeremy Boissevain, 「Tourism and Development in Malta」, *Tourism and Economic Change*, 1978, p.p.37-56.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5장 말타의 관광과 발전) 참조.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을 진척시키거나, 또는 기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주제의 문화유적을 활용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현재 내포지방은 태안해양국립공원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려한 태안해양국립공원의 경관을 중심으로 천수만을 끼고 있으며, 인근에 많은 유·무인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다도해에 못지 않게 개발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이라는 배후지에서 가깝다는 사실도 큰 강점이다.

그런데 바다를 자원으로 하는 관광개발의 경우, 해방감의 정도가 크며 무질서와 그에 따르는 커뮤니티스의 경험은 극대화된다. ‘바다 = 시원함’이라는 등식은 단순한 외피일 뿐이다. 청량감의 측면에서 볼 때, 바다는 계곡을 따르지 못하며, 오히려 들뜬 분위기가 바다와 어울리는 이미지이다. 따라서 바다를 자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을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혹은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서해안에 넓게 분포하는 섬까지 고려한다면, 장차 태안해양국립공원에 요트관광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트관광은 현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요트관광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러브호텔이라는 오명 때문에 숙박업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적절한 격리방법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다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도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연출이 가능하다. 해변[海曲: 섬과 串]에 국마장(國馬場)을 설치하였던 조선시대에 면천·서산·태안·홍주에만 10개소의 국마장이 있었다.³⁸⁾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해수욕장 인근 해변에 과거 국마장(國馬場)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승마를 즐기게 하거나, 공연패의 전통 마술(馬術) 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8) 『목장지도』 (효종 연간.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古20650).

제 2 장 관광과 사회

다음 장에서는 앞서서 전개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포지방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항목들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제1절 내포의 지명유래

이 장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은, 과연 ‘내포(內浦)’는 어느 곳을 말하며, 또한 과거에 세인(世人)들에게 어느 정도나 알려졌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알려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내포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황은 문헌사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포’라는 지명은 문헌사료에서는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현재 충청남도에서만 익숙하다는 사실이 의외로 여겨질 지경이다.

『왕조실록』에도 이미 태종조의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에 명하여 전라도 미곡(米穀)을 육지로 운송[陸轉]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정부에서 글을 올렸다[上書].

“충청도 각관(各官)의 전조(田租)는 전객(佃客)으로 하여금 수송하되, 내포(內浦)와 금천(金遷)에 이르게 하고, 전라도 완산 영내(完山領內) 동북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청주 영내(淸州領內)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완산 서남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공주(公州)·홍주(洪州)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남원(南原)·순천(順天)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동북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고, 나주(羅州)·광주(光州) 영내에 있는 각관은 수송하여 완산 서남 영내의 각관에 이르게 하되, 경상도 역시 이 예(例)에 의하여 차례대로 전수(轉輸)하면, 노정이 모두 3일 동안의 거리에 불과하고, 왕복하는 데 머무는 것이 모두 10일에 불과하게 되어, 전객이 직접 수납하는 폐단을 일거에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³⁹⁾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위의 기사에 따르면, 내포는 금천(金遷)과 동격의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 금천은 조선조 충주목에 속한 금천면(金遷面)을 가리키는 바,⁴⁰⁾ 남한강변의 일개 포구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몇 종의 고지도(古地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역지도(鰈域地圖)』⁴¹⁾ 및 『청구도(靑丘圖)』,⁴²⁾ 그리고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⁴³⁾를 보면, 삼교천방조제 서안(西岸)에 내포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수많은 고지도에는 이곳을 대진(大津)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포(內浦)는 대진(大津)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대진은 현재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이다.

내포가 대진의 별칭이라면, 선초에 설치되었던 대진만호(大津萬戶)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홍주목(洪州牧)의 속현(屬縣)이었던 신평현의 대진포(大津浦)는 수군만호(水軍萬戶)의 진이었다.

세종조에 대진 동쪽으로는, 경양포(慶陽浦)⁴⁴⁾ · 공세곶 및 범근내포[犯斤川浦]⁴⁵⁾ 등 3곳의 수조처(收租處)가 있었다. 경양포에서는 직산과 평택 2개 고

39) 命議政府 議全羅道米穀陸轉事以聞 政府上書曰 忠淸道各官田租 令佃客輸至于內浦金遷 全羅道 完山領內東北各官 則輸至于淸州領內各官 完山西南領內各官 則輸至于公州洪州領內各官 南原順天領內各官 則輸至于完山東北領內各官 羅州光州領內各官 則輸至于完山西南領內各官 慶尙道亦 依此例 以次轉輸 則道送俱不過三日往返 留連摠不過十日 佃客直納之弊 一舉可革 從之.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8월 28일 庚辰條.

40)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이다.

41) 제1책 忠淸道圖. 접역지도는 19세기 말의 지도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청구번호 古4709-43),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한-61-69).

42) 제2책 제18층 14·15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채색필사본으로 1834년의 후사본이다.

43) 分冊된 『대동여지도』상에는 현재 경기도 평택지방을 內浦라 표시하였다. 대략 평택 포승면 만호리 포구에 해당되는데, 1970년대까지도 한진리에서 평택으로 건너가는 큰 나루였다.

44) 현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계양나루이다.

45) 현재 당진군 우강면 강문리 속칭 부리포(富里浦)를 말한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을, 공세곶에서는 아산·청주·목천·전의·연기·온수·신창·은진·연산·회덕·공주·정산·회인·천안·진잠·이산·문의 등 17개 고을, 그리고 범근천(犯斤川)에서는 면천·임천·한산·서천·남포·비인·홍산·홍주·태안·서산·해미·당진·덕산·예산·청양·보령·결성·대흥·석성·부여 등 20개 고을의 조세가 수집되는 셈이니, 전체 충청도의 55개 주·군·현(州郡縣) 가운데 39개 고을의 조세가 3개 포구로 집결하였던 셈이다.

왜구와 해적이 준동하던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조세의 안전한 운반을 위하여 해안 방어가 긴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산만의 남안(南岸)에만 대진만호를 비롯하여 당진 및 파치도(波治島)에 만호가 설치되어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이중 대진만호는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왕조실록』에는 세조조를 끝으로 대진만호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해변이 안정되고 방어체계 정비된 결과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포(內浦)를 한 군현(郡縣)의 이름 또는 여러 군현을 더불어 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아래의 기사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1)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바닷조개[海蛤] 백 개를 바쳤다. 그 이름은 강요주(江瑤柱)인데, 비인(庇仁)·내포(內浦) 등지에서 생산된다. 날씨가 추울 때에 해구(海口)의 조수(潮水) 머리에 물이 줄어들고 진흙이 드러난 곳에 나는데, 혹시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며, 그 맛은 보통 조개[蛤]와 같지 아니하다.⁴⁶⁾ <『성종실록』 권212, 성종 19년 정월 5일 庚午條>

(2) 장령 이만(李曼)이 ... 당시의 폐단을 진술하였는데, 그 대략에, “... 요즘 들건대, 내포(內浦) 한 고을의 염분(鹽盆)을 궁가(宮家)에 옮겨 소속시켰다 하니, ...” ... ⁴⁷⁾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11월 18일 壬寅條>

46) 忠淸道觀察使金礪石 獻海蛤百箇 其名江瑤珠 產於庇仁內浦等處 日寒時海口潮頭水落泥生處 或產或不產 其味與常蛤不類也.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3) … 또한 대동법은 문성공 이이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당시에는 1결당 4두로 말했었고, 다음에는 고 상신 김육(金堉)이 호영(湖營)에 있으면서 계청(啓請)한 것으로 그때에는 1결당 쌀 2두, 목면 1필을 청했으며, 효종 초년에는 간원이 대동법의 시행을 청하면서 역시 3두를 청했으나, 백성들의 역량을 헤아리고 나라의 비용을 계산하여 반드시 짐작하고 헤아린 바가 있었다. 그런데 호서에 처음으로 설행하면서 갑자기 10두에 이른 것은, 대개 내포(內浦)가 임진난 때 병화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도의 조세까지 의 6, 7읍에 떠맡겨졌기 때문이니 공물(貢物)의 번중(煩重)함이 팔도의 으뜸이었다. …48) <『현종개수실록』 권8, 4년 2월 13일 壬子條>

(4) … (영의정) 이광좌가 아뢰기를, “호서(湖西) 내포(內浦) 18개 고을이 이미 적지(赤地)로 판명되었으니, 청컨대 박사창(朴師昌)을 어사(御史)로 파견해 떠도는 백성을 안집(安集)시키고, 수령(守令)을 엄찰(廉察)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49)<『영조실록』 권45, 영조 13년 8월 27일 癸未條.>

위의 기사를 보면, (1)과 (2)는 특정의 한 군현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3)에서는 6~7 고을 이상을, (4)에서는 명확하게 18개 고을을 가리킨다. 한 고을을 칭하는 경우, 선조 대진(大津)이 속했던 홍주목의 속현 신평현(新平縣)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듯하다.

그러나 (3)과 (4)에서, 특히 후대로 갈수록 여러 고을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서, 신평현의 별칭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해미,⁵⁰⁾ 아산,⁵¹⁾ 면

47) 掌令李曼 … 仍陳時弊 略曰 … 近聞內浦一邑鹽盆 移屬於宮家 ….

48) … 且大同之議 初出於文成公李珥 其時以一結四斗爲言 再發於故相臣金堉之在湖營 啓請而其時以一結米二斗木一匹爲請 孝宗初年 諫院請行大同 而亦以三斗爲請 量民力計國用 必有所酌量矣 及湖西之 初設也 驟至於十斗者 盖由於內浦 壬辰不被兵之故 他道之役 皆委於六七邑 貢物煩重 甲於八路 ….

49) … (李)光佐以湖西內浦十八邑已判赤地 請遣朴師昌爲御史 安集流民 廉察守令 上從之….

50) 선조 31년 기사에 충청도 兵營이 內浦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병영이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천,⁵²⁾ 홍주,⁵³⁾ 안흥성,⁵⁴⁾ 서산⁵⁵⁾ 등을 모두 내포에 속한 고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조조 이후에 내포는 이미 일정 지역을 통칭(通稱)하는 용어로 변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내포(內浦)를 설명한 세주(細註)에 따르면 “대진(大津)의 이남(以南)을 통칭(通稱)하여 내포(內浦)라 한다.”⁵⁶⁾고 했다.

그렇다면 (4)에서 언급한 호서 내포의 18 고을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조선후기 홍주진관(洪州鎭管)에 속한 18개 군현을 떠올릴 수 있다. 영장제(營將制)가 확립된 이후 전영(前營)이었던 홍주진(洪州鎭)에는 모두 18개 군현이 속했으니, 서천·면천·서산·태안·온양·평택·홍산·덕산·청양·남포·비인·결성·보령·아산·신창·예산·해미·당진 등이 바로 그 군현들이다.

결국 아산만의 하구(河口)를 가리켰던 용어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일대를 통칭하는 지명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일대를 군사적으로 총괄하는 전영(前營)이 설치되었던 홍주(洪州)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삼교천과 무한천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대진(大津)

海美에 있었다.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2일 癸丑條; 同 권135, 선조 34년 3월 17일 乙卯條.

51)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11월 1일 丁巳條.

52) 이몽학난에 가담했던 韓絢이 내포에서 호응하기로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7월 1일 丙寅條.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면 한현은 면천에 있었다고 한다.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25일 庚寅條; 『선조수정실록』 권30, 선조 29년 7월 1일 丙寅條.

53) 睦行善은 스스로 內浦의 수령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그는 홍주목사로 부임했던 인물이다. 『효종실록』 권7, 효종 2년 8월 14일 己未條.

54) 내포에 성을 쌓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는 안흥성의 축조공사였다. 『효종실록』 권16, 효종 7년 2월 27일 丙子條. 이와 관련된 기사로는, 同 권16, 효종 7년 2월 2일 辛亥條; 同 권16, 효종 7년 2월 10일 己未條 참조.

55) 『효종실록』 권20, 효종 9년 6월 17일 癸未條.

56) 『大東地志』 洪州 典故條.

역시 홍주목에 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포라는 단어는 현재의 충청남도 서북부 연해 지역 및 삽교천과 무한천을 끼고 있는 지역을 통칭하는 지명으로 정착된 셈이다. 지금도 이 일대의 주민들은 내포의 중심지를 홍성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내포에 관하여 논할 때, 가야산을 언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가야산의 정상(해발 677m)에 오르면, 당진 북쪽의 바다로부터, 서쪽의 천수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일대는 모두 가야산의 자락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내포의 산줄기와 물줄기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산맥은 지질학적 구조선에 입각한 개념이다. 그러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주민에게 지질학적 특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형적 특징, 특히 솟아오른 산줄기와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에 의하여 생활권이 구분되었다. 산경(山經)과 수경(水經)에 관한 인식은 이러한 배경에서 발달한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산경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뻗은 백두대간은 곳곳에서 산줄기가 갈려나가는데, 내포로 뻗은 산줄기는 속리산에서 시작된다. 속리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맥은 회유치(回踰峙)가 되는데, 이것이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이다. 속리산의 맥은 다시 보은의 연치(燕峙)에서 둘로 나뉘고 다시 회인(懷仁)의 피반령(皮盤嶺)에서 나뉘는 등 여러 지점에서 갈라진다. 그 한 줄기가 청주(淸州)의 상당산(上黨山) - 청안(淸安)의 좌구산(坐龜山) - 괴산의 봉학산(鳳鶴山)·중산(甑山)·마곡산(麻谷山) - 음성의 보현산(普賢山) - 충주의 소속리(小俗離)·망이산(望夷山)·주걸산(周傑山)을 거쳐 죽산의 칠현산(七賢山)에서 다시 둘로 나뉜다.

한 줄기는 안성의 백운산(白雲山)에서 북으로 뻗어서 용인의 부아산(負兒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山) - 광주(廣州)의 광교산(光敎山)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漢南正脈)이 되고, 다른 한 줄기가 바로 금북정맥(錦北正脈)이다.

금북정맥은 칠현산에서 안성의 청룡산(靑龍山)을 거쳐 서쪽으로 흘러 직산의 성거산(聖居山) - 망일치(望日峙) - 월조산(月照山) - 연기의 의랑치(義郎峙) - 천안과 공주의 차령(車嶺) - 쌍령(雙嶺) - 광덕산(廣德山) - 각흘치(角屹峙)에서 남북으로 갈라진다. 한 줄기는 ① 북으로 뻗어 아산에서 그치고, 본 줄기는 ② 청양의 사자산(獅子山) - 우산(牛山) - 구봉산(九峯山) - 홍주(洪州)와 홍산(鴻山)의 백월산(白月山) - 성태산(星台山)에서 다시 북으로 굽어서 오서산(烏栖山)으로 이어진다. 오서산에서는 다시 작은 줄기가 갈라져서⁵⁷⁾ ③ 보령의 진당산(鎭堂山)으로 뻗어서 바다에서 그친다.

오서산의 본 줄기는 ④ 결성의 보개산(寶蓋山) - 월산(月山) - 수덕산(修德山) - 가야산(伽倻山)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다시 한 줄기는 ⑤ 먼천으로 뻗어 마산(馬山) - 몽산(蒙山) - 신암산(申菴山) - 녹운치(綠雲峙)에서 그친다. 본 줄기는 서쪽으로 뻗어서 ⑥ 서산의 성국산(聖國山)에서 다시 나뉘어지는데, 북으로 뻗어서 ⑦ 대산(大山) - 평신진(平薪鎭)에서 그치고, 서로 뻗은 줄기는 ⑧ 서산의 팔봉산(八峰山) - 태안의 백화산(白華山) - 지령산(知靈山) - 안흥진(安興鎭)에서 그치며,⁵⁸⁾ 남으로 뻗은 줄기는 ⑨ 안면도로 이어져 ‘영목[要兒梁]에서 그친다.⁵⁹⁾

57) 위에서 거론된 지점 외에도 산줄기는 여러 곳에서 갈라진다. 여기서는 단지 논의의 전개에 직접 연관된 부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58) 위와 같은 지맥의 흐름에 관한 인식은 공통적이었던 듯하다. 1927년 군수 李敏寧에 의하여 간행된 『서산군지』 山岳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즉 俗離山一脈 - 廣德山 - 聖住山 - 烏棲山 - 月山 - 修德山 - 伽耶山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본 줄기로 보고 있다. 본문은 아래와 같다. 伽耶山 忠淸北道報恩郡俗離山一脈 經本道天安郡廣德山公州靑陽 爲保寧郡聖住山 又至保寧洪城靑陽三郡之交 起爲烏棲山 北走爲『洪城郡月山 又北爲禮山郡德山面修德山 至海美面大谷里分爲二支 一支至禮山郡德山面及海美面雲山面之間 起立爲伽耶山 其高六百七十八米突 背負禮山面 臨本郡 是爲忠淸西部之巨嶽 本郡諸山之祖宗也 ……

59)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산줄기는 바다에서 그치지 않고 곳곳에 섬과 함께 기암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결국 금북정맥은 차령에서 남쪽으로 성주산과 오서산까지 뻗다가,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가야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동서간의 교통을 가로막는 산줄기는 두 개가 된다. 하나는 차령에서 성주산 및 오서산으로 남향하는 산줄기이고, 다른 하나는 성주산과 오서산에서 북쪽의 가야산으로 뻗어올라간 산줄기이다.

내포에서 동서 교통을 방해하는 산줄기가 두 곳임에도 불구하고, 차령에서 성주산·오서산으로 뻗은 산줄기[①, ②, ③]는 공주와 내포의 경계였던 반면, 성주산·오서산에서 가야산으로 뻗은 산줄기가 경계가 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주산·오서산에서 가야산으로 뻗은 산줄기가 덜 험한 관계로 곳곳에 낮은 고개를 통하여 통행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공통점은 내포 일대가 모두 바다에 접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태안반도를 비롯하여 천수만에 위치한 지역은 물론이요, 현재는 내륙이라고 생각하는 예산과 같은 지역도 과거에는 조수(潮水)를 이용한 뱃길이 닿는 곳이었다. 오페르트가 가야산록에 위치한 남연군묘를 도굴하는 사건에서도, 밀물을 이용하여 기선(汽船)으로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까지 항해했다고 한다.

결국 차령 - 성주산·오서산의 서북부 지역은 바다에 연접한 ‘갯고을’[海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내포(內浦)를 우리말로 풀어쓰면 ‘안’쪽의 ‘개’라는 뜻이 되거니와, 한진나루 남쪽으로 내륙에 위치했던 나루들이 모두 중요한 교통 거점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⁶⁰⁾ 그 지명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절벽을 만든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전통시대에는 항해의 장애가 되었지만, 이제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60) 유궁포(由宮浦)의 물이 북쪽으로 흘러와서 소사하(素沙河)와 합치며 두 가닥 물이 만나는 그 사이가 아산현(牙山縣)이다. ... 등 뒤로는 곡교(曲橋)의 큰 냇물이 동남쪽에서 흘러오는데, 양쪽물이 서북쪽 술방(戌方)에 함께 모여서 큰 호수로 되었다. 호수 남쪽의 산 하나는 신창에서 뻗어왔고, 호수 북쪽의 산 하나는 수원에서 뻗어왔는데, 이 산들이 수구(水口)를 감싸안아서 마치 문과 같다. 물이 문을 통해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홍주목을 비롯한 여러 고을을 갈 때에도 이 나무들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후대로 갈수록 내포라는 단어가 이 일대의 군현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 사용되는 추세도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을 놓고 볼 때, 단연 주목되는 산악은 가야산이다. 성주산과 오서산이 경계를 이루는 산악이라면, 가야산은 내포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기암괴석과 계곡이 절경을 이루는 점도 빼놓을 수 없거니와,⁶¹⁾ 해발고도에 비하여 가야산자락이 넓게 펼쳐진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를 가야산록에 늘어선 고을이라고 하는 듯하다.⁶²⁾ 지금도 날씨가 맑으면 가야산정에서 동쪽으로 예당평야는 물론이요, 북쪽으로

서 나오면 곧 유궁포의 하류와 합치는데, ... 나라에서는 영인산의 북쪽 바닷가에 다 창(倉)을 설치하고 바다와 가까운 충청도 여러 고을의 부세(賦稅)를 거두어서 해마다 배에 실어 서울에 나르는 까닭으로 이 호수를 공세호(貢稅湖)라 부른다. 이 지방에서는 본래부터 생선과 소금이 넉넉하였는데, 창을 설치한 후부터는 백성이 많이 모였고 장사꾼도 모여들어서 부유한 집이 많다. ... 유궁포의 동쪽과 서쪽의 여러 고을에는 모두 장삿배가 통하나 그 중에서도 예산(禮山)이 배들이 떠나고 머무는 곳으로 되었다. (由宮浦至北 與素沙河合兩水交會間 爲牙山縣 ... 背後曲橋大川自東南來 來會于西北戊方 合爲大湖 湖南一山自新昌 湖北一山 自水原至 交紐於水口如門 水出門即與由宮浦下流合 ... 朝家置倉於靈仁山北地盡頭 收忠淸近海諸邑賦稅 歲漕至京師 故名爲貢稅湖 地本饒魚鹽 而以倉故人民多聚商賈萃會 多富厚之家 ... 由宮浦東西諸邑 皆通舟商 而其中惟禮山爲去留都會之所) 『택리지』 八道總論 忠淸道條.

- 61) 忠淸道の 內浦地方에 잇는 代表的 名山. 內浦라 함은 牙山灣으로 注入하는 插橋川・金馬川의 以西 諸郡을 니름이다. 忠淸道內로 斜行한 車嶺山脈이 舊 鴻山の 星台山에서 西北으로 一別枝를 내여 聖住・鳥棲・寶蓋・伽倻의 諸山이 되니, 伽倻山은 실로 忠南의 이 由脈本枝에 잇는 가장 高太한 突起가 된다. 東南은 土山이요, 西北은 石山인데, 東에는 伽倻寺의 洞壑이 잇서 龍湫가 淙淙하고 西에는 水簾洞이 잇서 岩瀑이 絶奇하고 北에는 講堂洞・武陵洞의 泉石勝地가 있다. 崔南善, 1948, 『朝鮮常識: 風俗・地理・制度 編』 第二 山岳類 伽倻山(內浦) (1997년 민속원 영인본) p.64.
- 62) 伽倻山の 앞뒤에 잇는 10 고을을 함께 內浦(內浦)라 한다. (伽倻前後有十縣 俱號爲內浦) 『택리지(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條.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는 당진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보령 앞바다까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전통시대에 산줄기가 인간의 접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면, 물줄기는 사람과 물자의 운송로였다. 하천은 간단히 나룻배로 건너면 되거니와, 하천을 따라 내려가는 일은 뗏목으로도 가능했고, 밀물 때에는 역류하는 조수(潮水)를 이용하여 쉽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었다. 육상의 도로도 평탄한 하천변을 따라 개설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하천변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으니, 정기시장 역시 하천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천보다는 험하기는 해도, 바다 역시 중요한 교통로였다. 특히 대규모의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모두 바닷길을 이용하였으니, 영·호남의 모든 조세는 반드시 충청도 해안을 거쳐서 서울로 운반되었다. 그런 관계로 내포지방은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백제시대 이래의 불교유적은 선진문물이 유입되는 관문이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거니와, 보령의 수군 절도사영과 원산진, 태안의 안흥진·소근진·운하유적들, 서산의 파지도영과 평신진, 아산의 공세포 등의 유적은 모두 고려-조선조에 해안 운송과 방어를 겸했던 전략요충지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것이다.

한편 전통시대의 육상교통은 서울을 중심으로 十자형의 대로(大路)가 개설되어 있었다. 충청도에서는 공주를 거쳐 호남으로 가는 길과 충주를 거쳐 영남으로 가는 길이 주요 도로였다. 결국 내포지방은 차령에서 성주산·오서산으로 이어지는 금북정맥에 의하여 주요 역로(驛路)에서 비껴나 있었다.⁶³⁾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다로 침범하는 해적은 경상도와 전라도가 최전선이 되었고, 육로를 통한 큰길에서는 벗어났으니, 내포지방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실제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63) 『만기요람』을 보면, 서해 유성룡은 남한강을 따라 북상하는 적을 염려하여 충주의 방어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잠곡(潛谷) 김육(金堉)은 전라도에서는 무주·금산을 거쳐 옥천·문의로 통하고, 경상도에서는 상주·금산(金山)을 경유하여 황간·영동을 통하여 두 길이 청주로 모이게 된다고 하면서 청주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기요람』 軍政編 4, 關防 忠淸道條 柳成龍所論; 同 金堉所論.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내포는 병화(兵禍)를 입을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하천과 바다를 통하여 서울에 쉽게 갈 수 있었다. 또한, 해상교통의 요지로서 온갖 물자가 집산(集散)하여 육지의 산물과 해산물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지방은 낙토(樂土)였던 것이다. 『택리지』의 기사는 이러한 입지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충청도에서는 내포(內浦)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 쯤에 가야산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으로는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 큰 못[大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곧 서해가 쭉 들어온 곳[斗入處]이다. 동쪽에는 큰 들판[大野]이고 들 가운데에는 또 큰 개[大浦]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유궁진으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에 막혀 있는데 가야산으로부터 온 맥으로, 단지 동남쪽으로 공주와 통한다.

가야산(伽倻山)의 앞뒤에 있는 10 고을을 함께 내포(內浦)라 한다. 지세(地勢)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壬辰)과 병자(丙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 집이 많다. 그러나 바다 가까운 곳에는 학질과 염병이 많다. 산천이 비록 평평하고 넓으나 수려한 맛이 적고, 구릉(丘陵)과 원습(原濕, 높고 마른 땅과 낮고 젖은 땅)이 비록 아름답고 고우나 천석(泉石)의 기이한 경치는 모자란다.

그 중에서 보령의 산천이 가장 아름답다. 고을 서편에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영(營)이 있고 그 안에 영보정이 있다.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활짝 띄어서 명승지라 칭한다. 북쪽은 결성·해미가 있고, 서쪽에는 큰 개[大浦] 너머에 안면도가 있다. (보령·결성·해미) 3읍(邑)은 가야산의 서쪽에 위치한다.

또 북쪽에는 태안과 서산이 있다. 강화(江華)와 남북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작은 바다로 떨어져 있다. 서산 동쪽은 면천과 당진이며, 동쪽으로 큰 개를 건너면 아산이다. 북쪽으로 작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경기의 남양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및 화랑과 비스듬하게 마주하고 있다. 이 4읍(邑)은 가야산의 북쪽에 위치한다.

가야산의 동쪽은 홍주와 덕산이다. 모두 유궁진의 서쪽에 있는데, 개[浦] 동쪽의 예산·신창과 더불어 뱃길로 한양과 통하는데 몹시 빠르다. 홍주의 동쪽은 대흥과 청양인데, 대흥은 곧 백제의 임존성이다. (보령·결성·해미·태안·서산·면천·당진·홍주·덕산·예산·신창 등) 이 11 고을은 모두 오서산의 북쪽에 있다.⁶⁴⁾

내포지방은 20세기 초반까지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평야로 꼽히는 곡창지대였다. 육당 최남선은 아래와 같이 한국의 대표적인 평야를 꼽고 있다.

域中最大の 平野는 全北平野 | 니 …… 그 버금은 黃海道の 沙里院을 中心으로 하는 載寧平野 | 니 …… 이 兩大野의 外에 大洞江岸의 平壤平野, 內浦地方의 ‘서들·광문이수벌’, 淸川江岸의 安州平野, 禮成江流域의 延白平野, 漢江流域의 富平平野, 榮山江流域의 羅州平野, 洛東江岸의 金海平野 등이 다 제법이며, 裏朝鮮에서는 咸興平野, 輸城平野가 海岸을 끼고 발달하였다.⁶⁵⁾

64) 忠淸則內浦爲上 自公州西北可二百里 有伽倻山 西則大海 北則與京畿海邑隔一大澤 卽西海之斗入處 東則爲大野 野中又有一大浦名由宮津 非候潮滿則不可用船 南則隔烏棲山乃伽倻之所從來也 只從烏棲東南通公州 伽倻前後有十縣 俱號爲內浦 地勢斗絕一隅 且不當孔道 故壬辰丙子南北二亂俱不到 地膏沃墳衍平曠 魚鹽至賤 多富人又多士大夫世居 然近海多瘡痍 山川 雖平善迤濶 少秀拔之意 丘陵原濕 雖嫩軟細少而乏泉石奇勝之景 其中惟保寧山川最勝 縣西置水軍節度營 營有永保亭 湖山景致婉宕平濶 號稱勝地 北則結城海美 西隔一大浦爲安眠島 三邑在伽倻西 又北則泰安瑞山 與江華南北相對 而隔一小海 瑞山東則沔川唐津 東隔大浦爲牙山 北斜與京畿南陽花梁 隔小海相對 此四邑在伽倻北 伽倻之東 爲洪州德山 并在由宮之西 與浦東禮山新昌 舟船通漢陽甚捷 洪州東南爲大興青陽 大興卽百濟任存城 茲十一邑 并在烏棲以北. 『택리지(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條.

65) 崔南善, 1948, 『朝鮮常識: 風俗·地理·制度 編』 第一 地文類 平野 (1997년 민속원 영인본). p.23.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렇듯 서울과 공주에 가까우면서도 외침의 위협이 적었고 토지가 기름졌던 탓에,⁶⁶⁾ 서울의 권력층들이 대거 내포지방에 대규모 농장을 두거나, 또는 아예 옮겨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이밖에도 충청도엔 보령(保寧)의 청라동(靑羅洞), 홍주(洪州)의 광천(廣川), 해미(海美)의 무릉동(武陵洞), 남포(藍浦)의 화계(花溪)에는 모두 여러 대로 사는 부유한 집이 많다. 또 여러 읍과 이웃하였고 뱃길이 편리하여 서울과 가까운 까닭에, 서울 사대부 집은 모두 이곳을 통하여 재화(財貨)를 운수하는 이익을 힘입는다. 비록 깊은 산과 큰 골짜기는 없으나, 바다 모퉁이에 궁벽한 지역이므로 난리가 당초 들지 않아 가장 복지(福地)라 일컫는다.⁶⁷⁾

(2) 內浦列邑 발바오니

田土 肥沃이라

富饒村 多多로다

山川 嫩秀호니

士夫家 處處로다

保寧邑 지나여

66) 충청도에는 내포(內浦)와 차령 이남은 기름진 곳과 메마른 곳이 반반인데, 가장 기름진 곳도 종자 한 말을 뿌려서 60두 안팎을 거두는 곳이 많다. 차령 이북에서 한강 남쪽까지도 또한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이 반반씩 되나, 차령 남쪽보다도 못하여서 기름지다는 곳도 거두는 것이 40두를 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한강 북쪽은 대체로 땅이 메마르다. …… (忠淸則內浦車嶺以南 沃瘠相參半 而其最沃者 多不過種一斗收六十斗 自車嶺以北 至漢南亦沃瘠參半 而不及車嶺之南 其沃者 多不過四十斗 漢北則大抵土瘠).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67) 忠淸則保寧靑蘿洞洪州廣川海美武陵洞藍浦花溪 俱多世居富厚者 且隣比諸邑海道便近 故京城士大夫 皆仰其轉輸之利 雖無深山巨谷 以海隅地僻 兵戈初不入 故最稱福地. 『택리지』 卜居總論 山水條.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水營을 츠즈드리
永保亭 올라보니
湖山이 絶勝호고⁶⁸⁾

예당평야의 풍성한 농산물과 서해바다의 해산물은 상업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거니와, 그 외의 다른 기록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공주) 고을 무성산(茂盛山) … 안에 마곡사(麻谷寺)·유구역(維鳩驛)이 있다. 서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으면 곧 내포(內浦)다. 내포에는 목화가꾸기가 알맞지 않다. 그러므로 바닷가 백성은 내포의 생선과 소금으로 유구의 목화와 바꾸어 간다. 까닭에 공주(公州)에서도 오직 유구만이 내포의 생선과 소금의 이권(利權)을 장악하고 있다.⁶⁹⁾

(2) 내포(內浦)에는 아산(牙山) 공세호(貢稅湖)와 덕산(德山) 유궁포(由宮浦)가 수량(水量)이 많고 근원이 길다. 홍주(洪州)의 광천(廣川)과 서산(瑞山)의 성연(聖淵)은 비록 시냇물 항구이나, 조수가 통하는 까닭에 장삿배가 머물러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곳으로 되었다.⁷⁰⁾

(2) 충청도 내포(內浦)의 태안(泰安) 서쪽에도 안흥곶(安興串)이 있다. 장산곶(長山串)과 같이 땅이 바다에 붙어 들어가서 된 곳이다. 바다 가운데에 두 개의 바위가 가파르게 솟았고, 배는 그 바위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뱃사람이 매우 두려워한다. 남북 두 곳[장산곶과 안흥곶]이 바다 가운데에 우뚝하게 서로 대했으므로 배들이 여기에서 많이 낭패를 당한다. 전라도·경상도·충청도 3도(道)의 부세(賦稅)는 모두 배에 실어서 한양으로 운송한

68) 노규호, 1996, 『論註 八域歌』 忠淸道, 민속원. p.p.258-259.

69) 州西北有茂盛山 … 內有麻谷寺維鳩驛 西踰一峴卽內浦也 內浦不宜木綿 海戶浦湊之民 以魚鹽多 貿綿於此 故公州惟維鳩綰內浦魚鹽之利. 『택리지』 八道總論 忠淸道條.

70) 內浦則牙山貢稅湖德山由宮浦 水大而源長 洪州廣川瑞山聖淵 雖溪港而通潮 故並爲商船居留轉輸之所.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다. 그런 까닭에 물길에는 모두 조군(漕軍)을 두어서 그 해 안에 차례차례 실어 나른다. 또 서울의 여러 궁가(宮家)와 사대부 집에서도 삼남(三南)에 다 전장(田庄)을 가지지 않은 집이 없다. 이 집들이 받는 세곡(稅穀)도 모두 배로 수운(水運)하도록 의뢰한다. 그러므로 뱃사람이 물길에 익숙하게 되고 장삿군도 또한 많아서, 안홍곶을 자기 뜰을 밟는 것처럼 쉽게 여긴다.⁷¹⁾

위의 기록을 통하여 내포지방에서는 내륙으로는 유구·마곡사를 거쳐 공주와 교역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포지방 주요 포구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안홍곶[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이 험난한 뱃길임에도 불구하고, 장삿배의 왕래가 적은 장산곶과는 달리, 항해를 거듭하면서 뱃길에 익숙하게 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전통시대에는 자급적 농업경제가 지배적이었으며, 그나마 육상교통보다는 수상교통이 발달하였는데, 내포지방은 당시 드물게 상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선진 불교가 유입되는 문호였던 고대시기부터, 서울과 삼남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시대까지, 내포지방은 언제나 주목받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을 넘기면서 상황은 일변하였다. 크게는 수상교통이 쇠퇴하고 철도와 도로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는 가운데, 도시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여 공업단지들이 조성되었고, 일제시대에 완공된 경부선철도를 축으로 공업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1970년에는 (경부선철도와 거의 나란히) 경부고속도로가

71) 忠淸道內浦泰安西有安興串 亦如長山之斗入於海 海中雙峭起 而舟從兩石間 過去船人甚畏之 惟此南北二串 屹然相對於海中 而舟行到此多敗 然全羅慶尙忠淸三道 則賦稅皆漕至京師 故水道皆置漕軍 歲內鱗次輸運 且京城諸宮家及士大夫家 無不置庄土於三南 皆仰其轉輸 船人水路慣熟 而商賈亦多視安興 如履門庭矣.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건설되었다. 그 결과 충청도에서는 천안 - (청주) - 대전으로 이어지는 충청남·북도의 경계선이 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충청북도의 동북부지방과 충청남도의 서부지방은 점점 수도권 및 서울-부산이라는 교통의 중심축에 대한 의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공업이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중심의 상공업 지역에 가깝거나 또는 교통여건이 좋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가 발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실정이다. 서울과 가깝지 않다면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거나, 또는 수도권과의 연결 거점이 있을 때 비로소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는다.

경기도 일원에 늘어선 도시들은, 단지 수도권과 가깝다는 요인 하나만으로 공업지대나 거주지역으로 각광받는 곳이라면, 울산·포항·광양·구미·창원 등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성장한 공업도시에 속하며, 천안·대전과 같은 도시는 이러한 거점들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성장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내포지방은 전통적으로 아산만을 통해서 해상으로 서울에 접근했었다. 그러나 해상교통이 쇠퇴하고, 철도나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면서 점차 외부와 접근이 힘든 오지로 전락해갔다. 육상으로는 천안을 거쳐야 비로소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별다른 상공업단지가 조성되지도 못하였다. 시대적 변화가 상황을 역전시킨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단초는 이미 육당 최남선 선생의 글에서 지적되고 있다.

迷信 本位 말고 生活條件上으로 ‘可居處’를 선택하는 境遇에 昔日에 諸家가 一致하여 艷說하는 곳은 忠淸道 內浦地方과 公州의 維鳩·麻谷이얏다. 그 理由로 하는 바는 田野가 열리고 土理가 조하서 먹음새에 구길 것 업스며, 山海의 利를 겸하여서 魚鹽柴水가 혼하며, 山水의 勢가 平嫩하여 險惡한 氣象이 업스며, 京都가 과히 隔遠하지 아니하여 進取退守에 다 便利하며, 位置가 一國의 孔道(幹線道路)에 버스러져서 大亂의 經過地 될 念慮가 업고, 事實上으로 말하여도 壬辰·丙子의 兩大兵火가 여기는 波及하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 안팎에서 함에 있다. 擇里志에 ‘忠淸則內浦爲上’이라 하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 ‘世人每以湖西內浦 爲士族必居之地 便同茶飯 然蓋因穀腹絲身而言也’이라 하여 概說한 바가 要約하건(대) 대강 上擧한 條件에 버서나지 않는다. 內浦라 함은 忠淸道 西南隅의 伽倻山脈을 環繞하여 잇는 여러 골을 市傍 插橋川의 上流, 由宮津의 안덕해 잇다 해서 니르는 말인데, 保寧의 靑蘿洞은 泉石의 景勝까지를 가초아서 가장 樂土로 니르고 넷날에 士族富戶 만히 살기로 有名하였다. 維鳩와 麻谷은 다 車嶺의 西支가 公州의 西北에서 茂盛山을 이르켜 崗隴이 低回한 中에 여긔저긔 작게 結局하여 村閭는 樹林에 싸혀 생기고 田疇는 溪水를 끼고 열린 山間聚落地이니 土沃하고 水旱豊凶이 업서 禾穀綿麻蔬菜果實에 구간한 것이 하나 업고 西으로 一嶺을 넘으면 內浦인데 內浦에는 綿作이 맛당치 못하여 浦人들이 魚鹽을 가지고 와서 이를 鬻賣함으로 海物이 또한 그리울 것 업서서 누구나 한번 이리로 入居하면 衣食의 걱정을 노코 능히 富厚를 保守하며 遊離遷徙할 걱정이 업다고 닐렀다. 內浦와 維鳩麻谷은 中間에 一小嶺이 隔해 잇슬 뿐이매 거의 한테 連接한 곳으로 볼 수 잇스며 一은 臨海地, 一은 依山地임에 各自의 特色을 가진 곳이다. 그러나 公州에는 維鳩의 外에도 可居處로 니르는 데가 만하서 네로부터 ‘一 儒城, 二 敬天, 三 利仁, 四 維鳩’라 하여 도리혀 維鳩를 淸초로 치는 俗談도 있다. 이리케 內浦·維麻를 큰 樂土로 알려함은 대개 近代朝鮮人의 生活意識이 어찌케 消極的·退嬰的으로 口腹 爲主가 됨을 나타내거니와 產業條件·交通關係 乃至 生活理想이 크게 變易된 今日에 잇서서는 生計 하나만으로도 觀法·論法이 다 다를 것은 母論이다.⁷²⁾

그러나 외부와의 교통, 그것도 육상교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시점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건설 등으로 전통시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십자형 도로망 체계도 깨어지고 있으며, 다시 수로를 이용한 물자운송이 모색되고 있다. 내포지방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72) 崔南善, 1948, 『朝鮮常識: 風俗·地理·制度 編』第二 人文類 內浦와 維麻 (1997년 민속원 영인본). p.125.

제 3 장 내포(內浦)의 역사지리적 배경

아산만의 신항만의 건설과 맞추어 다양한 해상교통도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작업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내포지방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실태를 개괄한 후에, 문화자원을 고려한 개발전략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연환경에도 선인(先人)들의 역사적 숨결이 깊이 배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순수한 의미에서 자연자원과 역사유적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양자의 연관성을 살피는 작업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역사학자들은 시대구분론에 입각하여 역사자원을 살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과거 자체를 연구하는 데에 있지 않으므로, 역사학의 시대구분론 또는 절대적 편년에 따라 유적을 분류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개발전략에 맞추어 역사유적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이 글의 연구대상이 과거 자체가 아니라, ‘현재에 남겨진 과거’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광학에서는 종종 시대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의 공간적 분포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그것은 문화재의 집중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사성은 사소한 채, 현재의 지리적 기준에 입각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에서도 특정 ‘주제’ (또는 ‘소주제’)를 선정하여 즐기려는 추세가 늘고 있다. 소위 ‘테마관광’으로 불리는 이러한 경향은 관광 분야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에서도 각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적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성공한다면, 이미 관광명소로 확고한 지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구라도 경주(慶州)라면, 곧 신라를 연상할 것이다. 설령 석굴암과 불국사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문객들은 다른 매력조차 신라시대와 연관시키려고 한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문화적 특징의 추출에서는, 특히 개발의 가능성, 즉 상품화의 가능성을 중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과거의 역사를 재단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관광자원을 분류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내포는 해상활동이 활발했던 곳이었으며, 가야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고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포의 역사 자원은 해변과 가야산 자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내포의 서해안을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아담하면서도 수려한 바다의 경관에 감탄할 것이다. 마치 흙 속에 파묻혔던 진주를 발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내포 바다는 역사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유적들이 산재한 곳이다.

고대시대의 선진적인 불교를 받아들였던 문호였고, 고려 - 조선시대에 조세를 운송하던 조운(漕運) 및 국방 관계 유적 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섬이나 해변에 설치하였던 국가목장[國馬場], 국가의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했던 소나무숲[禁山. 때로는 封山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서남해안의 도서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의 집산·유통 거점으로서의 광천(廣川)과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의 활동 등등이 모두 그러한 역사의 흔적들이다. 현대사를 뒤돌아 볼 때에도, 서해안 간척사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는 천수만 간척지가 있는데, 이 일대는 이미 겨울 철새가 도래하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해수욕장과 빼어난 경관을 갖춘 바다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통시대의 활발한 해상활동의 유적들을 연계시키고, 나아가서 그러한 전통을 활용하는 연출이 필요한 것이다.

내포지방의 산악 가운데서는 단연 가야산이 빼어나다. 앞서 언급했거니와, 가야산정에 오르면 내포 일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인근에서는 드물게 기암괴석이 널려 있고, 사방으로 길게 뻗은 산자락을 따라 계곡도 발달하였다. 이와 함께 덕산온천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새로이 세심천온천과 홍성온천이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휴양지로서는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더욱이 불교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조선 고종황제 일가의 묘역도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풍수설(風水說)은 하루바삐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 비판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가운데 상당수가 본래 풍수사상에 입각한 비보(裨補) 사찰이었으며, 가야산록에 자리잡은 사찰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유적들은 사상의 합리성의 기준보다는, 역사적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한국의 최근세사를 되돌아볼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주교의 전래 및 박해 사건이다. 교회사가들에게는 ‘내포교회’로 통칭되고, ‘솔피[당진군 우강면 송산리]는 신앙의 못자리, 해미는 신앙의 밭[墓]자리’라고 한다. 솔피는 김대건 신부의 출생지로서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해미읍성의 순교유적과 아울러 그 부근에 순교탑이 서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정확한 실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유적의 정비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특정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⁷³⁾ 이를 위해서는 천주교단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천주교 전래 못지 않았던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이었다. 전라·충청 일원에서 중심으로 했던 농학혁명은 최근세사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접(南接)의 활약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충청도 일원의 동학교도들의 활동상은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답보 상태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동학 관계 유적은 추후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는 잠재적 자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73) 논자에 따라서는 불교 사찰 역시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유적의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문화적 전통으로 녹아든 결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이 천주교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한편 조선후기 영·정조시대(1725-1800) 문예부흥기의 논쟁을 배태시켰던 장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관심은 물론이요, 학계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은 인물이 바로 외암 이간(李柬, 1682-1727)과 남당 한원진(韓元震, 1677-1751)이다.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을 필두로 하는 사단칠정론에 이어서 전개된 호락논쟁(湖洛論爭)에 관해서는 당시 사회상황과의 연관성은 고사하고, 그 성격마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호락논쟁의 불씨를 지폈던 두 사람이 모두 내포지방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유적은 세인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외암의 세거지였던 외암마을은 민속마을로, 남당의 세거지였던 남당리는 대하축제가 열리는 관광지로 유명한 실정이다. 충청도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진작시키려면,⁷⁵⁾ 우암·동춘당·사계 등과 아울러 외암과 남당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한다면, 이황이나 그 문도들의 후손들이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탓에, 퇴계학과 연구가 활발하다는 역사학계의 지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추사 김정희이다. 김정희는 실학사상을 집대성했음과 동시에, 금석문과 서예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고택이 바로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위치하고 있다.

내포지방에는 충절로 이름높은 인물들이 많다는 점도 자랑거리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고려말의 최영을 시작으로, 조선조의 성삼문을 비롯하여, 구한말의 만해 한용운, 김좌진 장군, 매헌 윤봉길 등이 모두 내포지방에서 출생하였던 인물들이다. 『상록수』의 저자 심훈 선생의 만년의 활동무대가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포지방의 문화자원은 크게 ①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 및 관련 자원, ② 가야산을 축으로 하는 내륙의 자원, ③ 천주

74) 人物性同異論으로 표현되는 이 논쟁은 조선성리학에 고유한 특징이었다.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참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도, 연구가 미진했던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75) 이는 사실상 조선 사상사를 올바르게 복원·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교와 동학 등의 종교적 유적, ④ 명현(名賢)이나 충절을 지킨 인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①에는 곳곳에 산재한 해수욕장이나 빼어난 경관과 함께, 전통시대에 활발했던 해상활동 유적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는 조운, 국마장(國馬場), 금산(禁山), 광천(廣川) 등의 포구, 그리고 천수만을 비롯한 간척지가 포함될 수 있다.

가야산을 축으로 하는 ②에는 빼어난 산세, 온천(溫泉), 그리고 도처에 산재한 불교유적, 고종황제 일가의 묘역,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조선말~일제시대의 보부상 활동 유적들을 연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종교순례지(③)로는 천주교와 동학 관련 유적을, 인물 관련 유적지(④)에는 명현과 충절인을 묶어서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래에서는 이에 맞추어 역사적 자원의 면면과 그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이에 앞서서 두드러지지 않는 않지만, 곳곳에서 선사유적이 발견되는 관계로, 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1절 선사유적

현재 내포지방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서산 석남동, 서산 성연면 일남리, 서산 음암면 도당리, 태안 안면읍 창기리와 줄발머리, 태안 고남면 옷감과 감나무골 등 7개소이며, 그 외에 다소의 유적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 유물에 관한 추정만 할 뿐, 발굴을 비롯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신석기 유적으로는 현재 서산 해미면 휴암리, 서산 유두목, 태안 고남면 감나무골, 당진 석문면 초락도리·삼봉리·교로리, 당진 고대면 당진포리 등이 보고되었다. 당진에서 발견된 유적으로는 주거지를 비롯하여, 갈돌과 갈판, 가락바퀴, 빗살무늬토기편 등이며, 서산에서는 패총에서 찻개, 밀개, 토기편들이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비교적 많은 수가 알려져 있다. 이미 일제시대에 당진 당진읍 시곡리에서 세형동검(細形銅劍), 그리고 당진읍 우두리에서 동령(銅鈴)이 발견되었고, 당진 합덕읍 성동리, 송악면,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면천면, 신평면, 당진읍 등에서 돌칼과 돌화살촉이 발견되었으며, 석문중학교에 50여 점의 돌도끼, 13점의 돌화살촉, 6점의 대패날이 수습되어 있고,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장고항리·초락도리 등에서 마제석검이 출토되었으며, 당진 석문면·고대면·신평면 등에서 반달돌칼이 출토되었다. 서산 인지면에서는 지석묘, 해미면·고북면·대산읍에서는 주거지가 발굴되었고, 석검, 갈돌, 솥돌, 화살촉,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유적들은 홍성·예산 일대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내포 일원의 선사유적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대체로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들에서 눈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는 듯하다.

더욱이 선사유적지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는 하지만, 유적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며, 학문적으로도 소수 전문가만의 관심사라는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선사유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발굴이나 또는 발굴된 유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유물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방안은 검토할 만하다고 보며, 학생과 일반인에게 발굴작업이나 유물처리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정도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바다 관련 유적

1. 조운(漕運) 관계 유적

태안반도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구간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그러므로 내포 개발에 바다를 제외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관은 가야산에서 바다로 뻗어나간 금북정맥이 곳곳에서 솟구쳐서 빚어낸 창조물들이다.

한편 이렇듯 수려한 경관은 전통시대에 연안항해를 방해하던 암초들이었다. 따라서 해상교통에 크게 의존했던 고대로부터 안전한 항해를 위한 노력들이 취해졌겠지만, 기록으로 남은 것은 대개 조선시대의 유적들이다. 그 대표적인 역사유적이 보령의 수군 절도사영과 원산진, 태안의 안흥진·소근진·운하 유적들, 서산의 파지도영과 평신진, 아산의 공세포 등이다.

고려조 태안은 개성으로 연결되는 조창(漕倉) 소재지로서의 기능이 중요하였다. 충청도 이남의 세곡(稅穀)을 경도(京都)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령 앞바다 → 태안의 안흥량 → 태안 만대 → 당진의 난지도 서쪽을 경유하여야만 했다. 그 구체적인 항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⁷⁶⁾

76) 『증보문헌비고』 권35, 輿地考 23, 關防 11, 海路 1 西南海路條.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표 1> 조선조 태안 일대 뱃길

※ 상단 : 『증보문헌비고』의 원문

하단 : 현행 행정구역

동쪽에 지표가 되는 지점	서쪽에 지표가 되는 지점
左夾 黃金島・萬大嶼・倉浦 (서산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 (태안 이원면 내리 만대) (태안 이원면 관리 창말?)	右夾 加五里島・花似島* (태안 원북면 방갈리 대방이 외 4점?)** (?)
左夾 禿津浦・分至草・所斤浦嶺 (태안 원북면 방갈리 갈머리?) (태안 원북면 방갈리 분점도?) (태안 소원면 소근리)	右夾 黑島・賈誼島・官長嶼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黑島[거무섬]?)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태안 소원면 파도리 앞바다)
左夾 葛項島・安興嶺・麻島 (태안 소원면 파도리 남단)*** (태안 근흥면 정죽리 안흥) (태안 근흥면 정죽리 마도)	右夾 鼎足嶼・巨文嶼・隱嶼 (태안 근흥면 신진도리 정죽도) (?)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翁島?)
左夾 竹島・鏡島・鏡草 (?) (태안 남면 거야도리 거야도?) (?)	右夾 三島・巴助島・狎喜島 (태안 남면 거야도리 삼섬?) (?) (?)
左夾 安眠島・項介草・外島 (안면도) (태안 안면읍 신야리 項浦?) (태안 안면읍 승언리 外島)	右夾 凡巨島・治島・杖鼓島 (?)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장고도 야표곶?)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장고도)
左夾 沙浪嶼・元山島 (보령 오천면 원산도리 시란도?) (보령 오천면 원산도리)	右夾 故道島・插是島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古代島) (보령 오천면 삼시도리)

* 花似島 : 「대동여지도」에는 태안 소원면 파도리 서안의 섬으로 되어 있으나, 표기상의 착오로 보임.

** 대방이를 비롯한 5개의 섬은 어민들이 오형제섬이라 부르는 어장이다.

*** 葛項 : 「태안지도」(규10422, 1872년 간행), 199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참조

앞의 표에서 보듯이,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지역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조 조운로의 대체적인 면모를 확인하는 데에는 부족함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 없다. 현재의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황금산⁷⁷⁾에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까지 항해할 때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빠져나가는 연안항로가 당시의 뱃길이었다.

그런데 안홍량은 본래 난행량(難行梁)이라 부를 정도로 항해가 어려웠으니, 삼남의 세곡(稅穀)에 재정을 크게 의존했던 중앙정부로서는 강화의 손돌목[孫覿項]과 함께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⁷⁸⁾

안홍량은 신진도(新津島)와 마도(馬島)를 거쳐 관수각(官首角)과 가의도(賈誼島)에 이르는 해역(海域)을 말한다. 안홍량에는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웠다.⁷⁹⁾ 따라서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려서 건넜다고 한다.⁸⁰⁾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운하[漕渠] 건설을 시도하였다.⁸¹⁾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淺水灣)과 북쪽 가로림만(加露林灣)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정확히 말한다면, 현재의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 지점의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

77) 읍지의 기록을 보면 평신진은 황금산[亢金山]에 있다가 망일산 아래로, 다시 삼길산 아래로 옮겼다 한다. 『충청도읍지』(영조~헌종 연간) 「平薪鎭誌」 연혁조

78) 황해도와 장산곶 역시 험한 뱃길이었으니, 심청의 전설은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안홍이나 손돌목에 비하여 세곡의 운반량이 적었던 관계로 정부의 관심이 덜하였다. 한편 손돌목의 험로를 피하기 위하여 고려조의 최이(崔怡) 및 조선조의 김안로(金安老)에 의하여 김포에도 도랑을 파려했다 한다.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金浦掘浦條.

79) 관수각은 관장항(冠丈項)이라고도 했다. 1872년 간행된 「泰安地圖」(규10422)에는 관장항(關障項)이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해변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섬[小島]과 암초[大礁] 사이의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한편 지령산에 있는 안파사(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찰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불우조(佛宇條).

80)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險灘條.

81) 운하 건설의 역사적 연혁에 대해서는 이종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보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집.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다.⁸²⁾

운하공사가 처음 시도된 것은 고려 인종 12년(1134)에의 일이었다. 인종은 내시(內侍) 정습명(鄭襲明)을 파견하여 인근 군졸(郡卒) 수천 명을 동원하여 10여 리를 파다가 도중에 중단하였다.⁸³⁾ 공양왕 3년(1391)에는 왜구 소탕에 공이 많았던 종실(宗室) 왕강(王康)의 논의로, 7월에 시작하여 8월에 완성하기로 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조수에 밀려온 토사로 메꾸어지면서 다시 실패하였다. 고려조에 약 10리 정도를 굴착하고 남겨진 공사는 조선조의 사업이 된다.⁸⁴⁾

한편 여말선초 왜구를 비롯한 해적의 공격은 태안반도까지 미쳤다. 태안군의 경우, 1373년의 피해가 극심하여 군을 서산군으로 옮겼다가, 다시 1383년에는 예산현으로 옮길 지경이었다.⁸⁵⁾ 그러나 조선왕조가 안정되면서 점차 해변 지역도 평화를 찾게 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다시 조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미 태조조에 최유경(崔有慶)과 남은(南閔)을 현지에 파견하여 살피게 한 바가 있었다.⁸⁶⁾

태종조에는 하륜(河崐)의 발의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갑문식

82) 지금은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지형이 많이 변했다.

83) 『고려사』 권16, 世家 仁宗 12년 秋7월.

84) 『고려사』 권116, 列傳 29, 王康;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3년 秋7月條;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山川條. 이종영이 지적하였듯이, 고려 예종(睿宗)과 숙종(肅宗) 때에도 굴포운하 개착이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其在前朝睿王肅王 及乎叔世 皆動民疏鑿 夫見其效.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14일 庚申條.

85) 『서산군지』(1927)에 의하면 지정(至正) 경인년(1350)부터 도이(島夷)가 입구(入寇)하면서 인구가 유리하였고, 홍무(洪武) 경오년(1390)에 비로소 순제(尊堤)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태안군 궁실조(宮室條)에는 지정 경인년부터 도이가 입구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없다. 단지 홍무 계축년(1373)의 피해가 극심하여 서산군으로 옮기고, 계해년(1383)에 다시 예산군으로 붙었다가 홍무 경오년에 순제(尊堤)를 쌓아 행정을 겸하게 하였다고 한다.

86) 이 당시에는 암반층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었다. 『태조실록』 권7, 태조4년 6월 戊辰條; 同 권12, 태조 6년 10월 乙酉條; 同 乙未條.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閘門式) 운하공사를 재개하게 되었다. 현지를 실사했던 일부 관료가 암석층이 단단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인근의 군민 5,000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 불과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완공하기에 이르렀다.⁸⁷⁾

태종조에 완공된 운하는 남북의 고지대 5개소에 계단식의 저수지를 축조한 방식이었다. 즉 천수만 방향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 끝지점에 길이 270척(尺)-넓이 130척-수심(水深) 6척의 착지(鑿池)를 만들어 7~8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100척-넓이 40척-높이 18척의 남내방축(南內防築), 길이 470척-넓이 40척-높이 18척의 남방축(南防築)을 만들었다. 가로림만 방향에도 역시 수로 끝지점에 길이 104척-넓이 62척-수심 5척의 착지(鑿池)를 만들어 3~4척의 선박을 대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길이 200척-넓이 40척-높이 18척의 북방축(北防築)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방향의 착지(鑿池)로부터 천수만쪽으로는 길이 2,290척-넓이 130척, 가로림만쪽으로는 길이 925척-넓이 50척-수심 3척의 물길을 내어 고려조에 완공된 수로[水渠]와 연결시켰다.⁸⁸⁾

그러나 완공되었음을 고하는 기사에서 이미, 쓸데없이 민력(民力)만 낭비했을 뿐 조운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했거니와,⁸⁹⁾ 여러 가지 이유로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우선 굴포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이 불과 150석(石)을 실을 수 있는 소선(小船)인 관계로, 500석을 싣는 조선(漕船)의 짐을 옮겨 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더욱이 천수만의 수심이 얕아 대형 조선(漕船)이 운하까지 도달할 수 없었으며, 운하 저수지 안에도 암석이 있어서 선박의 운항에 장애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다시 하륜은 운하의 대폭적인 개축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저수지의 규모를 길이 866~1,392척으로 확대하고, 수심이 얕은 천수만과 가로림

87)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11월 丁酉條; 同 권25, 태종 13년 정월 壬寅條; 同 2월 己未條.

88)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89)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2월 己未條.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만에서는 평저선(平底船)을 이용하여 운반케 하는 방안이었다.⁹⁰⁾

그러나 천수만의 암초, 운송인력의 부족, 가뭄시 저수의 부족 등을 우려한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이안우(李安愚)의 비판⁹¹⁾ 등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정을 못내린 채, 일단 개축 공사는 중단한 후, 이듬해에 태종이 직접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⁹²⁾ 그러나 막상 이듬해인 태종 14년에 논의가 재개되지는 않았다. 그런 가운데 태종 14년 8월에 전라도의 조선 66척이 패몰(敗沒)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시 하륜이 운하 공사의 재개를 발의하였다.⁹³⁾ 그리고 태종이 강무(講武)를 위하여 태안의 치소(治所)였던 순성진(蓀城鎭)⁹⁴⁾을 방문했던 길에 운하의 개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⁹⁵⁾ 그러나 이 역시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굴포운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 것은 세조조였다. 안홍량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조 7년 좌의정 신숙주의 주장을 쫓아, 그를 충청도도체찰사(忠淸道都體察使)으로 하여, 호조참의(戶曹參議) 안철손(安哲孫)를 부사(副使)로, 전수원부사(前水原府使) 홍경손(洪敬孫)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아, 함께 현지를 살펴보게 한 후 공사를 개시하였다.⁹⁶⁾ 이 공사는 태종 10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계속되었으나, 결국 파는 대로 다시 수로가 메워졌고, 또

90)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8월 丁未條; 同 丙辰條; 同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91)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92)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8월 庚申條.

93)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甲辰條.

94) 여말선초 왜구로 인하여 태안의 치소는 여러 곳을 옮겨다녔다. 『대동지지』에는 “순성진은 동쪽으로 14리 떨어진 굴포 옆에 있다. 공양왕 2년에 순제로 돌아와 해구(海寇)에 대비하였는데, 태종 17년에 옛 치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침내 폐해 버렸다. 본 진의 성은 둘레가 1,355척이다.”고 하였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현 서산군 팔봉면 진장리 ‘고성터’가 옛 ‘순성진’이 있었다고 하여, 위의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순성진(蓀城鎭)으로 추정되는 서산군 팔봉면 진장리 2구의 진장리산성(古城山城)에 대해서는 이미 서산문화원에서 기초조사를 한 바가 있다. 서산문화원, 1991, 『서산·태안 문화유적(上)』. p.269.

95)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丁卯條.

96) 『세조실록』 권25, 세조 7년 7월 丁巳條; 同 8월 甲申條.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⁹⁷⁾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공사 책임을 맡았던 신숙주의 시(詩)가 전해지고 있어, 당시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고개마루 외로운 성이 석양을 등졌는데, (嶺上孤城落照邊)
올라서 바라보니, 다만 저 바다 하늘을 이고 있을 뿐 (登臨只見海浮天)
바람불어 돌아가니 작은 섬이 놀란 물결에 어지럽고 (風回島嶼迷驚浪)
땅은 궁벽한데, 백성 사는 곳에 옅은 연기가 솟네 (地僻民居生淡烟)
개[浦]를 판 지 몇 년이건만, 공을 이루지 못했단고 (浦堀幾年功未效)
산줄기 하나 끊었건만, 오히려 이어졌으니, (山來一帶斷猶連)
누가 능히 나에게 뱃길을 통할 계책을 알려주리오 (誰能說我通漕策)
다만 술동이 앞에 두고 취해서 망연할 뿐이지 (但向樽前醉惘然)

굴포운하 건설은 현종조에 다시 논란거리가 되었다.⁹⁸⁾ 우암 송시열을 필두로 하여 호조판서 이경억(李慶億)과 이조참판 민정중(閔鼎重) 등이 찬성하면서 굴포운하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사헌 이경휘(李慶徽)를 비롯한 좌의정 허적(許積)이 반대 의견을 내어놓았고, 결국 먼밀한 검토 끝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의 얕은 갯벌 때문에 건설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신에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 육지에 창고를 건설하여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굴포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차선택으로 강구된 것이 의항운하 건설이었다. 현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연안에는 험한 수로 세 곳이 있었는데, 소원면의 잘룩한 부분, 즉 의항리와 모항리 사이에 운하를 건설하면 그 해역을 피할 수 있었다.

97)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3월 丙寅條;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泰安縣 山川條;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2, 漕轉 漕規 安興掘浦條.

98) 이에 관련된 기사는 아래와 같다. 『현종실록』 권15, 현종 9년 8월 癸巳條; 同 9월 戊戌條; 同 9월 乙巳條; 同 권16, 현종 10년 정월 甲辰條; 『승정원일기』 제212책 현종 10년 정월 초6일 庚子條; 同 초10일 甲辰條.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의항운하 건설 논의는 중종 16년(1521)에 시작되었다. 김전(金銓)과 남곤(南袞)이 굴포운하 건설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 고흥산(高荊山)이 현지를 답사하였다.⁹⁹⁾ 그러나 고흥산은 오히려 안흥량 부근의 의항(蟻項, 속명 개미목)¹⁰⁰⁾에 운하를 만들면 조선(漕船)의 패물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고, 호조에서도 의견을 같이 함에 따라 중종이 재가를 하게 되었다.¹⁰¹⁾

공사는 이듬해 수군(水軍) 약 3,000명을 동원하여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부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사는 4개월만에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¹⁰²⁾ 그리고 중종 30년(1535)에 다시 김안로(金安老)가 굴포운하의 건을 제기하였고,¹⁰³⁾ 굴포와 의항의 특질을 재검토한 후 의항운하 공사가 재개되었다.¹⁰⁴⁾

당시 보고에 의하면,¹⁰⁵⁾ 의항운하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거리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나, 안흥량의 위험한 4곳 가운데 3곳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지 답사에 의한 보고에 따라서 병조참지(兵曹參知) 박수량(朴守良)을 찰리사(察理使)로, 안흥량굴포경차관(安興梁掘浦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이현(李愰)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15~50세의 승려 약 5,000명을 동원하였다. 승려들에게는 공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호패(號牌)를 지급하는 조치가 취해

99) 『중종실록』 권42, 중종 16년 8월 己亥條.

100) 이종영은 소원반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국수봉과 대소산(大小山) 사이의 수유동(水踰洞, 속칭 무내미) 협곡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집. p.111.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곳을 경유하면 파도리 끝에서 가의도로 뺀 관수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101)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102)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6월 己亥條.

103) 『중종실록』 권80, 중종 30년 8월 己亥條.

104) 이와 관계된 『왕조실록』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중종실록』 권43, 중종 17년 정월 丙辰條; 同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同 己卯條; 同 11월 戊寅條; 同 권83, 중종 32년 2월 丁巳條; 同 권84, 중종 32년 4월 甲寅條; 同 乙卯條; 同 권85, 32년 7월 甲午條; 同 10월 甲戌條; 同 권 88, 중종 33년 9월 丁酉條; 同 戊戌條.

105) 『중종실록』 권82, 중종 31년 9월 癸丑條.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졌다. 승려에게 호패를 지급하는 사안에 대한 논란 탓으로 공사는 다소 지연되어 중종 32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착공 약 5개월만에 준공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흙으로 메워져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¹⁰⁶⁾

뱃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본래 안면도는 남면과 연결되어 곳을 이루었다. 그러던 중 조선 인조조에 태안의 아전 방경잠(房景岑)¹⁰⁷⁾이 충청감영에 진정하여,¹⁰⁸⁾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끊어서 운하를 완성하였다.¹⁰⁹⁾ 그 결과 안면도의 내해(內海)인 적돌강의 배가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안면도를 도는 200여 리의 뱃길을 단축하였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白砂水道)’라고도 한다.

두 운하가 완공된 결과, 태안반도를 경유하는 조운로는 ① 안면외해, 그리고 ② 안면내해[천수만] - 백사수도 - 의항운하로 이원화되었다. 내해를 이용하는 경우 외해의 거친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홍성을 비롯한 천수만에 위치한 군현의 경우, 석곶포(石串浦)¹¹⁰⁾에서 백사수도를 통과

106)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27일 丁酉條. 현재까지는 의항운하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해동지도』 등의 관찰 지도에 의하면 의항운하를 경유하는 항로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무너진 시설은 복구하는 법령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의항운하는 조선후기까지 부분적으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7) 『만기요람』에 의하면, 泰安郡吏房景齡이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108) 안면도의 백사수도를 굴착한 일에 대해서도, 당시 충청감사 김육(金堉)이 주도했다는 설과 영의정 김유(金瑬)라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참고로 김육은 인조 16년(1638) 6월 25일에 충청감사로 임명되었다가 2년 후 인조 18년 3월 14일에 좌부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6월 丙辰條; 同 권40, 인조 18년 3월 乙未條.

109) 토정 이지함은 안면도의 산수를 좋아하여 자주 들렀고, 뒷줄기를 파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서산군지』(1927) 古蹟條. 토정 이지함은 배를 타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율곡전서』 권30, 만력 6년(1578) 7月條. 그런 때문인지 서해안 곳곳에는 토정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110) 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星湖里. 해상교통이 쇠퇴한 후에, 석곶포는 단지 작은 만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하게 되면 거리도 200여 리가 단축된다.¹¹¹⁾ 그렇기 때문에 의항운하에 비하여 백사수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였던 듯하다. 의항운하는 현재 토사로 매몰되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뚫는 운하가 완공되지 못한 상황에서 뱃길은 안전은 보장되지 못했다. 이러한 파선(破船)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천수만과 가로림만 사이를 육로로 운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치는 이미 세조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조창(漕倉) 건설은¹¹²⁾ 송시열의 주장에 따라 효종 10년 3월에 착공되었다.

<표 2> 조운 관계 유적

종류	유적명칭	현 위치
漕渠	泰安 漕渠	태안 태안읍 인평리·도내리와 서산 팔봉면 어송리·태장리 경계
	蟻項 掘浦	태안 소원면 의항리와 송현리 사이
	白砂水道	태안 안면읍과 남면 경계
鎭城	水軍節度使營	보령 오천면 소성리
	所斤鎭城	태안 소원면 소근리 2구
	安興城**	태안 근흥면 정죽리
	高巒梁	보령 주포면 고정리
	波只島營	서산 팔봉면 파지도리 (후에 서산 팔봉면 호리로 옮김)
	要兒梁***	태안 고남면 고남리 속칭 ‘영목’
	元山鎭	보령 오천면 원산도

* : 사창(社倉)의 경우 원래 이산곶목장(梨山串牧場)의 마방창(馬坊倉)으로 목추(牧蒱)를 저장하는 곳이었는데, 정조조에 국마장이 폐지되면서 사창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¹¹³⁾

** : 1905년 폐진(廢鎭)한 후, 동학혁명 당시 소실된 태안군청 및 부속건물을 복구하는 데에 그 자재들을 이용하였다.¹¹⁴⁾

*** :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수영(水營)이 있었다.

(灣)을 건너 보령군 천북면을 왕래하는 나루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111) 최완기, 1994, 『조선후기 船運業史 연구』, 일조각. <附圖 3> 조선후기 大同米貨運圖.

112) 『세조실록』 권1, 세조 원년 윤6월 癸酉條.

113) 『서산군지』(1927) 古事條.

114) 『서산군지』(1927) 衙廨條.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 한국근대읍지 3. p.p.97-100)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안민창사목(安民倉事目)¹¹⁵⁾으로 구체화된 육운(陸運) 방식은 얼마 간 계속 되었으나, 갯벌이 발달하고, 운반을 위하여 많은 민력(民力)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래 가지는 못한 듯하다. 이렇듯 전통시대에 안홍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으니, 이와 관련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운하 및 진성(鎭城)은 <표 2>와 같다.

조선초기에는 전라도의 세곡(稅穀)이 서해안을 통하여 조운(漕運)되었다. 그리고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부터 영남 세곡까지 모두 서해안을 거쳐서 운반되었으므로 안홍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인근 산제당(山祭堂)과 성황당(城隍堂)에서는 모두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풍어와 함께 조운선의 순조로운 항해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1927년 당시까지 안홍량 일대에서 설행(設行)되던 산제당과 성황당은 모두 5개소로, 정죽리 지령산의 산제당, 정죽리 문필봉과 남산봉의 성황당, 신진도리 후망봉과 마도산의 성황당이 있었다.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의 안파사 역시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건립한 사찰이라 전해진다.

상업이 발달한 후대에는 이러한 포구들은 주민들의 교통로로 이용되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속칭 ‘장배’를 이용하여 광천장(廣川場) 등지로 이동하였던 경험은 주민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참고로 1920년대에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도선장의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현재 위에 언급한 유적지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고 있다. 안홍성 주변은 바다낚시로, 의항운하 부근의 파도리는 해옥(海玉)으로, 영목[要兒梁]은 횃집으로, 굴포운하 남쪽은 한국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파지도영은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역사 유적과 연관시켜 개발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15) 『비변사등록』 제28책, 현종 10년 2월 초10日條.

<표 3> 1920년대 태안군의 도선장 현황

허가 연월일	도선구간
1925년 4월	원북면 신두리 ~ 소원면 의항리
1925년 4월	부석면 창리 ~ 안면면 창기리
1925년 7월	안면면 고남리 ~ 홍성군 광천면 웅암리
"	안면면 창기리 ~ 남면 신온리(착항)
"	안면면 창기리(우포도) ~ 부석면 창리
"	안면면 누동리 ~ 홍성군 광천 웅암리
"	안면면 고남리(령항) ~ 보령군 오천면 원산도리
"	안면면 중장리 ~ 홍성군 광천면 웅암리
1925년 8월	팔봉면 호리(구도) ~ 이북면 포지리
1925년 9월	근흥면 정죽리 ~ 근흥면 신진도리

2. 국마장(國馬場) 유적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여말(麗末)의 사병(私兵)을 혁파하면서 군제(軍制)를 완전히 개혁한 왕조였다. 이에 따라 군마(軍馬)의 조달이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元)나라의 직영목장이었던 제주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 국마장(國馬場)을 만들었다. 국마장은, ① 겨울철에도 방목(放牧)할 수 있게 기후가 온화하면서도, 또한 물과 풀이 풍부하고, ② 비상시에 손쉽게 운송할 수 있게 서울에서 가까우며, ③ 맹수가 출몰하지 않고, 또한 말이 산림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서남해안의 도서(島嶼)가 대거 국마장으로 편입되었다. 서울과 가깝고 섬과 곳(串)이 발달한 내포 일원도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태안반도에 설치되었던 국마장 현황은 효종조(孝宗朝) 허목(許穆)이 사복시(司僕寺) 제조(提調)로 있을 당시 만든 『목장지도(牧場地圖)』¹¹⁶⁾를 통해서 확

116) 『목장지도(牧場地圖)』 국립중앙중앙도서관 古20650.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인할 수 있다. 당시 각도의 목장 총수(總數)는 제주목장(濟州牧場)을 합하여 138소(所)였는데, 대부분 폐지되고 53처(處)만이 설장(設場)하고 있었다. 국마(國馬)의 수는 총 20,213필(雄馬6,939필, 雌馬 13,274필)로서 5,178명의 목자(牧子)가 간양(看養)하였다. 그 중 공청도(公淸道)에는 4읍(邑)에 10목장이 있었는데, 설장(設場)한 곳은 3처(處)로, 총 613필(雄馬167필)의 마필을 705명의 목자(牧子)가 사육하였다. 그 마필과 목자의 수가 각각 3%와 13.6%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수의 마필을 사육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주도의 목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탓도 있었으나,¹¹⁷⁾ 임진왜란 이후에 군제(軍制)가 다시 바뀌면서 많은 수의 국마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효종조(孝宗朝)의 공청도 국마장 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4> 조선조 충청도의 국마장 현황

郡縣名	地名	규모	위치	馬匹數	牧子	비고
沔川	倉宅串	東西6里 南北20里 周廻50里	在郡北35里	雌雄並23匹	60名	
瑞山	大山串	東西10里 南北35里 周廻90里	在郡西北	雌雄並330匹	488名	
	興陽串	周廻60里				廢止
泰安	梨山串 ⁽¹⁾	東西5里 南北30里 周廻60里	在郡北42里	雌雄並260匹	157名	(正宗朝 폐지) ⁽²⁾
	智靈山串	周廻30里				廢止
	薪串		在郡北29里			廢止
	禿津島		在郡北洋中			廢止
	安面串 ⁽³⁾					東陽尉 折受處
	大小山串		在郡西25里			廢止
洪州	元山島	東西10里 南北5里 周廻47里	在州西南洋中			移給安興鎭 水營移屬

117) 제주도의 목장에서는 1,386명(26.8%)의 목자가 총 12,821필(63.4%)의 말을 사육하였다. 제주도 목장을 제외했을 때에는 공청도의 마필과 목자의 비율은 각각 8.3%와 18.6%를 차지한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1) : 현재 태안군 이원면 관리(官里)로 추정된다.¹¹⁸⁾

(2) : 『서산군지』(1927) 고사조(古事條).

(3) : 현재 태안군 남면 진산리(榛山里) 속칭 ‘장군별[장문별, 진별]’로 추정된다.¹¹⁹⁾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충청도 국마장은 모두 내포지방에 위치하였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폐(置廢)를 거듭하던 국마장은 숙종조를 고비로 점차적으로 폐지되었고, 충청도에서도 면천군의 창택곶 목장, 태안군의 이산곶 목장, 서산군의 대산곶 목장, 홍주목의 원산도 목장만 남았다.

폐지된 목장 토지는 조선후기, 특히 숙종조 이후 많은 분란을 야기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목장이 해변의 평탄한 지역에 있었던 관계로, 왕가를 비롯한 권력층들이 절수(折受)받으려 하였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전(屯田)으로 경작하려 하였으며, 주민들도 토지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숙종조에 폐지되어 왕가에 절수된 목장의 토지는 안면곶 목장 뿐인데, 나머지의 목장은 둔전으로 경작되었거나 주민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목장 토지는 그후로 활발하게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국마장 가운데 관심을 끄는 곳은 원산도 목장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바로 인접해 있고, 조선조에 국마장과 아울러 원산진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령의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수군우후(水軍虞侯)가 조운선(漕運船)의 호송을 책임졌던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이다.¹²⁰⁾ 이렇듯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던

118) 『서산군지』(1927) 古事條.

119) 黑松山 在南面 脈出泰安白華山 西南經同面南山里 爲本面榛山里 地形槩多平原小丘陵 更南走 作將門坪 古昔牧馬場遺址 …… 『서산군지』(1927) 山岳條.

120) 『충청남도지』(187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用川面 元山島에 있으며, 前水의 虞侯가 있다. 매년 3월 초1일에 (漕船을) 護送하고 9월 초1일에 돌아와서 水營으로 간다. 甲寅年(1854)이 되어 巡營自辟軍官으로 元山別將을 삼아 호송토록 하였으나, 己巳年(1869)에 다시 別將을 혁파하고 水虞侯로 하여금 예전처럼 별장의 예에 따라 나가도록 하였다. 호송의 책임을 전담하는 바, 사고가 발생

까닭에, 숙종 42년(1716)에는 안흥원산창(安興元山倉)을 설치하고, 안면도의 둔세(屯稅)를 유치하여 섬주민들을 위한 환곡(還穀)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¹²¹⁾ 이와 관련하여 원산도에 이웃한 삼시도가 국가에서 어린 사슴을 방목하던 곳이라는 점도 염두해 둘 만하다.¹²²⁾

현재 보령과 안면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예정된 가운데, 원산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산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개발할 여지가 크며, 조선조 진보(鎭堡)와 국마장(國馬場)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논하게 될 것이다.

3. 금산(禁山) 유적

태안군에서 농치기 아까운 또 하나의 경관은 안면도에 위치한 황장목(黃腸木) 산지이다. 비록 조선왕조가 망한 후에 일제와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남벌과 개간으로 많이 훼손되었으나, 과거의 명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단순히 해양관광지로만 알려진 안면도를 지나다가 짙은 미끈한 자태의 송림을 보게 된다면 잠시 시선이 머물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송림 또한 역사적 자원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산(禁山) 또는 봉산(封山)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송림지대로 황해도 장산곶 및 전라도 변산과 함께 안면도가 유명하였다.¹²³⁾ 금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었을 터이고, 그 구체적인 지점을 모두 알 수는 없되, 대체적인 내역은 『만기요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¹²⁴⁾ 그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하면 우후에게 책임을 논하게 된다.’

121) 『만기요람』 財用編 6, 諸倉 安興元山倉條.

122) 『만기요람』 軍政編 4, 海防 西海南部條.

123) 안면도는 세종 연간에 이미 봉산으로 정해진 듯하다.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124) 『만기요람(萬機要覽)』 財用編 5, 松政 各道封山條.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표 5> 조선조 봉산 현황

지역		封山	黃腸	松田	계
공충도	泰安	20			73
	洪州	2			
	瑞山	51			
전라도		142	3		145
경상도		65	14	264	343
황해도		2			2
강원도			43		43
함경도				29	29
계		282	60	293	635

그런데 『만기요람』에는 각도의 봉산(封山) 현황에 바로 이어서 저명(著名)한 송산(松山)을 기록하고 있다.¹²⁵⁾ 그에 따르면, 호서의 안면도를 비롯하여, 호남의 변산(邊山)·완도(莞島)·고돌산(古突山)·팔영산(八影山)·금오도(金鰲島)·절이도(折爾島), 영남의 남해와 거제, 해서의 순위(巡威)·장산(長山), 관동의 태백산·오대산·설악산, 관북의 칠보산 등을 꼽고 있다. 사실 서남해안의 섬이나 백두대간 줄기의 소나무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금송정책(禁松政策)의 산물들이다.

관용목재로 사용하는 황장목의 관리는 매우 엄격하였으니, 조선후기의 경우 전선(戰船), 조선(漕船), 강화에서 임금이 타는 정자선(亭子船), 운석선(運石船) 등의 선재(船材)는 물론이요, 목재까지도 비변사에서 직접 벌채하여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¹²⁶⁾

호서에서는 선박을 만드는 목재는 거의 안면도에서 조달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만기요람』에 의하면 아산현감이 순영(巡營)에 보고하면, 호조를 거쳐 비변사에서 수영(水營)에 관문(關文)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¹²⁷⁾ 이에 따르

125) 『만기요람(萬機要覽)』財用編 5, 松政 著名松山條.

126) 『만기요람』軍政編 1, 備邊司 所掌事目 松政條.

127) 『만기요람』財用編 2, 漕轉 漕船材漕復米布退船條.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면 아산현감이 조선(漕船)의 건조를 맡고¹²⁸⁾ 수영(水營)에서 감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아산의 공세곶은 충청도 대부분 군현의 세곡을 운송하는 곳이었으며, 안면도의 송림은 수영(水營)에서 관할했기 때문이다.¹²⁹⁾

이러한 금송정책으로 송림이 우거졌던 안면도는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혼란기에 ‘도끼자루 하나만 있으면 먹고살 수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막상 조선조에도 소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쓰려했던 염한이[鹽漢]를 비롯한 주민들과 우거진 송림을 보존하여 목재로 쓰려했던 정부 사이에서는 숨바꼭질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다 금산(禁山)까지도 절수(折受)받으려는 궁방(宮房) 등의 노림수가 있었으니, 안면도 땅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¹³⁰⁾

궁방 등에서 안면도의 땅을 허급(許給)받으려 했던 것은 경작할 토지를 확보할 목적도 있었으나,¹³¹⁾ 오히려 풍부한 산림을 이용한 염밭[鹽田] 경영에 있었던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일제에 의하여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도입된 이후에도, 거의 1960년경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염법(煮鹽法)에 의하여 꽃소금[花鹽]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소금 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송림이 우거지고 갯벌이 발달한 안면도는 소금가마[鹽盆]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셈이다.

이런 까닭에 안면도로 몰래 잠입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국가에서는 엄격한 주민을 쇄출하는 등 금송(禁松) 조치를 취하여 송림 보호에 노력하였다.¹³²⁾ 그

128) 『정조실록』 권 42, 정조 19년 정월 7일 庚寅條.

129)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7월 15일조의 湖西水營所管 安眠島培養船材事目.

130) 『숙종실록』 권6, 숙종 3년 8월 3일 丁未條; 『영조실록』 권25, 영조 6년 4월 1일 戊戌條. 숙종 3년의 논의는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절수받으려 했던 일을 말하며, 영조 6년의 논의는 사포서(司圃署)의 절수 논의를 말한다. 『비변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131) 수영(水營)에서 송림을 간양(看養)하기 위하여 파견한 산직(山直)의 경우는 경작할 토지의 확보가 절실하였다. 숙종 3년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토지 30결의 경작을 허가하였으나, 암암리에 그 면적이 확대되었던 듯하다. 『비변사등록』 제33책, 숙종 3년 8월 3일조;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9월 14일조.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러나 생계를 도모하려는 유민(流民)이나 막대한 이익을 꾀하는 궁방(宮房) 등의 세력가는 물론이요, 국가에서도 재정의 확대를 위해서 염분 경영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절충한 조치가 잡목 또는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風落松]를 매각하거나 자염용(煮鹽用)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¹³³⁾ 그리고 정조 16년 충청도 기근 때에는, 구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관의 감독 아래 민간이 소금을 굽는 일을 허락하기도 하였다.¹³⁴⁾

이렇듯 조선 숙종조 이전까지는 안면도의 대부분이 국마장(國馬場)과 금산(禁山)이었으며, 금산의 경우에는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안면도의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생태 자원이 아니라,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간직한 유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안면도는 바다로 대표되는 국립공원이다. 그런데 해수욕장과 함께 서해의 낙조(落照)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또한 과거 선재(船材)를 조달하던 송림지대였던 것이다. 따라서 안면도를 살펴봄에 있어서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기는 이채로움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서산 A·B지구 간척지

서산 A·B지구 간척지는 현대건설이 중동에 진출했던 중장비를 철수하면서 유휴장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이었다. 1979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17년에 걸쳐서 소요된 이 간척사업의 결과, 담수호 1,300여 만평 포함하여 총 4,661만평의 토지를 확보하였다. 현재 이곳은 대규모 기술영농단

132) 『세종실록』 권121, 세종 30년 8월 27일 庚辰條;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정월 16일 辛巳條; 同 권6, 세조 3년 2월 25일 己未條; 『선조실록』 권19, 선조 18년 4월 29일 庚午條;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11월 22일 辛巳條; 『정조실록』 권16, 정조 7년 10월 29일 丁亥條.

133)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정월 17일 辛巳條; 『영조실록』 권31, 영조 8년 정월 10일 戊辰條;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7월 1일 己卯條.

134)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 12월 26일 庚寅條.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서해안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이 사업은 공사 당시부터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였다. 엄청난 조류(潮流) 흐름으로 인하여 마지막 물막이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을 당시에 폐유조선에 이용하여 제방을 완성한 사건은 ‘정주영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간척사업의 결과 이 일대는 한국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간사지의 매립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결과, 담수호가 오염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 다시 철새도래지가 되면서 환경론자들은 물론이요, 일반 관광객들의 시선을 묶어 놓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1998년에도 또 한번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북한에 지원된 이른바 ‘통일소’가 바로 이곳에서 사육되었던 것이다. 부남호 동쪽에 있는 서산목장에서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다.

간척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부남호는 과거 적돌강으로 불렸던 하천으로, 그 북단은 굴포운하 유적지이며, 운하의 자취가 분명하게 남아 있다. 또한 그 인근에는 여말선초 태안군의 치소(治所)가 있었던 순성(蓴城)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무학대사와 서산정씨의 전설이 전해지는 간월도는 방조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인근의 안면도 연육교는 안면도운하 유적지이기도 하다. 도비산의 부석사, 안면도 백사장 해수욕장과 포구 등도 충분한 볼거리들이다. 민속학적으로 볼 때도 부석면 창리의 영신제, 부석면 갈마리의 검은여제, 황도의 봉기뽕어제, 간월도의 굴부르기제 등의 민속의례 또한 다채롭다.

이러한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큰 유적들이 산재한 지역에 또 다시 현대사의 중요 사건들이 이어진 것이다. 단지 아쉬운 점은 토목사에서 결코 무시되지 않는 ‘유조선 공법’이 한 사건으로 치부된 채, 기록 이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들어서 환경론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간척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아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

련된 흔적들을 보존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폐유조선을 그대로 보존하여 자취를 남김과 동시에 박물관이나 휴게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능하다면 사전에) 모색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통일소는 다행히 최근 사건이다. 관광객들은 외형적 특징만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의미를 되새겨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3절 가야산 주변의 유적

1. 불교유적

가야산 인근지역은 한국에서도 놓치기 어려운 불교유적의 보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년대가 앞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애불로 대표되는 유적은 유구한 불교 역사를 증명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고대시대에 원거리 교통은 해상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항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연안항해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큰 바다를 건너는 경우에는 먼저 바다로 돌출한 반도에 접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변수는, 선진 문물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에 평안도 지방은 언제나 선진적인 지방으로 인식되었다.

서해로 돌출한 태안반도는 선진문물의 유입통로로서는 안성마춤이었으니, 그 대표적인 증거가 태안반도에서 충청남도 내륙으로 이어지는 마애불들이다. 특히 한국의 마애불은 내포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태안 백화산, 서산 운산면 용현리, 예산 삼교읍 용화산 등지의 마애불, 그리고 예산 봉산면 사면석불 등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유적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와 함께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불교사찰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다. 예산 덕산면 덕숭산의 수덕사(修德寺)를 비롯한 말사(末寺)와 암자들, 남연군 묘역에 있었던 가야사지(伽耶寺址), 서산 운산면의 개심사·문수사·보원사지(普願寺址), 서산 해미면의 일락사, 서산 부석면의 간월암과 부석사, 홍성 용봉산의 용봉사와 광경사지, 보령 미산면 성주리의 성주사지 등등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불교유적지들은 대부분 가야산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까지도 군사적인 이유로 각 군현의 치소(治所)가 산록(山麓)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그 주변에 비보사찰(裨補寺刹)이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내포 고을의 불교 유적들이 가야산 일대에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바가 아니다.¹³⁵⁾

연대기에 따라서 가야산 일대의 불교 유적을 살펴보려면, 우선 태안 백화산정에 서있는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이 마애불은 높이 320cm로 조각 수법이 투박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2불 1보살’이라는 기이한 삼존(三尊) 구도를 하고 있어서 눈에 띈다.¹³⁶⁾ 현재 태안 백화산의 마애삼존불은 한국 마애불의 시원(始原)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마애불은 점차 내륙에서 발견되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야산의 북쪽 용현 계곡에 위치한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다.¹³⁷⁾ 한 고고학자에 의하여 ‘백제의 미소’라고 명명된 이 마애불은 백제화된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수당불(隋唐佛)의 영향을 보여주는 예산 봉산면 화전리의 사면석불, 예산 삼교읍 용화산의 마애불 등이 내륙에서 발견되는 불상들이다.

이러한 마애불들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잃고 금강 유역으로 천도한 후, 제해권을 회복하는 6세기경의 활발한 해상활동을 통한 국제문화적 성격을 보여

135) 이하의 논의는 최완수의 글에 많이 의존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을 생략하였다. 최완수, 1994, 『名刹巡禮』①②③, 대원사.

136) 최완수는 백제 성왕(523-553)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7) 최완수는 백제 위덕왕(554-598)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주는 증거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남북조시대에는 불교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던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가야산 일원에 널리 퍼져 있는 상왕(象王)에 대한 전설 또한 재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백제시대 이래 가야산 일원에서 중흥한 불교는 수많은 명찰(名刹)들을 탄생시켰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예산 덕산면 덕숭산(德崇山)의 수덕사(修德寺)가 가장 대표적인 사찰로 꼽힌다. 본래 홍성의 북쪽에 있는 용봉산부터, 예산 덕산면의 덕숭산과 가야산, 그리고 서산의 상왕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모두 가야의 연봉(連峯)이니, 덕숭산은 그 남쪽에 해당된다. 수덕사는 바로 덕숭산 중턱에 남쪽을 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가야산을 둘러보다 보면, 도처에 넓은 계곡에 펼쳐져 있어서 명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수덕사는 그러한 호방한 기운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백제시대에 건축된 수덕사¹³⁸⁾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건물인 대웅전(국보 제49호)이 남아 있다. 1934년 해체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대웅전은 1308년에 건축되었다. 이 건물은 맞배지붕, 주심포, 평이한 빔살문 등에서 단순 소박하면서도 장중하고 엄숙한 멋을 잃지 않고 있으며, 측면의 기둥과 들보는 정제된 규격미를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일반인들에게는 대웅전에서 전면으로 내려다보이는 아늑한 전망이 더욱 매력적이다.¹³⁹⁾ 비록 강원도 산악처럼 빼어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138) 최완수는 수덕사의 창건 연대를 서산 마애불에 비추어서 위덕왕대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수덕사는 당시에 정치 중심지로 자리를 굳혀가던 홍주(洪州)의 비보사찰이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에 입각하여 홍주가 곧 주류성이며, 백제 부흥운동의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도침(道琛) 화상은 수덕사와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현재 주류성이 어느 곳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홍주가 정치 중심지로 부각된 시기는 확실치 않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139) 최근 입구에 큰 건물을 세우면서 시야가 가려지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으므로 논의를 줄이고자 한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매혹시키기에 충분한 산줄기를 오르다 보면, 아늑한 내포의 들녘의 평화로움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덕사에 대한 애정은 관련 인물들로 하여 더욱 커지게 된다. 우선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 성우(鏡虛 惺牛, 1849-1912) 선사의 고족 제자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 있다. 만공 선사는 결성 출신의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과 교유하면서 일본의 한국 불교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던 인물로, 수덕사에 금선대(金仙臺)라는 초가 암자를 지어 살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그가 평생 기거했다는 소림초당(少林草堂), 교육장이었던 능인선원(能仁禪院)과 견성암(見性庵), 1924년에 조성된 용출관음석상(湧出觀音石像), 현대적 양식의 사리탑인 만공탑 등등은 모두 그의 손길이 닿은 자취들이다.

수덕사의 또다른 매력은 비구니들의 수도원이라는 점에 있다. 일찍이 『新女子』를 간행하는 등 여성운동가로 명성을 쌓았던 일엽 스님(金一葉, 1896-1971)이 만공 선사를 만나면서 견성암에서 머리를 깎았다. 현재 견성암의 현판은, 일엽 스님의 뒤를 따르는 100여 명의 여승들의 수도처인 덕숭총림 선방으로 옮겨져 있다.

수덕사의 입구에는 아담한 초가의 수덕여관이 방문객들의 눈을 끈다. 이곳은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고암(顧菴) 이응로(李應魯) 화백의 부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뜰에는 그의 문자추상화가 새겨진 바위가 있어서 지나치는 길손들을 잠시 머물게 한다.

수덕사를 떠난 발길은 덕산 읍내를 거쳐 가야동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복잡잡한 온천관광단지와 읍내길을 거쳐 서쪽으로 접어들면, 가야봉·석문봉·옥양봉 등 가야산의 주봉(主峰)들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들어설 수 있다.

가야동 초입에 조성된 옥계저수지 북쪽 태봉은 곧 조선 헌종의 태실이 있었던 유허(遺墟)요, 그 서북쪽으로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백형(伯兄)인 흥녕군(興寧君) 이창응(李昌應)의 묘역이 보인다. 다시 서쪽 저수지 끝자락 암벽[玉屏溪]에는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형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그것은 가야동 일대가 원래 그 집안의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반쯤은 파묻혀 버린 옥병계에는 숙종조에 김진규가 새겼다는 ‘玉屏溪’, 성수심의 ‘水栽培’ 등의 글귀가 완연하다.

옥병계를 지나 서북쪽으로 2.5km를 가면 수많은 역사적 일화를 남긴 남연군묘가 있으니, 바로 그곳이 가야사(伽耶寺)의 옛터이다. 가야사는 본래 고려 시대에 건립된 대가람이었다가 남연군묘를 이장하면서 폐사(廢寺)되는 비운을 맞이하였고, 이 일대를 소유하였던 병계 등의 윤씨 일문의 토지도 왕실 소유로 바뀌게 되었다. 앞에서 가야동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여러 유적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편 남연군묘를 이장한 후, 홍선대원군은 맞은편 서원산에 큰 아들[李載冕]을 시주자로 하여 보덕사(報德寺)라는 사찰을 창건했으니, 조선왕실의 마지막 원찰(願刹)인 셈이다. 그러나 보덕사 역시 한국전쟁으로 불타 없어지고, 단지 가야사에서 옮긴 것으로 보이는 화사석(火舍石)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보덕사는 지금 비구니들이 중창한 정결한 수도도량으로 변하였다.

최완수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수덕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말기 북부 불교계를 제압하기 위하여 덕산 가야동의 가야사와 서산 용현계곡의 보원사를 창건했다고 보았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가야사는 수덕사보다 모진 시련을 겪은 셈이다.

남연군묘의 이장(移葬)으로 대표되는 풍수설에 얽힌 논란¹⁴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최근 들어서 풍수가인 육관대사가 남연군묘 서쪽에 자신의 묘역을 스스로 정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남연군묘는 이미 1989년 12월 29일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기념물 8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또 다시 1998년 12월 29일에 가야사지가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150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까지도 복잡한 양상을 빚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가야동은 한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남연군묘에서 동쪽으

140)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남연군묘는 당시 정만인(鄭萬仁)이라는 지관이 택한 곳으로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의 명당이라고 한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로 내려다보이는 미륵을 뒤로하고 북쪽 산 속을 통하여 서산으로 가는 길은 일제 시대에 닦아놓은 군사도로이니, 감회는 더욱 새롭다. 이 도로변의 밤나무단지는 서산 경계[대문동]를 넘어까지 이어진다.

밤나무단지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여름철 서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용현계곡 유원지가 나타난다. 이 계곡에는 국보 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 사적 316호 보원사지(普願寺址) 및 당간지주를 비롯한 여러 점의 보물로 유명하다. 이와 함께 상왕(象王)의 전설이 어린 곳곳의 유적들도 불교와 연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듯하다.

일제시대에 개설된 군사도로를 이용한다면 산정(山頂)의 유적으로부터 밟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를 이용하기는 곤란한 관계로 운산-덕산 간 지방도에서 계곡으로 진입하는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용현 계곡의 서산 마애삼존불상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백제의 대표적인 인물조각상이다. 이 마애불을 만나기 위하여 계곡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서낭당처럼 돌무더기가 수북하게 쌓인 곳에 서있는 미륵불과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 이 미륵은 고려말 조선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허저수지가 축조되기 전에는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 구 도로의 삼거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계곡을 향하고 있었다 하여 구구한 해석이 전해지는 미륵님이다.

미륵과 헤어지자마자 조그만 시멘트 교량을 건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본래 도로는 개천 동편의 오솔길이었다 한다. 아무튼 현재 개천 서쪽편을 따라 나있는 길을 따라 약 300m를 더 가면 도로 서쪽변에 높다란 바위가 버티고 서있다. 인바위[印岩]라 하는 이 암벽은 전설 속의 상왕이 말[斗] 만한 인장을 숨겨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인바위 곁에는 길이 2m, 높이 50cm 정도의 조그만 바위[고양이바위]가 웅크린 자세로 엎드려 있는데, 보원사의 흥망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주민들은 풍수설에 입각하여, ‘고양이바위는 개천 건너 숲 속에 있는 쥐바위와 상극인데, 두 바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하면서 보원사 일대의 모든 절이 망하게 되었다.’ 또는 ‘작은 암자 100개를 만드는 순간 두 곳이 서로 연결되었

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바위 아래 개천으로 내려가면 개천 양편에 축대가 완연하게 남아 있으니, 그러한 전설을 믿을 바는 아니라 하더라도, 옛 길은 개천 서편을 따라 있었음은 확실한 듯하다. 그렇다면 인바위와 고양이바위는 보원사로 들어서는 대문이다.

서산 마애삼존불로 오르는 길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넉넉하다. 방문객들이 돌을 모아 쌓아둔 조그만 탑 사이로 오르는 계단은, 가파르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 오솔길 중턱에 마애불이 서있다. 양 불이 도톰하도록 미소를 짓는 이 불상을 마주하노라면 저절로 웃음이 배어나올 것이다. ‘백제인의 미소’라는 발견 당시의 평가에, ‘빛에 따라 부처의 표정이 달라 보인다.’는 등의 현대적 설명이 더해지면서, 이미 이 불상은 백제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마애불의 서남쪽 산중턱에는 둘레 약 3.5km의 큰 석성(石城)이 남아 있어서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주민들은 이 성을 대성(太城)이라 부르는데, 서쪽으로 보원사지(普願寺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¹⁴¹⁾

보원사지는 서산 마애삼존불로부터 남쪽으로 약 1km에 위치한 절터이다. 보원사는 현재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절터에서 출토된 금동여래불상이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추정에 입각하여 백제 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¹⁴²⁾

보원사가 최초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신라 헌강왕 6년(880)이다. 보조선사장성탑비명에 의하면, 웅진인이었던 선사는 흥덕왕 2년(827)에 가랑협산 보원사에서 수구계하였다고 하니, 보원사는 그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듯하다.

한편 부성태수(富城太守, 893년 부임)를 지냈던 최치원이 남긴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에 의하면, 웅주(熊州) 가야협(伽耶峽)의 보원사는 의상(義湘)을

141) 대성 아래 군자동(君子洞)은 원래 군장동(軍藏洞)으로 상왕이 군대를 숨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142) 서산문화원, 1991, 『瑞山·泰安文化遺蹟』(上). p.p.512-520; 서산시, 1998, 『서산시지』 제7권 서산의 문화유적. p.p.160-168.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계승한 화엄십사(華嚴十寺) 중의 하나였던 대가람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왕권 강화 이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보원사의 사세(寺勢)는 크게 발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법인국사 보승탑을 비롯한 유적들은 모두 고려시대 중건 당시의 것들로 추정되고 있다.

보원사는 화엄종이 약화되기 시작한 고려 무신정권 시기부터 사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상왕산에 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佛宇條)의 기록으로 보아 폐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1619년의 『호산록(湖山錄)』에는 이미 전우(殿宇)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니, 보원사는 1530년~1619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원사지(사적 제316호)에는 현재 석조(石槽, 보물 제102호),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제103호), 오층석탑(보물 제104호), 법인국사 보승탑(法印國師 寶乘塔, 보물 제105호), 법인국사 보승탑비(寶乘塔碑, 보물 제106호)가 남아 있다.

보원사가 있는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산 자락에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터들이 산재해 있다. 전설에 등장하는 보원사에 속한 100번째의 암자라는 옥양봉 아래에 위치한 백암사지(白庵寺址) 등 용현계곡 안의 절터를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원평리 신사동과 의현동 일원의 절터, 그리고 서쪽으로는 보현사지를 비롯한 용현리 보현동 일원의 절터 등은 상세한 조사를 기다리는 미답의 유적들이다.

가야 연봉의 서쪽 사면의 불교유적은 태봉리의 문수사(文殊寺)로부터 시작된다. 삼선개현 당시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축협중앙회의 소유가 된 목장 가운데를 지나면, 명종대왕의 태실(胎室)이 있다 하여 태봉리라 이름이 붙여진 마을에 이르게 된다. 막힐 것 없이 펼쳐진 목초지를 지나 문수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사(山寺)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문수사로 접어드는 목초지는 우리의 눈에는 낯설게 느껴진다.

태봉산(胎封山) 서쪽 아래 마을은 태봉동이요, 동북쪽 문수사 아래 마을은 문수동이니, 그것은 문수사 때문에 생긴 이름일 것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태실 옆에서 기우제를 지낸 적도 있다 하니, 민간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듯하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수덕사가 아래 들녘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가람이라면, 문수사는 모퉁이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작은 절이다. 1973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복장기(伏藏記)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46년 이전에 창건되었음이 밝혀졌지만, 『호산록』에는 이미 폐사되었다고 하니 보원사와 흥망을 같이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수사의 창건연대는 불명확하며, 현 건물과 유물은 모두 16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극락보전은 주심포계와 다포계를 정충한 맞배지붕의 건물로 지붕이 들려 있는 듯한 인상의 조선후기 건물이다. 그 안에는 1346년에 만들어진 금동아미타불좌상,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16나한상, 1774년 제작된 지장보살도, 1892년 김금어가 제작한 신장정화(神將幀畵) 등이 소장되어 있다.

개심사를 찾는 길도 목초지를 건너야 함은 문수사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거리는 훨씬 짧은 편이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니, 얼마 후면 육교 아래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농가들을 지나면 신창저수지의 높은 뚝이 가로막고 있고, 그 뚝길을 비스듬하게 가로질러 남쪽 언저리에 오르면 맑은 호수와 숲이 마주하니 절 길이라는 실감이 든다.

길게 저수지를 굽이도는 길을 따라 개심사 아래 사하촌(寺下村) 동구말로 가다보면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일락사로 가는 도로라 하는데, 자연훼손인지 아니면 통행을 도와주는 시설이라 할지 판단이 서지는 않는다. 동구말 초입 저수지 끝자락에 혼자 서있는 느티나무는 마을 서낭나무라 하며, 이 때문에 도로를 달리했다 하니 옛날과는 조금이나마 달라진 행정당국을 보는 듯하다.

일제시대의 기록에는 개심사 주변에 수령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피나무·밤나무·참나무·모감주나무·향나무·단풍나무 등이 군락을 이룬다고 했으나,¹⁴³⁾ 지금은 동구말에서 개심사길로 접어드는 입구 양쪽에 느티나무가 눈에 띈 뿐이다. 오히려 방문객들을 반기는 것은 가슴까지 후련하게 해주는 솔향과 짙은 적송(赤松)들의 고운 자태이다.

호젓한 길을 지나 경내로 접어들라치면 굵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종루(鐘

143) 『서산군지』(1927).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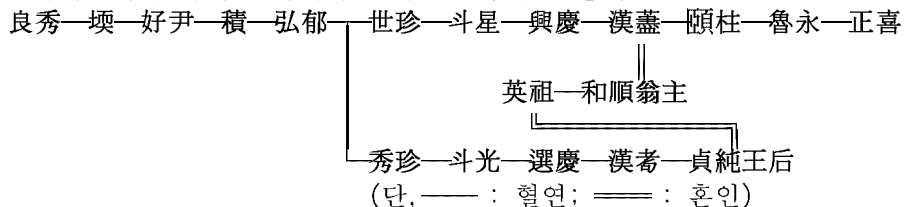
樓)와 마주하게 된다. 온통 굽은 나무로만 지은 듯한 심검당(尋劍堂,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8호)의 진면목을 먼저 엿보게 하는 건물이다. 심검당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굽은 나무를 그대로 살린 멋을 간직하고 있다. 개심사는 이처럼 자연스러움이 매력인 곳이다.

그리고 개심사에는 대웅전(보물 제143호),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보물 제1264호), 명부전(冥府殿,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4호), 심검당 등의 문화재가 있지만, 정작 언제 세워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1941년 대웅전을 해체 수리할 때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1484년에 대웅전을 중창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사찰과 관련된 일화들이 더 우리의 관심을 끈다.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선초기 건축물 심검당에 근대 한국 선종(禪宗)의 중흥조인 경허성우(鏡虛 惺牛, 1849-1912)가 거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교도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하지만, 역사의 향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왕비와 부마도위를 배출하고 김정희라는 큰 학자를 낳았던 경주김씨와의 인연은 조선후기 역사의 뒷면을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

속칭 한다리김씨라고 부르는 일가의 인연은 김연(金堧, 1494~?)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계모 황씨의 고향인 한다리에 터를 잡았고, 그의 증손 김홍욱(金弘郁, 1602~1654)대에 이르러서 명문가로 등장한다. 그리고 현손대에 이르러 김한신(金漢薰, 月城尉)은 영조의 따님인 화순옹주(和順翁主)와 혼인하는 한편, 8촌 형제인 김한구(金漢耆)의 장녀가 영조의 계비(繼妃, 貞純王后)가 되니, 한다리김씨는 왕실과 연혼을 맺은 내외척(內外戚)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는 바로 월성위의 증손이다.¹⁴⁴⁾

144) 한다리김씨의 가계는 아래와 같다. 『만성대동보』 참조.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한다리김씨와 개심사와의 인연은 이주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듯하다. 김연의 계모 황씨의 묘소가 개심사의 내청룡에 해당되는 산중턱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라 할 것이다. 철종대의 개심사 중창에는 김씨 일문이 대대적으로 참여한다. 김홍욱을 비롯한 김적(金積)의 4아들의 후손들이 모두 불사에 참여하였음은 물론이요, 상궁(尙宮) 우씨와 함께 서산군수와 당진현감이 시주로 있었다는 사실은 왕실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추사 김정희를 실학의 대가라 칭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실학이 몰락한 남인계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개심사를 둘러보는 길에 추사고택과 함께 서산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마을의 정순왕후 생가(충청남도 기념물 제68호), 김기현 고가(중요민속자료 제199호), 그리고 김적의 자취가 남아 있는 용유대와 단구대를 둘러보는 여정도 생각해볼 만할 것이다.

산간도로가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일락사로 향하는 길은 해미읍성을 거쳐야 한다. 성곽 동쪽을 감싸 돌다가 하천을 건너면 일락골에 있는 황락리라는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을 지나는 도중 회관 뒤편을 보면 미륵불이 조용히 서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4방향의 비보장승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또한 많은 외부인들이 다녀가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마을 사람들은 무덤덤하며, 마을회관 자리에 있던 서낭나무에서 서낭제를 지낼 때에도 미륵을 모신 일은 없다고 전한다.

황락리 미륵불을 지나 일락사로 가는 길에도 큰 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가야산 서쪽 사면에는 큰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골짜기마다 물을 가둔 때문이다.

석문봉 아래에 위치한 일락사의 규모나 위치는 개심사와 문수사의 중간이라 해야 적당할 듯하다. 일락사에 현존하는 유물로는 고려시대의 양식인 3층 석탑이 있으나, 막상 창건연대는 불확실하다. 다만 1649년 해미읍성을 중수할 때 일락사 대웅전을 함께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관심을 끈다.

현재 해미읍성은 천주교도의 순교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왜구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와 해적들이 준동하던 조선 태종 14년(1414) 가야산 너머 덕산에 있던 충청병마절도사영을 해미로 이설하였고, 효종 2년(1651) 다시 청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충청도 서해안의 중심 군사 요충지였던 곳이다.

현 해미읍성에서 서북쪽으로 서산까지 뻗은 국도변에 위치한 반양리에는 구해미[또는 반계]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서쪽으로 불과 2km 지점까지 바닷물이 차올랐다고 하니, 해미읍성은 육지와 바다를 겸할 목적으로 가야산을 등져서 설치된 군사시설로 보아 틀림이 없을 듯하다. 그리고 1649년의 일락사 중수도 이와 연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한편 일락사로 가는 황락리에도 미륵이 서있거니와, 조산리와 반양리에도 미륵이 있고, 얼마 전에 분실되기 전까지도 가야산 중턱 산수리에도 있어서 미륵불을 보기 위하여 해미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민속학계에서는 주민들의 전언을 그대로 믿고,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4방향에 세워진 비보장승이며,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비보(裨補)를 위하여 세워졌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막상 최근의 공동의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현재 반양리 미륵이 있었던 곳에서는 사찰 건립이 한창이고, 조산리 미륵이 있는 곳에는 매년 두 차례씩 무속인들이 찾아와 굿판을 벌인다. 황락리 미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산수리에서는 산수저수지 축조와 함께 마을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와중에 분실되었으니, 미륵불의 운명도 한가지는 아닌 듯하다. 이 네 곳의 미륵불들도 과거에는 사찰에 있었던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겠거니와, 가야산 주변에 부지기수로 흩어져 있는 미륵들에 관해서도 최소한 실태조사는 있어야 될 것이다.

가야산은 한눈에 내포 일대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명산으로서 손색이 없으니, 백제시대 이래로의 많은 불교유적들을 남아 있다. 또한 덕산온천이 유명하고, 또 다른 온천들도 추가로 개발 중에 있다. 윤봉길 의사의 향내가 채 가시지도 않았으며, 최영·성산문·최익현·김좌진·한용운 선생의 유적지도 멀지 않다. 조선 고종황제 일가의 묘역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유명한 풍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수지리가가 생전에 마련한 묘소를 가야산록에 만들면서 TV에 보도되었다. 이처럼 가야산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한 풍수가 덕에 기대치 않은 홍보효과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적절한 연계 개발만이 남았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포에서 백제를 지나치게 강조했을 때, 스스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백제라면 누구라도 고도(古都)였던 공주나 부여를 연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백제 -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으로 면면히 이어지는 내포의 독특한 불교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2.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

상무사라 함은 1899년 상행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보부상단(裸負商團)의 업무도 관할하였다. 조선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보상(裸商)과 부상(負商)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기 시작하였는데, 1899년 상무사의 발족과 함께, 상무사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현재 상무사조직은 전국에서도 충청남도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부여·정산·홍산·임천·한산·비인·남포·서천 등 소위 저산팔읍(苧産八邑)에서 생산되는 모시를 배경으로 하는 충청우도저산팔구상무좌·우사(忠淸右道苧産八區商務左右社)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덕산·예산·당진·면천을 무대로 하는 활동하는 예덕상무좌·우사(禮德商務左右社)가 미미하나 활동하고 있다.

저산팔구상무사에서는 최근까지도 한산모시로 명성을 높인 특산품을 거래하는 반면에, 예덕상무사에서는 주로 서해안의 해산물을 거래하였다. 그리고 최근 해산물 유통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예덕상무사는 쇠퇴하게 되었다. 다만, 내포지방의 도로교통이 불편했던 관계로, 현대화의 추세 속에서도 전통적인 상업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던 셈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무사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사실은, 덕산을 배경으로 보부상들이 유숙하면서 거래하였던 객주(客主)가 덕산관광단지 인근이라는 사실이다. 덕산의 대표적인 객주는 ‘봉정이주막’[삼교읍 송산리 봉정이 마을], 목بار리주막[덕산면 시랑리 목بار리 마을], ‘나박소주막’[덕산면 내라리 나박소 마을]이었다고 한다.

봉정이주막은 덕산읍내를 우회·통과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신설 45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목بار리주막 마을은 윤봉길 의사의 출생지로서, 서쪽으로 수덕사에서 덕산으로 오는 622번 지방도와 해미에서 덕산으로 오는 45번 국도가 마주치는 지점 바로 동쪽에 인접하고 있다. 45번 국도가 신설되고 나면, 덕산관광단지의 동서쪽 입구가 된다. 그러므로 진입로와 휴게소의 기능을 갖추고, 관광철에는 주말에 난장(亂場)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벌이는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3. 덕산온천

덕산온천은 약 180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역사가 오래된 온천이다. 수온은 약 45℃이며, 수소이온 농도는 8.7로서 약 알칼리성이다.

최근에 곳곳에 온천이 개발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그 희소성은 이미 반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화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배후 휴양지로서 덕산온천관광단지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종교 관련 유적

유학(儒學)이 종교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논란과는 무관하게, 유교유산은 거의 무형의 것이거나, 종종 특정한 명현(名賢)과 연관된 것이다. 아마 향교가 특정 인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거의 유일한

유적일 것이다. 따라서 유교유산에 관해서는 인물 관계유적에서 다루고자 한다.

1. 불교유적

가야산 주변은 불교유적의 보고인 바, 이미 제3절에서 대강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명승지에는 어느 곳이나 불교사찰이 자리잡고 있었으니, 가야산 이외의 지역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이미 살펴본 가야산 불교유적 외에 다른 불교유산들을 간략하게 짚어나가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이 관광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까닭에, 외진 곳의 모든 유적을 거론할 수는 없다. 사실 가야산 주변을 별도로 다룬 까닭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독립 유적이라 할지라도 도시를 배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민의 휴식공간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다. 아래의 논의는 이러한 입장에서 서술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가야산 자락의 불교를 언급하면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유적은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에 소재한 사면석불(보물 제794호)과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 안국사지 등이다.

1983년 3월에 발견된 예산 사면석불은 자연 괴석의 사면을 다듬어 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삼국시대 최초의 4면불이다. 지금 불상의 머리부분이 모두 파손되어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몸체의 옷주름은 백제예술의 아름다움을 살피는 데에 모자람이 없다.

불상이 위치한 지역은 가야산의 동북쪽 지맥에 해당되는 바, 가야산의 불교유적으로 분류되어야 하겠으나, 현재는 가야산 동쪽 사면을 남북으로 잇는 도로에서 동쪽으로 벗어나 있어서 한참을 우회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선뜻 일반인들에게 권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교예술에 관심이 크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방문을 권하고 싶다. 이 불상은 550년경에 조성되어 약 150년 전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폐사된 정수암(靜修庵) 터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차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또 다른 유적들이 발견된다면 훌륭한 유적지로 권할 수 있기에 후일의 연구조사를 기대해 본다.

안국사 또한 가야산의 북쪽 끝자락에 있었던 사찰이다. 절터 아래쪽에는 고려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석불입상(보물 제100호)과 석탑(보물 제101호)이 있다. 그러나 이 사지 또한 서산-당진 간 32번 국도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찾아 갈 수 있다. 교통의 불편하며, 현재까지는 다른 유적이 발굴되지 못하였고, 예술적 가치에서도 일반 방문객의 수고로움을 보상할 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산을 거쳐 서산 A·B지구간척지를 찾는 길이라면 부석면 도비산의 부석사와 간월암을 둘러볼 만하다. 불교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비산 부석사에 도착하기 전에 인지면 애정리의 두애절[杜宇寺]에 잠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760년 암자를 중축하여 사찰로 승격되었다고 하는 두애절에 과거의 면모를 보여주는 건물은 없으나, 1990년에 새로이 지어진 불당 안에는 돌로 만든 미륵삼존상이 있어서 이채롭고, 그 뒤편으로는 1854년 현오(玄旿) 등이 제작한 아미타극락회상도가 있어서 찾는 이들을 놀라게 한다.

불당 안에는 미륵삼존상만이 봉안되어 있는데, 본래 가야산에 있었던 것이라 하며, 최근까지도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고 한다. 탕화 또한 본래는 수덕사에 봉안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니, 부석면까지 가야산 수덕사의 영역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내포 일대의 사찰에는 두애절 마냥 미륵을 비롯한 석불상(石佛像)을 봉안한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가야산에서 옮겨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두애절의 미륵은 풍화를 막기 위하여 머리 부분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으며, 탕화는 해충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씁쓸한 감회를 지울 길이 없다.

부석면은 본래 한가운데 우뚝 솟은 도비산 자락에 마을들이 모여 있는 곳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이다. 그 산정에는 조선조까지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 아랫녘에 느티나무 군락 사이에 숨어 있는 사찰이 부석사이다.

부석사는 최소한 고려 후기에는 창건되었고, 조선왕조 개국에 참여하였던 무학대사가 중건하였으며, 최근에는 만공 월면(滿空 月面, 1871-1946) 스님이 주석하면서 선풍(禪風)을 떨쳤던 곳이다. 극락전, 안양루(安養樓,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5호), 심검당 등의 건물과 함께 주위를 둘러싼 느티나무 군락은 오래된 절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간월도는 간척지 방조제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린 섬이다. 그 남쪽 끝자락에 조그만 섬이 있어서 썰물에는 도보로 건널 수 있으니, 그곳에 무학대사와 만공스님, 그리고 서산정씨 입향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간월암이 있다.

서산정씨의 시조 정신보는 본래 송나라 사람으로 1237년 간월도 해변에서 은거하다가 고창현[덕산의 옛이름] 오영노의 딸과 혼인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아들 정인경은 임연(林衍)의 변에서 공을 세워, 부성현이 서산현으로 승격되게 하였으며, 동녕부를 고려에 귀속시키는 데에도 공이 컸다고 한다. 간월암은 본래 정인경의 옛터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원통대(圓通臺)라 하였다 한다.

간월암의 창건 연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무학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이곳에서 수도하면서 바다에 비친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다. 그 후 1914년 수덕사의 주지였던 만공선사가 중건하였다고 한 곳이다.

간월도에서 천수만을 향한 조그만 섬 전체가 간월암이며,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석양의 아름다움은 찾는 이들을 감탄케 한다. 이미 방조제의 축조와 함께 간월도가 해산물을 즐기는 유원지로 변한 터에, 설령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지척에 있는 간월암은 매력적인 사진 촬영의 장소임은 분명하다.

태안군 백화산 정상에 위치한 마애삼존불은 한국 최초의 마애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불교유적에 속한다. 다만 산정에 위치하여 오르기 쉽지 않

지만, 태안 바닷가를 찾는 길에 여유가 있다면 찾아볼 만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서산 대산읍의 망월사와 해월암은 새로이 조성된 대산공업단지의 배후 공간으로서 활용될 가치가 크며, 보령을 찾는 길에 선종(禪宗)의 시작을 알렸던 성주사지를 찾는 일도 보람된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천주교 관련 유적

해미읍성은 한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읍성(邑城)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해미현의 치소는 이웃한 반양리였고, 그 탓에 지금도 구해미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반양리의 뒷산(해발 140m)에는 둘레 약 600m의 석성(石城) 일부와 남벽 근처에 많은 건물지들이 남아 있어서 해미읍성 축조 이전까지의 치소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해미읍성은 들판에 위치한 조선조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동헌 뒤편에 있는 청허정(淸虛亭)에 올라 멀리 천수만을 보는 순간, ‘산성 : 평지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이 깨어짐을 실감할 수 있다. 들판에 위치하면서도 간척사업으로 훨씬 떨어진 천수만을 조망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조선초 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해미읍성을 들어서는 방문객의 감회에는 근대사의 남다름이 있다. 통칭 ‘내포교회’라 불리는 충청남도 중서부 지역에서 흔히 ‘솔피[당진군 연천면 송산리]는 신앙의 못[苗]자리’라고 하는 반면에, ‘해미는 신앙의 뗏[墓]자리’라고 전해지게 된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내포의 천주교는 안중 - 공세리 - 예산 - 합덕 - 공주의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한다. 내포교회는 한국에서도 천주교회의 가장 활발한 전교지역이었으니, 그 중심지가 합덕 본당이었으며, 전교 만큼이나 박해가 심했으니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곳이 바로 해미읍성이었다.

이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한 이는 이존창(1752~1801)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786년부터 내포지방의 전교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801년 공주감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옥에서 참수형을 당하였다. 한국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증조부 김진후(金震厚) 역시 이존창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다.

김대건 신부(1821~1846)는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증조부가 입교한 이래 대대로 천주교를 믿게 되었으니, 아버지 김제준(金濟俊)도 천주교 신자였다. 김대건 신부는 1835년 14살 때 송산리 솔피 마을에 있는 천주교 교회의 신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1845년에 최초로 신부의 서품을 받고 전도에 힘쓰다가 1846년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처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61년에 이미 상부내포(上部內浦)와 하부내포의 두 본당이 설립되는 등 활동이 활발하였고, 그 결과 병인박해에는 187명이라는 대규모의 순교자를 낳았다. 1890년에는 두세 신부의 활동으로 양촌(陽村, 예산군 고덕면 상궁리)과 간양골 본당이 설립되었다가 1894년에는 간양골 본당이 양촌 본당에 병합되었다. 양촌 본당은 1899년 합덕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한국의 총 165개 본당 가운데 10번째에 설립된 곳이다.

합덕 본당이 충청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은, 후대에 설립되는 공세리·공주·금사리·수곡 본당 등의 관할 구역이 본래 양촌 본당에서 관할하였다는 사실로서 짐작이 된다. 이러한 결과 합덕 본당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도자와 사제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세 때문에 내포에는 수많은 천주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한국 최초의 영세자였던 이승훈이 예산으로 유배되면서 인근의 여사울[如斯洞,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공소가 창립되었다. 내포지방 천주교 전도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이존창의 활동무대가 바로 이곳이니, 천주교측으로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여사울 마을과 바로 이웃한 마을에 우거하였던 탓에 천주교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 마을은 이미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1977년 이후 기념비와 동상을 건립하는 등 천주교 성지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가로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은 실학자 이가환(李家煥)은 고덕면 상장리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사래 마을 사람으로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였다. 이가환은 성호 이익 선생의 종손자로 천문학과 수학에 능했던 인물이다. 백서(帛書) 사건으로 유명한 황사영의 거주지는 덕산면 황모리이며, 또한 정약용 집안과 사돈간이다.

이러한 역사를 살펴다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드러난다. 지식인 층으로서 천주교와 연루되어 순교한 인물들이 대부분 한국사가들에게서는 실학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사실 근기지방의 남인계 실학자인 성호좌파가 천주교에 입교하는 등 밀접한 연관성을 읽을 수 있는 곳 또한 내포지방이다.

이 외에도 내포지방의 어머니 본당으로 꼽히는 (구)합덕 본당, 한국 카톨릭 교회사를 집필하였던 신리 등 곳곳에 산재한 공소들, 이와는 반대로 순교처로 유명한 해미읍성과 주변의 유적지, 보령 갈매꽃 등등 천주교 유적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천주교 유적지를 살핌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충돌한 부분이다. 보수적인 유림과의 갈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새로운 시대 이념으로 평가받는 동학(東學)과의 갈등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1894년 동학혁명 당시 양촌 본당에 있었던 퀴를리에 신부는 교구장 뮈텔 주교의 명에 따라 서울로 피신했으며, 그의 사제관과 공세리의 사제관이 동학 교도들의 피습을 받아 파괴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과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일 조선조 읍성이었다는 점에 주안점이 주어진다면, 읍성의 복원을 위한 노력은 읍성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고, 읍성의 관계 또한 천주교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천주교 유적지는 남다른 고민을 낳게 만드는 문화유적임에는 분명하다.

3. 동학 관련 유적

동학은 내부적으로 조선왕조의 몰락을 특징짓는 일대 민중운동으로 평가받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는다. 단순한 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이념의 시작으로 평가받으며, 현실적으로도 동학혁명 운동으로 인하여 조선왕조가 몰락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사적으로도 큰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동학은 최제우에 의하여 창제되었으며, 전봉준의 기치 아래 전라도를 중심으로 체제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상도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하나의 논란거리이며, 충청도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즉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영도 아래에 있었던 충청도의 동학, 즉 북접(北接)은 봉기에 반대하고 나아가서 남접을 공략하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과연 진보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강경노선 때문에 진보적 흐름이 좌절당하는 역사적 선례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상도 동학의 움직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충청도에서도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한말 대표적인 의병운동이었던 홍주의병 자체가 홍주를 중심으로 한 동학운동으로부터 배태되었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¹⁴⁵⁾

동학 당시 활동했던 인물로는 박인호·박덕칠(박희인)·손병희 외에 면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창구(李昌九)·한명순·박용태 등이 있다고 한다. 1894년 4월에 면천에서 기포하여 같은 해 10월에는 합덕 성동산성, 당진읍 구룡리 승전목, 당진 송악면 송악산 등지에서 대규모의 전투가 있었으며, 한때 이창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학교도들의 활동으로 조운(漕運)이 불통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동학운동이 좌절된 이후에는 내포의 난지도를 중심으로 활발

145) 이하의 구체적인 사실은 이인화의 글에 주로 의존하였다. 이인화, 「내포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당진문화원, 『당진향토문화논총』 17집, 1997. 이 글은 기초조사로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당(活貧黨) 활동을 벌였으며, 홍주의병으로 대거 흡수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내포지방은 남당 한원진과 병계 윤봉구 등으로 대표되는 호론(湖論) 계열의 학풍이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내세우는 그들에게서 근왕적(勤王的) 태도는 결코 버릴 수 없는 명제였으니, 왕실을 부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내포의 학풍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화서 이항로를 중심으로 하여 최익현, 유인석으로 대표되는 화서학과와 함께 내포에는 남당의 문인을 자처하는 인물들(李偈·金福漢·林翰周)이 있었으며, 바로 그들이 한말 홍주의병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김좌진·한용운·윤봉길 등 한말 이후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충절의 전통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내포지방의 동학운동은 일부 향토사가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발굴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내포에서 동학도들이 최초로 집결하였다고 하는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보현동 마을, 동학도들이 훈련받았다고 전해지는 용현리 보원사지, 지금까지 단군전이 소재한 운산면 와우리, 승전목·성동산성·송악산 등과 같은 전적지 등이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유적지에 관한 자세한 검토가 미미한 형편이며, 미발굴의 유적지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제5절 인물 관련 유적

이 지역에도 내포지방을 넘어서, 때로는 한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들에 관한 재조명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변의 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현재의 지명도 또는 활용가능성에 비추어 대상인물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명현(名賢) 관계 유적

과거의 위인(偉人)은 그 사회적 영향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후손들의 사회적 입지에 의하여 재단되면서, 문중학(門中學)이라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¹⁴⁶⁾ 한편 내포지방에서는 주목받기에 충분하면서, 학계에서조차 거의 연구가 되지 못한 인물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후기 대표적인 논쟁이었던 호락논쟁(湖洛論爭)의 본격적인 출발점인 외암 이간과 남당 한원진이다.

조선 성리학계의 사상사를 살펴보면, 16세기 퇴율(退栗) 이후 사단칠정론은 형이상학적 논쟁을 대표하고,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은 사회윤리적 실천과 관련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이라는 조선 성리학의 독특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중국 성리학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이 논쟁은 하늘로부터 품수받은 인간의 성(性)과 만물, 특히 금수(禽獸)의 성(性)이 같고 다름에 대하여 벌어진 것으로, 얼핏 흔히 성리학적인 공리공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단칠정론과 인심도심설이, 조선중기 이후 사림(士林)들이 풍속의 교화를 통한 예치(禮治)의 실현을 밑바탕에 깔고 전개하였던 인식론적 논변이라고 한다면, 인물성동이론은 조선후기 수도작(水稻作)의 확대라는 농업의 변화 및 상업의 발전이라는 변화를 반영하는 철학적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⁴⁷⁾ 그런 의미에서 성리학계들은 당면한 사회문제를 다루었던 사회철학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성리학자 스스로 실학(實學)이라 자처했듯이, 그들의 논의는 당시 현안에

146) 퇴계 연구가 성행하고, 조선 성리학의 중심 학파로 주목받는 이유는, 오히려 그 후손들의 현양사업의 결과라는 지적을 예로 들 수 있다.

147) 이는 지식사회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라 하겠으나, 이 글의 목적과는 다르므로 후일의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문제의식이란 반드시 경제적 효용성의 잣대로 재단되지는 않는다. 지금 누가 청소년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공리공론이라 비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성리학적 이론을 공리공론이라 비판하는 견해는, 미국적 토양의 극단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편견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조선후기에 성리학이 교조주의화하면서, 다양한 사상들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억압했던 상황을 왕조 몰락의 한 원인으로 보는 듯하다. 양명학이나 청대 고증학 등에 심취했던 일부 사상가들을 사회 변혁을 모색했던 사상가로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그러나 사상의 다원화를 진보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 자본주의 이념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현 상황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실제로 조선 성리학계 내부에서도 농업의 변화, 상공업의 발전, 나아가서 신분제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고, 그러한 논란의 일단이 인물성동이론으로 표출되었다.

영·정조 부흥기의 실험적 시도가 화성(華城)이라는 문화 유산을 남겼고, 사회사상으로는 북학파(北學派)를 배출하였다면, 그 철학적 기초는 남당과 외암을 축으로 하는 인물성 논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한 사상의 축이 내포지방의 두 곳[남당리와 외암리]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래에서는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율곡-사계-우암으로 이어지는 기호의 학통은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로 계승된다. 일찍이 벼슬을 단념하고 충청도 청풍현 황강(黃江)에 서재를 마련하여 학문과 교육에 힘썼던 그의 문인으로는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가 유명하였으니,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외암(巍巖) 이간(李柬),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화암(華巖) 이이근(李頤根),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 매봉(梅峰) 최징후(崔徵厚), 추담(秋潭) 성만징(成晩徵) 등이 그들이다.

인물성동이론은 바로 권상하의 문인인 남당과 외암 사이에서 촉발되었던 대논쟁이었다. 여기서 그 이론의 전반적인 면모에 관하여 살피는 것은 불가능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하며, 또한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작업이다. 따라서 외암과 남당에 한정하여 사회사상으로서의 함의를 살펴보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강문팔학사 가운데 외암 이간(1677-1737)은 관봉 현상벽과 더불어 인물성 동론에 속한다. 외암에 의하면, 인간과 동물은 모두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¹⁴⁸⁾ 다만 인간의 마음[心]은 명덕(明德)을 가지고 있어서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성인과 범인은 본연지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당 한원진(1682-1751)은 동물·인간·성인의 구별을 지각 능력의 차이에서 보고 있다. 성인은 맑은 기(氣)를 많이 타고 나서 지각 능력이 뛰어나고, 우둔한 자는 탁한 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이간을 지지한 학자들은 낙하(洛下)에 많이 살았던 관계로 흔히 낙학(洛學) 또는 낙론(洛論)이라 한다. 그리고 남당의 의견은 스승인 권상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면서 노론의 정론(正論)으로 인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학자들은 호중(湖中)에 많이 살았으므로 호학(湖學) 또는 호론(湖論)이라 한다.

호락논쟁(湖洛論爭)으로 지칭되는 이 논란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점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연구가 되었거니와,¹⁴⁹⁾ 중국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일대 변화가 일어나면서, 공·맹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정통에 속한다고 자부했던 조선 성리학계는 정체성의 확립이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148) 이하의 사상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종합한 결과이다. 이병도, 1989, 『韓國儒學史』, 아세아문화사; 김용덕, 1977, 『朝鮮後期思想史研究』, 을유문화사; 권정안 외, 1988, 『朝鮮朝 儒學思想의 研究』, 여강출판사; 최완기, 1993, 『韓國性理學의 脈』, 느티나무; 한국사상사연구회, 1996,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한국사상사연구회, 1994, 『인성물성론』, 한길사;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외 다수.

149)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이에 집권층에서는 기사(箕子)에서 이어지는 전통으로 볼 때, 조선의 문화는 곧 중화(中華)라 일컬을 수 있으며[小中華論], 춘추대의(春秋大義)를 위하여 청나라를 공격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호론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청나라의 문물은 여전히 중화에 속한다고 하면서 역외춘추론(域外春秋論)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으니, 낙론은 이러한 흐름과 닿아 있다.¹⁵⁰⁾

한편 대내적인 사회적 상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¹⁵¹⁾ 우선 성인과 범인의 차이에 관한 논의가 눈에 띈다. 이 논의를 확대하게 되면, 신분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노비의 신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역(役) 체계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¹⁵²⁾ 서울의 중서층(中庶層)과 평민까지도 스스로를 위항지사(委巷之士)로 자처하며 당당히 사족들과 교유(交遊)하던 상황도 이와

150) 유봉학은 호론(湖論)을 북벌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중화론(小中華論)의 이론적 확립과 연관시켰다. 유봉학, 1982,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사론』 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임원빈, 1994, 「남당 한원진의 인물성이론」, 한국사상사연구회, 1994, 『인성물성론』.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고수했던 낙론계의 북학파에서 역외춘추론(域外春秋論)을 거론하면서 청나라를 배우자는 태도를 표명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첨언한다면 이 시기에 정통론(正統論)과 연관되면서 기사(箕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단군(檀君)에 관한 관심도 같은 맥락이라 추측된다.

151) 현재 연구는 호락논쟁을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시키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논리는 일관성을 갖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대외적 정치논리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필자는 단지 단지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차후에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152) 현실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사(士)와 농공상(農工商)의 차이는 학자로서의 소양을 갖추었는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성인(聖人) 또는 군자(君子)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신분제와 연관된 논의이다. 김원행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신분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故屏溪之論 可謂不成說話矣 吾嘗以爲沮天下爲善之路者 必此說也 何則 人常自諉 氣質與聖人不同 故不能爲善也 又以爲本心與聖人不同 則益無以爲善矣 故曰 沮天下爲善之路者 必此說也. 朴胤源, 『近齋集』 권32 「溪湖金先生語錄」.

는 무관하지 않다.¹⁵³⁾

신분제와의 연관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인물성동론이 물성(物性)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 상수학(象數學)이나 경제지학(經濟之學) 등 대상세계에 관한 제 학문의 발전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낙학의 학맥에서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과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62-1836)을 필두로 하는 북학파가 출현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홍대용이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부정하고 지전설(地轉說)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이나, 박지원이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한 것은 모두 그러한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¹⁵⁴⁾

일부 학자들은 성리학과 북학파를 포함한 실학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북학파의 논리에서 나타나는 인물성동론적인 관점을 학맥과 당색(黨色)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었던 한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¹⁵⁵⁾ 바꾸어 말하면 성리학과 북학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유체계에 속하지만, 북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가계(家系) 또는 학맥(學脈) 때문에 인물성동론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학(實學)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하여 회의를 표하는 연구자들이 있거니와, 일찍이 대곡(大谷) 김석문(金錫文, 1658-1735)이 스승인 김창흡의

153) 실제로 정조의 참모본부라 할 수 있었던 규장각에는 많은 서열들이 진출하고 있었다.

154) 김태년은 낙론계의 심성론은 거의 도덕적 이치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여, 물성(物性) 연구로 나간 북학파와의 연관성을 부정하였다. 김태년, 1993, 「洛論系의 知覺論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연구대상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상의 단절을 논할 수는 없다.

155) 실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탈성리학적(脫性理學的) 경향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찾으려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증학, 양명학, 심지어는 서학(西學)을 망라한 여러 사상에 경도되었던 모든 학자들을 변혁이론가들로 규정짓게 되었다. 그 결과 주로 정권에서 밀려났던 남인계 학자들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들이 사상이 진보적인가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주제이다. 앞의 주에서 언급한 김태년의 견해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격려를 받으면서 상수학(象數學)을 연구하였고, 낙론계 종장인 미호 김원행도 제자인 황윤석(黃胤錫)의 상수학 연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을 살펴볼 때,¹⁵⁶⁾ 낙학과 북학의 학문적 계승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낙론계의 전통은 개화파로 이어진다. 구한말 개화파의 거두라 할 수 있는 박규수(朴珪壽, 1807-1877)가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서 『연암집』을 통하여 가학(家學)을 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화파와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낙론계의 논의가 대상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소중화론(小中華論)에 입각한 호론의 논의는 후대의 의병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는 벽이단론(關異端論)을 표방하여 개항에 반대하였으니, 그의 위정척사의 정신은 문인들에게 계승되어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1833-1901)과 유인석(柳麟錫, 1842-1915)으로 이어지게 된다.¹⁵⁷⁾ 병인양요에서 활약하였던 양헌수(梁憲洙) 역시 이항로의 문인이었다.

한편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스스로 남당의 학파[塘門]를 자처하며 한말 홍주의병을 주도한 인물들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¹⁵⁸⁾ 이설(李僊, 1850~1906), 김복한(金福漢, 1850~1924), 임한주(林翰周, 1871~1954)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¹⁵⁹⁾

이들은 지방 유생들과 접촉을 통하여 의병활동을 고취시켰으며, 당시 홍주 목사 (후에는 관찰사)였던 이승우를 설득하여 의병에 참여케 만들었고,¹⁶⁰⁾ 김복한은 최초 거사 당시 아무런 이의없이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승우의 변신으로 1차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서 한성으로 압송되었다 풀려난 이설이 즉시

156)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p.p.82-83.

157) 1913년 요동에 있을 때 작성한 『宇宙問答』에는 송시열에서 연원되는 소중화론이 잘 드러나 있다. 김상기, 1997,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p.p.77-78 참조.

158) 김상기는 이들을 남당학파라 하였다. 이하의 논의는 그의 연구성과에 입각한 것이다. 김상기, 1997,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p.p.77-78 참조.

159) 임한주는 홍주의병의 전말을 기록한 「洪陽紀事」의 찬자이다.

160) 후일 이승우의 배신으로 홍주의병은 3일만에 불발로 끝을 맺게 된다. 이승우 외에도 서산·남양·대흥군수도 거사에 참여하였으니, 관군이 참여는 의병사에 흔치 않았던 사례에 속한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한원진의 묘소에 제문을 바쳤다는 사실은,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남당을 존중하는 유생들의 발의에 따라 관군은 물론이요 부보상(負祿商)들도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홍주의병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아울러 홍주부(洪州府)에 속했던 거의 모든 군(郡)에서 호응했던 바, 이러한 사실들은 남당 한원진의 사상적 영향력을 짐작케 해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선후기 사상의 흐름을 개괄해 볼 때, 호락논쟁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건이며, 또한 외암과 남당도 간단한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호락논쟁 자체에 대한 관심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조하다. 이간은 이도(李棹)를 시조로 삼는 전의이씨에서 분파된 예안이씨 중시조 예안백(禮安伯) 이혼(李混)의 14세손이다. 현재 이혼의 9세손 이연(李挺)이 외암마을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0년까지도 전체 64가구 중에서 36가구가 예안이씨인 동족마을에 속한다.¹⁶¹⁾ 그러나 외암마을은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외암이 후학들을 교육했다고 하는 관선재(觀善齋)의 경우, 대원군 집정기에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마곡사의 불상을 안치하면서 강당사(講堂寺)라는 이름의 사찰로 변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서원 또는 사가(私家) 형태이며, 지금도 본채에는 인지현(仁智軒)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법당 3칸 가운데 한 칸에는 외암집(巍巖集) 판본이 보관되어 있어서,¹⁶²⁾ 외암 선생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재 관선재 뒷산을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후대에 와서 “이간과 한원진 사이의 논변에 의하여 현저하게 드러났으나, 호학(湖學)은 권상하에서 시작하여 한원진이 계승하고, 낙학(洛學)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에게서 본원한 것을 도암(陶庵) 이재(李穡)가 이었다.”¹⁶³⁾고 하는 윤색이 가해졌다.

161) 아산군, 1990, 『牙山外岩마을 保存方案 學術調查研究報告書』.

162) 충청남도 아산군·공주대학교박물관, 1993, 『牙山의 文化遺蹟』, p.p.283-286.

163) 장지연, 『조선유교연원』; 현상윤, 1982, 『조선유학사』, 현음사, p.277.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그것은 외암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주로 김창협과 김창흡을 잇는 김원행(金元行)·박윤원·홍직필 등으로 주로 서울에 사는 노론 낙론(洛論) 계열이었고, 또한 홍대용·박지원 등 북학파의 주요 인물들이 노론 낙론계의 종장(宗長)이었던 김원행과 사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외암 이간의 학맥이 두드러지지 못한 관계로 학통(學統)을 논함에 있어서도 소외되었던 셈이다. 더욱이 김창협이 부친이 양송(兩宋)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김수항(金壽恒)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¹⁶⁴⁾

이러한 연유로 외암 이간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조하다. 외암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계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단지 남당과 연관된 부분에 한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암에 비하여 남당 한원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우거했던 남당리의 상황은 더욱 한심하다. 외암마을에는 지금까지 후손들이 거주하는 관계로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주민들 또한 외암에 관하여 다소나마 알고 있는 편이다. 반면에 남당리 주민들에게 남당은 낯선 인물이며, 다만 그를 향사하는 양곡사(陽谷祠)가 양곡리에 있을 뿐이다.

남당과 함께 호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의 세거지 가야동[예산군 덕산면 가야산 계곡]의 유적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 남연군 묘역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 암벽에는 ‘玉屏溪’라는 명문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그 언덕 위 송림에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 병계 집안의 사패지였던 이곳이 고종조에 이르러 홍선대원군 집안의 사패지로 바뀌면서 이거(移居)한 탓인지, 일부 향토사학자들만이 관심을 가질 뿐이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명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권문세가의 후손이었으니, 증조부 한신(漢薰)은 영조

164) 정통은 후대의 권력에 의하여 확립된다는 실상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학자들까지도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의 부마(駙馬)였으며, 한신의 8촌 형제인 한구(漢耆)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아버지가 된다. 서산 한다리[太橋] 마을에 세거한다고 하여 한다리김씨로 불리는 경주김씨에 대해서는 개심사(開心寺)와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어서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으니,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까닭에 1819년 그가 문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실상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의 추사고택(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3호)은 증조부 한신이 건립했다.

추사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던 탓에 북학파의 거두 박제가(朴齊家)의 눈에 띄어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일찍이 양부(養父) 김노영(金魯永)이 연암 박지원이나 담헌 홍대용과 교유하였으니, 중서(中庶) 박제가의 문하로 들어가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일찍이 한다리김씨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배경으로 벽파(僻派)정권을 이끌었던 척족(戚族)이었다. 그러나 정순왕후의 오라비 김구주(金龜柱)가 1784년에 유배지에서 죽고 1805년에는 정순왕후가 타계하였으니, 추사가 성장할 당시는 척족으로서의 위명(威名)은 많이 퇴색한 때였다. 김노영이 박지원과 교유한 점, 김정희가 박제가의 문하로 들어간 사실 등은 이미 청조(淸朝)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시대상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가문의 실세(失勢)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¹⁶⁵⁾

추사의 학문의 성향은 대부분의 북학파가 그러하듯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가운데 고증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아버지를 수행하여 연경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당대의 거유 옹방강(翁方綱)·완원(阮元) 등과 교유하는 가운데, 금석학·사학·문자학 등에 큰 발전을 이루어 귀국 후에는 연구에 몰두하여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예술 분야에서도 천재성을 발휘하였으니, 시·서·화 일치라는 문인 취향에 충실하면서 추사체라는 독창적인

165) 추사는 세도정치와 관련하여 풍양조씨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동김씨라고도 하는 안동김씨 일문이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벽파 정권을 패퇴시킨 후에는 풍양조씨가 거의 유일한 견제세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사가 풍양조씨와 접촉함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체를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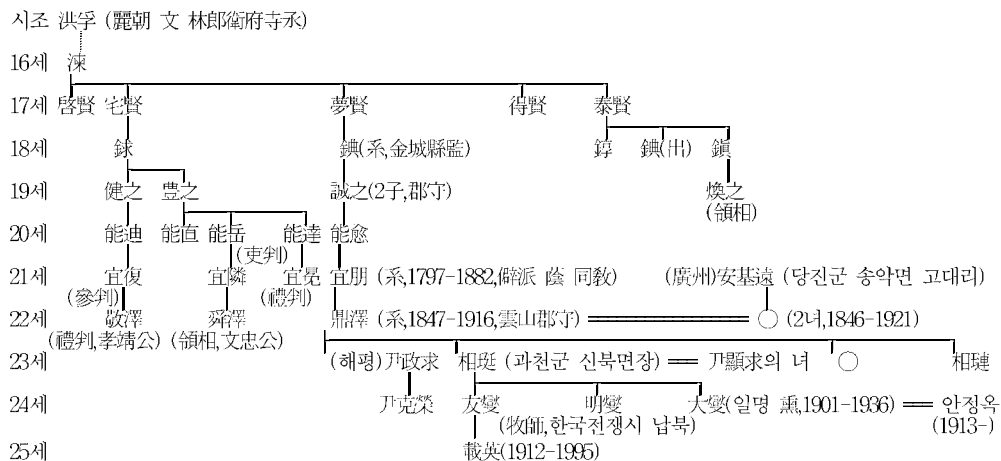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전환기를 살아간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선각자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낙론에서 개화파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의 역할이라 하겠다. 실제로 그의 문하에서 조면호(趙冕鎬)·신관호(申觀浩)·이하응(李晸應, 興宣大院君)·민태호(閔台鎬)·민규호(閔奎鎬) 등 관료학자와姜위(姜瑋)·오경석(吳慶錫) 등 위항(委巷) 지식인이 나와서 19세기 중반 이후 개화지식인의 일맥을 이루었다.¹⁶⁶⁾

심훈(沈熏, 본명 沈大燮, 1901~1936)을 조선조의 명현들과 함께 논의함은 그리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의 활동시기가 일제강점기로서, 스스로 신학문과 신사상에 심취한 인물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의 문학을 다룰 공간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이 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막상 심훈의 가계를 살펴보면 북학과-개화파로 이어지는 학맥과 연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의 논의와 무관하지도 않을 듯 싶다.¹⁶⁷⁾

166) 유봉학, 1995,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p.p.40~44.

167) 심훈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煥之는 정조조 노론 벽파의 거두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후대에도 안동김씨측으로 기운 宜冕을 제외하고는 모두 벽파에 속한다. 벽파에 속한다는 사실은 현재 생존해 있는 후손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심훈의 방계는 안동김씨 세도기에 정계에서 축출당한 노론 벽파에 속하며, 이점에서 추사와는 같은 처지에 속한다. 고종의 생부(生父) 이하응이 추사의 문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심훈의 방계에서 고종조에 대거 벼슬길에 나서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훈의 장조카 집에 남아 있는 추사의 편액은 그러한 교유의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심훈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실은 만년에 저작활동을 벌였던 마을 자체가 그의 대표작 『상록수』의 무대였다는 점이다. 그의 심훈과 거의 동년배였던 장조카 재영은, 당시를 풍미했던 농촌계몽운동에 심취하여 선대(先代)의 농장이 있었던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로 낙향하였고, 토지를 소작인에게 무상분배하고 공동경작회를 결성하는 등 농촌활동을 벌였으며, 심훈을 설득하여 부곡리로 모셔왔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소설 『상록수』는 부곡리의 농촌활동을 배경으로 경기도 안산의 몇 사건을 덧붙인 작품이라 한다.

과거 부곡리와 이웃한 한진리 포구는 내포의 관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아산만 대교(大橋)가 부곡리를 통과하게 되었으니, 관문이 바뀐 셈이다.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되었던 마을을 통하여 충청도로 진입하게 될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충분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듯하다.

2. 충절인 관계 유적

충절을 미덕으로 삼지 않는 사회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충·효를 사회윤리의 근간으로 삼았던 유교에서 충절은 불변의 준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도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건국한 조선왕조에서 충절은 만개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왕조를 흥하게 한 원동력도 성리학이요, 망국으로 이끈 원인도 성리학에서 연원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모든 공과(功過)가 궁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극적으로 성리학에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할 부분은, 국난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탱해 주었던 힘으로써 충절이다. 바로 그러한 힘이 있었기에 역사상 드물게 500년이 넘게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충절의 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했다. 그 대표적인 흐름을 보면, 조선왕조의 개국에 즈음한 시기에는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정신으로, 세조조에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임란과 호란을 맞이해서는 나라를 지킨 의병으로, 또 다시 조선말에는 척사(斥邪)의 기치를 내건 의병으로 면면히 이어졌다.

사실 정권을 장악한 정치세력에 반대했던 인물들을 충절의 화신으로 추앙했던 논리는 유교이념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선왕조 개창에 반대했던 정몽주와 길재, 세조의 정권 찬탈에 죽음으로 항거했던 사육신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들이다. 나아가서 현재까지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니, 유교가 사회이념으로서 위상을 상실한 지금까지도 그 관념은 살아남아 있으며, 또한 현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선조에 전 사회적으로 충효를 강조했으니, 충절인이 배출되기는 어느 지방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소중화론(小中華論)을 기치로 문화적 자존(自尊)을 천명했던 호론(湖論)에서 출발하여 서세동점의 시기에 척사(斥邪) 운동과 의병 활동은 내포의 전통으로 내세움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한용운 선사,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등은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인물들이며, 그 전통을 최영 장군과 성삼문, 나아가서 백제의 최후 저항 근거지였던 임진성과 연결시키려는 주민들의 인식 또한 동일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내포의 충절인의 첫머리는 최영 장군이니, 성리학을 내걸었던 조선왕조의 첫 단추가 이 지방과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영(崔瑩, 1316~1388) 장군의 행적은 새삼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려 말 이성계 등과 더불어 여진족과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웠던 최영은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진세력에게 패배함으로써 고려와 함께 사라져 간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충절을 높이 산 이성계가 왕조 개국 6년만에 무민(武愍)이라

는 시호를 내렸으니, 정몽주와 함께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충절로 기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영은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출생하였다고 전해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삼봉산(三峯山)가운데 봉우리에 최영사(崔瑩祠)가 있다고 하며,¹⁶⁸⁾ 1871년에 간행된 『호서읍지』에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19세기 후반까지 사우(祠宇)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⁶⁹⁾ 그러나 주민들이 기복(祈福)을 드리는 장소였던 탓인지, 일제강점기에는 미신사(迷信祠)로 간주되었다.¹⁷⁰⁾

조선조의 충절은 사육신과 더불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성삼문이 홍성과 인연을 맺고 있다. 여기서 매죽헌 성삼문이 최영과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묘한 인연부터 시작해 보자.¹⁷¹⁾ 노은동은 성삼문의 외향(外鄕)이었는데,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처럼 1418년 외조부인 박첨(朴瞻)의 집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¹⁷²⁾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한 후에도, 부인 연안김씨는 관비(官婢)의 몸으로 방안에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를 올려다고 한다. 부인의 별세 후에는 선생의 첫째 사위인 박임경(朴臨卿)의 가문에서 봉사(奉祀)하였으나, 그 집안마

168) 三峯山 在州東二十三里 中峯有崔瑩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홍주목 산천조.

169) 崔瑩 生於本州赤洞里 …… 鄉人爲立祠 至今禱祀不絕. 『호서읍지』 홍주목 古蹟條.

170) 1910년에 간행된 『홍성군지』에는 노은리에 계봉당(鷄峯堂)이 있다고 되어 있다.

鷄峯堂 在洪北面 魯恩里 敷地二坪 建物一坪 他洞堂山堂. 『홍성군지』 (한국인문과 학원 영인본, 한국근대읍지 6) 迷信祠條. 이 군지에는 일월산에 위치한 洪可臣廟 역시 기복을 위한 기도장소로 본 듯, 迷信祠條에 포함시키고 있다. 계봉당을 최영의 사우로 단정하지는 못하나,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崔瑩祠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171) 노은리는 고려조에는 赤洞, 조선조에는 金谷이라 불리웠으며, 우암 송시열이 성삼문을 향사하는 서원을 건립하면서 노은동(魯恩洞)으로 개명되었다. 인근에서는 ‘赤洞之武 金谷之文’이라 하는데, 실상 같은 마을을 칭하는 것이다.

172) 현재 노은서원유허비와 성선생유허비가 있는 곳이 최영과 성삼문이 태어난 집이 있던 장소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성삼문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충청남도 서원·사우지』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미간행)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저 절손(絶孫)이 되면서 매죽헌 선생의 위패를 인왕산에 묻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1672년 이 위패를 발견하여 노은동으로 옮겨 봉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은동이 본인의 출생지이며, 동시에 아버지 성승 내외 및 부인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성삼문의 위판이 봉안되면서 향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685년에는 박팽년을 주향, 성삼문을 차향으로 하여, 이개·유성원·하위지·유응부를 배향하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은 별사하게 되었으며, 1692년에는 마침내 녹운(祿雲)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기에 이르렀다. 1712년에는 노운(魯雲)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1769년에는 노은(魯恩)이라는 이름으로 3차에 걸친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1871년에 노은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고, 사육신의 위패를 매안하였으니, 그것이 지금의 노은단이다. 현재 그 자리에는 노은서원유허비와 함께 성선생유허비(문화재자료 164호)가 남아 있다. 성선생유허비는 송시열이 찬(撰)하고, 김진상(金鎭商)이 서(書)하고, 유척기(兪拓基)가 전(篆)했다.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가로서 만해 한용운(1879~1944)의 면모는 일찍이 세인의 관심이 되었다. 그의 문학관에서도 독립에 대한 염원은 그 대로 투영되어 있으니, 1926년에 간행된 대표적인 시집 『님의 침묵』도 예외는 아니다. 『님의 침묵』은 전체 구도가 ‘이별에서 시작하여, 갈등-희망을 거쳐 만남으로 종결되는’ 한편의 연작시로 볼 수 있는 바, 식민지시대의 우울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세계인식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해방과 더불어 참된 낙원이 도래하리라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독립사상을 문학에 반영하는 방식은 불교적 사유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해는 불교 자체의 자성과 혁신을 설파하고 있으니, 그 대표적인 업적이 『불교유신론』이다. 이러한 저작을 통하여 우선 친일적 불교종파인 원종(圓宗)을 중심으로 총독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찰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저항하여 중앙의 통제기구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폈으니, 후대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에 불교총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둘째는 산신당과 칠성단을 비롯한 염불당의 폐지를 비롯한 불교의식의 개혁이며, 셋째는 대중적 실천을 위한 청년불교의 제창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만공 선사와 교류하면서 독립운동과 근대 한국 선종의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만해의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박철동이다. 그러나 막상 처음으로 설악산 오세암에서 입산하고 27세에 설악산 백담사에서 정식으로 득도(得度)한 이후 전국 각지를 다녔으나, 고향에서의 행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음이 아쉬움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생가터(도지정 기념물 제75호)가 남아 있고, 만해제(卍海祭)가 개최되고 있으니, 그런대로 아쉬움을 달랠 만하다.

일제강점기에 만주를 배경으로 독립군을 지휘하였던 김좌진(1889~1930) 장군은 홍성군 갈산면 향상리에서 출생하였다. 병자호란 당시에 강화도에서 순절했던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인 갈산의 안동김씨, 속칭 갈미김씨에서는 홍주의병 당시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던 김복한(金福漢)이 있었으니, 대대로 충절을 배출한 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좌진은 1918년에 만주에서 광복군에 가담한 후,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의 흉탄에 순국하기까지 오로지 무장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던 독립운동가였다. 그 가운데 1920년 10월 청산리에서 일본군 3천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린 청산리전투는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으로 기록되는 쾌거였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으며,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생가터(충청남도 기념물 제76호)는 1992년에 복원하였다.

매헌 윤봉길 의사(1908-1932)의 의거 또한 재론할 필요가 없다. 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목바리’ 마을에서 출생한 의사는 1930년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뒤,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을 찾아가 독립운동을 위하여 몸을 바칠 것을 자원하였다. 그 후 김구의 주관 하에 이동녕·이시영·조소앙 등과 협의를 거쳐, 1932년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 겸 진승축하기념식에서 폭탄을 투척하였고,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상해 거류민단장 가와바다 등을 즉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사시키는 거사를 성공시켰다. 거사 직후에 현장에서 체포당한 의사는, 그 해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의사를 기리기 위하여 1962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으며, 1968년에는 충의사(忠義祠)를 창건하였고, 1972년에는 사적 제229호로 지정하였다. 현재 충의사 기념관에는 김구 선생과 작별하면서 바꾸었다고 하는 회중시계를 비롯하여 생전에 사용하였던 10종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 충의사 외에도 의사가 출생하고 성장했던 두 채의 가옥이 복원되어 있다.

윤봉길 의사를 모신 충의사는 가야산자락에 있는데, 그 인근은 수덕사를 비롯한 불교유적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예덕상무사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곳이다. 또한 불과 1km가 되지 않는 지점에 유래가 오랜 덕산온천이 있고, 최근에 다시 세심천온천이 개발되었다.

위에서 살핀 내포지방의 문화자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잠정적으로나마 ① 바다, ② 불교문화, ③ 선비문화라는 주제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각 주제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바다의 의미는, 특히 휴가철의 열정이라는, 일상사로부터의 해방감이다. 도시민들은 휴가와 백사장이라는 상징을 신체의 노출과 함께 하는 가장 적나라한 감정 표출로 해석한다. 물론 그에 따르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나마 최근에는 대세에 밀려 거의 설득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걱정예 몰입하여 정신적 재충전을 꾀하려는 욕구에 의하여 전통적 윤리라는 저항도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다의 걱정과는 반대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산사(山寺)의 이미지는 탈속(脫俗)에 따르는 청량감이다. 복잡한 정신적 중압감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불교의 무소유와 무욕(無慾)의 논리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서 충분하다. 흔히 풀잎에 맺힌 물방울로 표현되는 산사의 생활은 무아(無我)로써 긴장의 끈을 풀게 하는 셈이다.

한편 성리학 이후 한국인에게 있어서 선비는 곧고 깨끗한 인간형으로 자리

제 4 장 내포의 관광자원 및 개발 가능성

잡았다. 융통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함께 하지만, 청빈한 선비나 청백리 관료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즉 일상생활의 기준으로서의 선비상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자원의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서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역사적 관광자원이 많이 남아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인 조사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글은 단지 현행 지정문화재 위주의 관광개발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제 5 장 관광자원의 활용전략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① 관광개발의 방향, ② 순차적인 개발 일정, ③ 관광거점, ④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요자금의 규모나 조달방식 등의 문제 또한 중요한 논점이 되겠으나, 필자의 전공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제1절 관광개발의 방향에 관한 제언

최근 한국관광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종래의 먹고 마시고 노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답사여행을 즐기는 등의 방식은 분명히 진일보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학적 논의에 머물고 있는 감각적 취향의 답사여행 역시 곧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눈으로 느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문화관광을 준비하여야 할 듯하다.

지금까지 내포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혹자는 교육적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골치 아픈 곳을 누가 찾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홀가분하게 떠난다는 사실은, 관광객을 맞을 준비도 부실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관광객들을 철저하게 몰입시킬 수 있으려면, 그 준비는 보다 주도면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의 독자는 관광객이 아니라, 관광개발 담당자들이다.

설령 관광객들을 독자로 삼는다고 해도, 역사 속의 여행은 현실과는 다르

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국적이며, 최소한 개인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호기심의 세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채로 — 아주 부분적인 지적 호기심만으로도 충분히 감탄하는 것이다. 마치 먹고 마시는 여행이 단순한 육체적 오락이라면, 역사기행은 고도의 3차원적 게임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일상사와는 구별되는 세계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기꺼이 심취·몰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앞에서 내포의 주제로 잡은 항목은 ① 태안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다자원, ② 가야산 주변의 불교자원, ③ 조선후기 명현(名賢)과 충절인들로 특징지어지는 유교유적으로 대별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바다는 곧 (특히 휴가철의) 열정과 연관되고 있으므로, 해양레포츠단지로서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의 질서를 깨는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고요한 침잠을 즐기겠다고 바다로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그 반증이라 하겠다.

따라서 역사적 자원이라 할지라도 복원하고 경건한 태도로 관람하게 하는 개발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오히려 들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역사자원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바다를 소재로 한 관광자원이 모두 동적인 활동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는 잔잔함은, 무엇에도 비길 바 없는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막간이라 할 수 있는 짧은 시간대의 휴식에 불과하다. 또한 휴식 시간대에도 격정에 휩싸이고 싶은 잠재적 욕구는 여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다를 찾는 방문객을 유인하려면 열정이라는 주조(主調)는 잃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내포 바다의 개발은 어떤 방향이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내포의 비교우위를 논해야 할 문제이다. 이 일대의 자연자원을 개괄해 보면, 드넓게 발달한 갯벌과 완만한 경사의 백사장, 점점이 떠있는 섬, 그리고 황홀한 서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해의 낙조 등을 들 수 있다.

서해안의 백사장은 동해안 개발 이전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꼽혔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그 명성이 퇴색되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사실에 덧붙여서, 동해는 청정지역이라는 편견이 널리 퍼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나마 경기도 해안은 이미 공업단지로 편입되었고, 남쪽의 바다는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한때 간척사업의 후보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한 가운데 동해안의 백사장과 일출은 휴가철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해수욕장이 반드시 백사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백사장은 흰색에 더해지는 시각적 효과가 클 뿐이다. 만일 모래는 곱고 흙은 더럽다고 하는 일반의 인식만 불식된다,면 갯벌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여지가 많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갯벌의 생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태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흙의 미용효과까지 논하는 단계이다. 이제 갯벌의 활용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갯벌은 어촌의 일터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¹⁷³⁾ 도시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놀이터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서해안의 백사장도 동해안에 비하여 뒤질 바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동해안에 비하여 경사도 완만하여 물놀이에 유리하며, 더욱이 곳곳에 흩어진 섬들은 동해안에서 볼 수 없는 자원이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무인도에 휴양지를 조성하고, 요트관광을 비롯한 관광상품만 개발한다면 훌륭한 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동해안의 가장 큰 장점은 찬란한 일출 광경에 있다. 그러나 서해안에는 낙조가 있다. 사실 일출은 곧 나른해지는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반면에 낙조와 그 뒤를 잇는 밤 풍경이야말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에 걸맞다고 할 것이다.¹⁷⁴⁾

173) 사실 갯벌이 어촌의 중요한 생활의 터전이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

지금까지 유람선의 운항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해상을 통한 관광이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일몰과 함께 맞추어 종착지에 도착하는 항해는 방문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0년경까지도 내포 일원의 주민들이 뱃길을 이용하여 수도권을 왕래하였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일원으로 이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을 왕복하는 해상항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여기서 주요 경유지는 과거에 기착하였던 포구와 최근의 개발 계획을 고려하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¹⁷⁵⁾ 국내관광에서 최대의 소비지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곧장 승선하여 관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한편 해상이라는 자원에 특유의 향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는 역사자원일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이전 어업은 서남해안의 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어렴(魚鹽)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서해안 어촌은 활용 가능한 전통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어촌을 모방한 숙박시설은 물론이요, 갯벌에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어전(漁箭)·주목망이나 독살[石防簾]을 설치하여 내방객으로 하여금 직접 어로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또는 전통 염밭[鹽田]을 조성하여 꽃소금[花鹽] 생산을 재연하고, 특산물로 생산·판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⁷⁶⁾ 예를 들어,

174)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서해안에서 일출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75) 일제강점기 이후 둔포(아산시 둔포면)에서 어청도(전라북도 옥구군)에 이르는 포구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가는 기선이 운항하였다. 그 중 내포에서 포구로 이용되고 있는 곳으로는 한진리(당진군 송악면), 삼길포(서산시 대산읍), 만대(태안군 이원면), 고파지도(서산시 팔봉면), 안흥(태안군 근흥면), 영목(태안군 고남면), 원산도(보령시 오천면), 보령 등을 꼽을 수 있다. 명천포(서산시 성연면) 등의 포구는 방조제의 축조로 내륙으로 변했다. 현재 삼길포나 안흥항 등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항만 개발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므로, 유람선의 운항이라는 변수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운하, 백사장해수욕장 및 포구, 황도, 간월암, 꽃지, 대천해수욕장 등과 같은 관광지(또는 관광개발 후보지) 등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76) 태안 소금은 일제시대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한국수산지』에는 ‘태안염(泰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단순히 갯벌에서 조개나 낙지 등을 채취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살에 막혀서 물웅덩이 갇힌 물고기를 손으로 잡는 행사는 내방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¹⁷⁷⁾ 또한 꽃소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연료로는 폐목재나 간벌목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이후 내포 일원에도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이주한 곳이 많다. 그들의 작업광경[물질]도 볼거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한 숙박시설이라면 흔히 농·어·산촌을 모방하는 배치가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각(旅閣)이나 객주(客主)의 가옥과 흡사한 주막거리 형태의 휴게소, 나아가서 읍성(邑城)이나 궁성(宮城)을 모방한 관광단지의 조성도

安鹽은 3월~4월 그리고 8월~11월 사이에 썰물 때[小潮時]에 조업을 하여, 멀리 강경, 은진, 인천, 개성 등지로 운송하는데, 나주염(羅州鹽)과 함께 이름이 있으며, ……」라고 하였다. 農商工部水產局, 1910, 『韓國水產誌』 3권. p. 776, p. 790. 특히 안면도는 이북면(梨北面, 현재의 이원면)과 함께 종사자·면적·생산량에서 1·2위를 다투던 곳이었다.

<1927년 당시 태안군의 제염업 실태>

面名	製鹽者數(人)			鹽釜數(個)			製鹽面積 (坪)	1년 製造高	
	主業	兼業	計	主業	兼業	計		斤數(斤)	價格(円)
안면		117	117		18	18	114,000	837,000	25,110
남면		48	48		8	8	8,500	101,000	3,030
태안	30		30	6		6	2,400	36,000	1,080
근흥		96	96		12	12	36,000	120,000	3,600
소원		22	22		22	22	66,200	47,000	1,410
원북	16	43	59	12		12	20,000	20,800	624
이북	100	200	300	25		25	82,500	1,108,300	33,249
계	146	526	672	43	60	103	329,600	2,270,100	68,103

『韓國近代邑誌』 3, 충청도 3, 『瑞山郡誌』.

177) 어획고를 높이거나 노동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독살 등을 설치할 때 어류가 한곳으로 몰리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군데군데 물웅덩이를 만들어 물고기가 갇히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현재 어족자원이 모자라 해변까지 물고기가 회유(回遊)하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 될 듯하다. 그러나 오히려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안 어류의 치어를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못할 바가 아니다. 과거 해변지역은 곧 변방으로 곳곳에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국마장으로 활용된 곳도 많았다. 따라서 성곽을 갖춘 병영 마을이나, 국마장을 모방한 승마장 또는 경마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꽃박람회가 예정된 태안 안면읍 꽃지 또는 이웃한 방포 마을, 안흥성, 영목 등지에 어촌 또는 병영 마을을 흉내낸 숙박시설을 만들거나, 장기적으로는 원산도에 진보(鎭堡) 및 국마장 시설을 복원하면서 승마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민속마을과는 달리 문화재도 아니고 관람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태의 복원을 고집하여 방문객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 등 편의시설은 외관상의 분장효과를 노리는 선에서 그치고, 실내는 쾌적한 현대적 거주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¹⁷⁸⁾

보령시의 수영(水營), 안흥성, 원산진 등을 비롯한 관방유적과 관련해서는 군사 방어 및 조운(漕運)의 수단이었던 병·조선(兵漕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관옥선·거북선[龜船]¹⁷⁹⁾ 등의 고증·제작은 학문적 의의도 있거니와, 홍보효과도 크고, 다양한 활용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전통 예능을 선상에서 공연을 하는 유람선,¹⁸⁰⁾ 한국의 수군(水軍)과 조운(漕運) 관계 유적을 전시하는 함상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비용의 문제가 관건이기는 하겠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통적인 해상 진법(陣法)을 고증 및 재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안면도 꽃지의 낙조는 이미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안면도의 송림, 천수만의 철새, 포구의 정경 등을 주제로 사

178)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조성된 해변가 어촌풍 호텔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79) 거북선은 조선초기부터 있었으며, 이순신 장군의 전유물도 아니었다는 사실은 학계의 상식에 속하므로, 세세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다.

180) 일반적으로 강변에서 많이 행해지는 했지만, 바다에서라고 하여 전통시대 기생의 선상 공연을 선보이지 못할 바는 아니다. 전통시대 기생의 문학·예술적 재능의 소개함으로써 전통시대의 수준높은 예술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조선조 기생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부분적으로 불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꽃박람회 기간에 맞추어서 안면도와 인근의 포구를 잇는 선박을 운항하는 방안도, 과거의 '장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면서, 방문객의 수송 분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관광자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내포 바다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른 지역과의 비교 우위이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다른 종류의 자원을 향유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은 바다를 향하는 길에도 다른 볼거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 속초-강릉 일대가 각광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한의 명산 설악산을 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휴가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즐긴 후에, 청량한 기운이 감도는 설악산을 탐방하는 길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내포 해변에 인접한 산악은 설악산에 미치지 못한다. 굳이 들자면 안면도와 보령에 있는 휴양림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황장목으로 우거진 안면도의 송림은 해수욕장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곳이다. 따라서 송림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생동물을 방사한다면, 나름대로의 매력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해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오밀조밀한 해안선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관광코스의 개발은 큰 장점이라 생각된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도보로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섬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채취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계절적 차이는 있겠지만, 겨울철 철새탐방을 통하여 이 일대에 대한 홍보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기대하는 볼거리가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지역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불교유적과 온천자원을 안고 있는 가야산 자락이다. 앞에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을 바다자원과는 별개로 분류하였지만, 실상 바다와의 대비를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 5 장 관광자원의 활용전략

한국인들은 대개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사(山寺)라는 사실만으로도 청량함을 느낀다. 각박한 도시생활에 쫓기듯이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무소유를 지향하는 삶은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사찰들이 한결같이 역사적 유적과 함께 수많은 일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포의 불교유적이 알려지지 않는 점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고대에는 중국을 통한 불교 전래의 통로였으며, 근대 불교를 특징짓는 선종(禪宗)의 부흥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일대에는 지금도 수덕사·개심사 등 유수의 사찰이 남아 있으며, 도처에 마애불과 미륵이 널려 있다. 불교유적 외에도 가야산은 고종황제 일가의 묘역으로서 풍수설에서 손꼽히는 천하의 명당이었으며, 덕산온천은 잘 알려진 온천관광지이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육상도로를 위주로 하는 교통체계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부산을 잇는 선이 동맥 역할을 하였고, 또한 서울-광주 (또는 목포) 또는 서울-강릉을 잇는 간선도로까지 정비되는 가운데,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소외되었다. 내포의 자원이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통의 불편함 때문이었던 셈이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한 구불구불한 국도를 가는 도중에 곳곳에서 교통체증을 빚어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방문객을 유치하기란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의 자원은 이미 망실되었고, 때로는 발굴되지 못하여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해관계에 때문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강점일 수 있다. 산사(山寺)를 비롯한 불교유적의 매력이 속세의 이해관계에는 초연한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제 널리 알려지지 못한 자원을 찾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야 될 때라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통 여건의 개선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알려진 자원만으로도 당장에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고찰(古刹) 자체가 문화재로서 사람들을 불러모으지만, 산사의 매력은 고즈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덕함에 있으며, 불교사상의 핵심은 정신수양이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만 개발된다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신적 수련장으로서의 매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유적을 논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사람들을 찾아들게 해야 한다는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출입과 함께 번잡해진다는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이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려는 입안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중을 지향하려는 불교계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질수록 생명력을 상실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일반에게 다가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승려의 수도·정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실상 몇몇 승려만의 수도처로는 외진 곳에 위치한 암자만으로 족하며, 모두의 유산이기도 한 본찰(本刹)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찰을 비롯한 내포의 불교유적은 다른 거찰(巨刹)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볼 때, 내포의 불교는 단연 빼어나다고 할 것이다. 수덕사, 개심사, 보원사지, 서산 마애삼존불 등등은 말그대로 찬란하다고 평가받기에 충분한 불교유산들이다. 다른 불교유적에 뒤진다는 평가는 단지 일반에게 알려진 정도가 낮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내포불교의 강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불교왕국이 존재했다는 전설¹⁸¹⁾이 전하는 지역답게 가야산 자락을 중심으로 풍부한 불교유적지가 산재했으며, 이 유적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그 타개책이 될 수 있다. 이 점은 다른 지역이 따르지 못할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야산의 지맥인 송덕산에 자리잡은 고찰 수덕사를 비롯한 암자들을 비롯하여, 개심사·일락사·문수사·부석사·간월암 등의 현존 사찰들,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보원사지·가야사지·성주사지 등의 절터들, 불교의 유입 경로로 추정하는 지표로 평가받는 마애불들(태안 백화산, 서산 용현계곡, 예산

181) 서산시 운산면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하는 상왕(象王) 전설을 말한다.

화전리, 홍성 용봉산), 그리고 수 십기가 넘는 돌미륵들이 가야산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유산 탐방코스로는 이만한 곳이 드문 편이라 할 수 있다.

가야산의 북록(北麓)을 별도로 상왕산이라 부르기도 하거니와, ‘백제의 미소’라 칭해지는 서산 마애삼존불이 있는 서산시 운산면의 용현계곡은 불교왕국을 세웠다는 상왕(象王)의 전설이 깃든 곳이다. 상왕이 인장(印章)을 감추었다고 하는 인바위, 상왕이 묻힌 곳이라는 무릉대, 상왕이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대성과 면남산¹⁸²⁾ 등은 모두 상왕 전설의 한 부분들을 이룬다. ‘가야(伽耶)’, ‘상(象)’ 등의 어휘 자체가 이미 불교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처럼 불교와의 깊은 인연 탓에, 주민들과의 면접만으로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지(寺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일대의 소규모 사찰마다 가야산에 있던 미륵, 수덕사의 탱화 등을 옮겨서 봉안했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야산 주변의 불교유산은 지금도 계속하여 망실되고 있으며, 발굴 및 보존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명도가 높은 유산들을 중심으로 불교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킨 후에,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면서 추가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환류적(還流的)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불교탐방코스의 개발과 함께, 사찰을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수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최근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

182) 서산 마애삼존불이 있는 곳에서 보원사지까지 이르는 동쪽 산 정상부에 위치한 둘레 약 3.5km의 대규모 석성(石城)을 주민들은 대성이라 부른다.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되어서 원래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성의 남동쪽에서 보면 보원사지가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바, 보원사와 무관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성은 본 연구원에서 1998년에 『문화유적분포지도(서산시)』를 제작하기 위하여 현장을 다니는 도중에 필자가 주민과의 면접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현재 순복음교회의 건축부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성곽 내부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면서 일반인들이 참선(參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이 신비주의적 수련방법에 빠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도 불교의 수련방식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정신 수련장으로 활용할 경우, 가야산 주변의 산사는 충분한 경쟁력으로 가지고 있다. 고찰(古刹)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손꼽히는 명당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높지 않으면서도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등산로도 매력이라 할 것이다.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수련활동, 공무원과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장으로 개방했을 때에는 불교유적 뿐만 아니라 내포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현재 교통여건의 불편함이 장애요인이 되겠지만,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된 이후에는 최대의 수요지인 수도권 시민을 유치하는 데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야산의 역사유적은 불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당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연관된 문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예산군 덕산면 가야동에는 현종대왕 태실 유허(遺墟)가 있으며, 서산시 운산면 태봉산은 명종대왕 태실이다. 오페르트 사건으로 유명한 남연군묘를 비롯한 고종황제 일가의 묘역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최고의 풍수가로 알려진 인물의 묘가 불법 조성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습합되었던 바, 역사적으로도 불교의 승려들에 의하여 도가적(道家的) 술법이라 할 수 있는 풍수설(風水說)을 이어온 배경을 알고나면,¹⁸³⁾ 불교유적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 풍수에 입각한 명당이라는 사실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실상 과거 많은 사찰이 비보사찰(裨補寺刹)이었다는 사실은 도불(道佛)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183) 도선·무학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풍수설의 도통은 대부분 승려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교유적의 탐방에 풍수설에 입각한 시설이나 묘역(墓域)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리라 본다. 내포 곳곳에 있는 미륵을 일종의 비보장승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니와, 그러한 의미로 민간신앙화 된 사례도 드물지 않다. 남연군 묘역을 비롯한 분묘유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자원이라 하겠다.

한편 최근에 조성된 풍수가의 무덤을 둘러싸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의 증가 효과를 기대하여 차제에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묘소를 철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미 기대치 않던 홍보효과를 얻었으나, 동시에 주변지역에 투장(偷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풍수가의 묘소를 철거하더라도, 도립공원의 관리를 위해서도 공원화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야산 주변에는 다양한 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해미읍성, 상무사 및 보부상 관계 유적, 충의사를 비롯한 윤봉길 의사 관련 유적, 덕산·홍성 등지의 온천자원, 서산 해미면과 운산면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초지와 벚꽃 축제, 서산간척지에 물려드는 겨울 철새 등은 모두 연계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태안해상국립공원과의 공조 개발의 문제이다. 현재 바다는 피서철이 성수기이고, 다만 최근에 겨울바다를 찾는 내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천관광은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하는 봄철에 집중되며, 철새는 겨울철에 천수만 등지로 날아든다. 반면에 산사(山寺)에서는 4계절의 묘미를 다르게 느낄 수 있다.

한편 태안해상국립공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야산 서쪽 산록을 따라 개설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야산록에 자리잡고 있는 산사(山寺)를 경유하는 일정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결국 산사와 온천을 끼고 있는 가야산록은 피서철에 태안해상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만이 아니라, 철새·겨울바다를 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후 거점으로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청도 양반’이라는 세평(世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조 호서(湖西) 지방은 선비의 고장이었다. 기호와 영남은 조선조 성리학을 지탱한 양대 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울곡(과 우계)를 정점으로 삼는 기호학통(畿湖學統)이 조선조 사상계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⁸⁴⁾ 그런 점에서 볼 때 충청도는 선비문화에 대해서는 과거의 명성을 안동지방에 선점당한 꼴이라 하겠다. 물론 혹자에 따라서는 조선후기 기호학통의 본거지를 회덕·연산·노성이라고 좁게 볼 수는 있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내포는 영남을 비롯한 타지역에 비할 수 없는 전통을 간직하여 왔다. 특히 영·정조대의 부흥기 및 조선말~구한국 시대에 구국활동은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할 경우 연산-회덕·노성으로 이어지는 학맥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명현 및 충절인과 관계 유적은 우선 정신교육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듯하다.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부단하게 성장한 결과 경제 생활은 여유가 생겼으나, 한편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인주의와 실용적 물질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적 가치관이 우세하면 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수양을 강조하고 가족을 우선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불교 유산을 정신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되, 불교는 개인적 차원에 강점을 갖는다. 반면에 유교 유산은 사회 윤리를 중요시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선비들의 집결 장소였던 향교와 서원을 주시할 만하다.¹⁸⁵⁾ 특히 선현(先賢)에 대한 제향(祭享)과 후학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삼았던 조선조 서원은 대부분 경관이 빼어난 자리잡고 있었

184) 이러한 평가는 필자의 사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현대에 와서 퇴계학통이 부각되는 것은 현 상황의 반영일 뿐이라는 점은 앞서서 밝힌 바가 있으므로 부연하지 않겠다.

185) 현재 조선후기 서원의 폐단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조선말 서원의 남설 등에 따른 병폐를 지적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향과 강학(講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난을 할 수는 없다.

기 때문이다.

영조와 고종의 서원 훼손으로 인하여, 특히 내포지방에는 단 한 곳의 서원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본래 서원은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기 보다는, 제향이라는 의례 집행 및 강학(講學)이라는 사회적 기능에 본 뜻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성리학에서는 화려함을 배척하고 소박함을 추구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유적지의 복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유지(遺址)에는 간단한 안내문을 설치하고, 그들의 사상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계승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전통의 계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① 과거 서원의 기능은 무엇이며, ② 현 시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래 서원의 제향은 유학의 정통(正統)을 확립시키는 과정에서 그에 적합한 선유(先儒)에게 제사를 올리는 행사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인한 서원’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이나 향교에서는 유학자들에게는 학문적인 시조라 할 수 있는 공자(孔子)를 문선왕(文宣王)으로¹⁸⁶⁾ 높여서 제향하는 석전제(釋奠祭)가 중심 의례가 된다. 한편 몇몇 가문의 유림(儒林)들이 합동으로 건립하는 서원의 경우,¹⁸⁷⁾ 그 지역과 연관되었던 선유(先儒)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공자를 정점으로 하는 중국과 조선의 선유에 대한 제향을 진행하면서 일반인들을 찾아오게 한다는 발상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186) 반대로 태공망(太公望, 보통 姜太公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은 무성왕(武成王)으로 숭앙되었다. 그러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에서는 문묘(文廟)만 있었을 뿐, 무성묘(武成廟)는 건립되지 못했다.

187) 특히 후대로 갈수록 한 문중에서 자기 선조(先祖)만을 배향하는 속칭 ‘문중서원’의 건립이 증가하였다. 사실 영조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의 조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한편 강학(講學)은 하지 않고 제향만을 지내는 경우를 사우(祠宇)라 하고, 양자를 겸한 경우를 서원이라 하여 구별하였으나, 후대로 갈수록 구별이 모호해졌으며, 제향이 중심이 되어 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 차이나 역사적 변천이 주 관심사가 아니므로 양자를 합하여 모두 서원으로 다루고 있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오히려 현재 시급한 사회 문제와 연관된 의례를 택하여 — 본래 서원이나 향교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의례라 하더라도 — 현대에 적합하게 변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회윤리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수 있되, 다른 연수활동과 차별성을 지니면서도 구태의연하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랄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비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에 덧붙여서, 서예는 물론이요, 활쏘기와 말타기 등 선비들이 심신 단련의 한 방편으로 삼았던 무예(武藝)의 시범과 실습을 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할 경우, 당장 공무원 연수 또는 학생 수련활동 장소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진작시키는 데에는 성리학적 선비상에 견줄 만한 프로그램도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남정신, 특히 선비정신과 연계시켜서 활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 공무원을 비롯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선비의 대표적인 의례로서 향음주례(鄉飲酒禮)와 향사례(鄉射禮)를 응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방학을 이용한 수련활동,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문제를 겨냥한 인성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각지에 산재한 (또는 과거에 있었던) 향교와 서원을 선정하여 합숙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닭이 우는 새벽 4시경[鷄鳴]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선비의 생활체험이라든지, 어른으로서의 몸가짐과 의무를 일깨워주는 관·계례(冠笄禮)를 실시하는 것도 효과가 크리라 본다. 노인문제가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는 과거 양노연(養老宴)을 고증·재연하는 것도 사회적 파급·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서 내포지방의 명현으로 관심을 제고할 만한 인물로 외암 이간과 남당 한원진, 그리고 추사 김정희를 지적하였다. 여기서 외암 이간의 세거지(世居地)였던 외암마을은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남당리 또한 대하산지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추사의 고택이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의 지명도는 외진 곳이라는 약점

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일반인에게 추사는 서예가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듯하다. 따라서 이 세 인물이 살았던 지역을 부각시키는 데에 필요한 객관적인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진 셈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심훈 선생이 창작활동을 했고,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되었던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가 서해안고속도로상의 충청남도 관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행담도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이와 짝한 명소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 소설 『상록수』의 문학사적인 의의, 주민들이 심훈 일가의 농촌계몽운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곧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 서해를 접한 마을이라는 점 등등을 고려하면, 문화예술적인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아산국가공단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점이 변수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여지는 크다고 보지만, 대부분 무형의 자원에 속하고, 더욱이 아직까지 기초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과제라는 사실이다. 일차적으로 현재 연구가 미진한 이 분야에 관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만일 전공자들의 관심만 유도할 수 있으며,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함께 다른 이유로 내방객이 많은 외암민속마을과 남당포구의 경우에는 마을지와 같은 소재자를 발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방객들이 체류를 기대하려면, 역사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가벼운 소개서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서원 등 두 인물과 연관된 곳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서원(書院)의 동서무(東西廡)를 모방한 양식의 건물을 지어서, 평상시에는 일반인에게 숙박장소로 개방하고, 학생·교사·공무원 및 일반 기업체에게 수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할 만하다.

종교적 순례코스는 내포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고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로부터 시작되는 불교유적과 더불어 최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동학과 천주교의 활동은 관계당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가운데 불교유적은 거의 대부분 문화재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또는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더욱이 오랜 역사적 연원으로 인하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으므로 앞에서 별도로 다룬 바가 있다. 문제는 동학과 천주교 관계유적들이다.

1980년대 이후 역사학계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동학은 거의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었거니와, 그마저 동학농민운동의 근원지였던 호남의 활동에 초점이 모아졌던 까닭에, 내포의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우선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한국 천주교의 요람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내포의 천주교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오히려 적은 편이다. 해미읍성, 김대건 신부 관계유적, (구)합덕성당 등은 대표적인 유적일 뿐이며, 단지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중요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다행히 최근에 교회사가들의 조사·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교단의 활동 여하에 따라 많은 유적이 발굴되고, 내방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되, 천주교 관계유적은 불교유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미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천주교유적의 대부분이 순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 조사·연구에 직접 관여할 때에는 조심스러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해두고 싶다.

제2절 개발 일정에 관한 제언

관광을 포함한 내포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교통문제이다. 20세기 들어서 해상운송이 쇠퇴한 상황에서, 육상도로가 채 정비되지 못하였으므로, 특히 수도권 주민이 내포를 찾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웠다. 현 시점에서 홍보부족은 오히려 그 다음의 문제이다.

물론 불편함이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분야가 관광산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자연적 불리함으로 인하여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일 때, 오지탐험의 매력을 내세울 수 있다. 내포지방의 경우 협소한 도로 때문에 차량이 밀리는 것이므로, 이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포 관광개발의 일정은 자연스럽게 육상교통의 정비와 함께 하여야 한다. 다행히 서해안권의 대동맥이 될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또한 2002년 안면도에서 충남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서 대대적인 교통망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통수단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 해상교통수단을 개발함에 있어서 서해의 낙조(落照)는 매력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몰에 맞추어서 목적지에 상륙하는 유람선의 운항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도로교통의 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는 장항선을 관광열차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기간 교통망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라면, 빠르고 쾌적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낭만이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이나 향수이기 때문이다. 열차 운행의 시간대를 조정하며, 열차를 일종의 공연장 또는 관람장으로 꾸민다면,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할 수 있다. 현재 교통여건이 여의치 못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인파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쪽 뺨은 넓은 폭의 도로는 관광도로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싶다. 볼거리가 관광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속주행은 단순한 공간 이동일뿐,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아까운 자원을 스스로 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특히 내포의 매력은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다운 아늑하고 오밀조밀함에 있다. 따라서 내부 이동로를 아기자기하게 꾸밀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 기존 국도를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한 신작로 개설 이후 점차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구도로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한편 교통망의 정비는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내포도로망 정비에는 장애요인이 많다. 우선 자연적 환경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내포는 가야산록의 지맥이 마치 낙지발처럼 바다를 향하여 뻗은 형국이다. 많은 지역이 간척사업의 결과 그러한 면모를 잃었지만, 특히 태안군 일원은 지금도 바다를 마주하여 뻗히 보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몇 (십) 배의 거리를 우회하여 하는 곳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많았고, 지금은 교통 오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좁은 만(灣)을 가로지르는 방조제 또는 교량을 건설한다면,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한편 유치 관광객의 범주는 관광자원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포지방의 관광자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화자원이 많지는 않은 듯하다. 따라서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다만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를 통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는 있을 듯하다.

제3절 관광코스에 관한 제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관광객들은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유형을 구분한 후에 그에 적합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선 ① 현재 주류를 이루는 대중관광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② 종교순례처럼 특정한 대상을 선택적으로 방문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③ 연수와 같은 특정한 목적으로 한 장소에 장기 체류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②와 ③의 경우에는 관광지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중관광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충분할 듯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중관광에 한정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1. 태안해상국립공원 순환코스

태안해상국립공원 개발은 우선 안면도 꽃박람회를 겨냥하여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려한 해안 경관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실 해안관광도로의 개설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를 끼고, 때로는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코스는 분명 매력적인 상품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가로림만에 의하여 도로가 끊기게 되어 있어서,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완공된다면, 동해안 해안도로를 능가하는 관광상품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① 태안에서 사방으로 뻗은 구 도로망의 활용방안, 그리고 ② 특히 해안레포츠단지 개발을 겨냥한 선박 운항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태안-서산 사이의 중앙을 관통하는 국도와 해변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구 도로망이며, 이 도로를 잘 활용하였을 때 교통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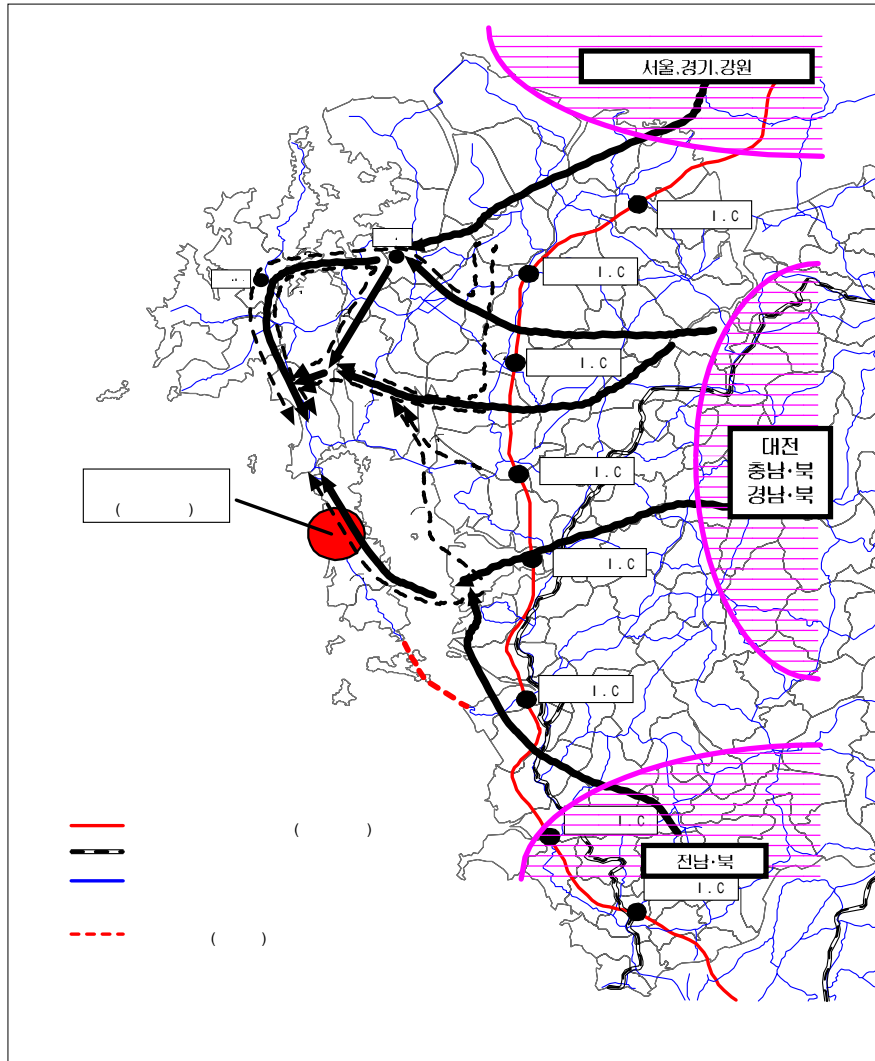
또한 도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는 구 도로망의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순히 확·포장을 통하여 도로체계상 연결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 도로망 주변에 고유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일대의 바다가 조운활동을 비롯한 해상활동이 활발했다는 역사적 전통을 고려한다면, 선박 운항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에 속한다. 과거에 이 일대의 포구는 만(灣) 사이를 오고가던 나룻배, 나아가서 한양(또는 20세기에 들어서는 인천)을 왕복하던 대형 선박으로 북적대던 곳이었다. 내포에 살았던 장년층은 그 포구를 통하여 서울로 나들이하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면,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안관광도로 건설이나 선박 운항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속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기존의 육상도로 정비가 우선적인 과제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코스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해상 운송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대형 선박의 운항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객의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보조수단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육상도로를 통해서 태안해상국립공원으로 가는 여정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면서 시작될 것이다.¹⁸⁸⁾ 그런데 국립공원에 인접한 인터체인지는 서산시 운산면, 서산시 해미면, 홍성군 갈산면, 홍성군 광천읍, 보령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선 서산시 운산면을 통하여 내포에 진입한다면, ① 당진-서산-태안을 잇는 국도를 거쳐서 안면도를 비롯한 해상 국립공원으로 가는 경로, ② 당진-서산 간 국도를 거쳐 부석면을 통과하여 부남호 방조제를 건너서 안면도로 가는 경로, ③ 운산-해

188) 충청남도 타 지역에서 오는 내방객은 일반 국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도 역시 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설치될 지점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볼 때, 논의가 달라질 바는 없다.

제 5 장 관광자원의 활용전략

미-서산-태안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가는 경로, ④ 운산-해미-갈산-서산 A·B 지구방조제를 거쳐 안면도로 향하는 경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림 1> 태안해양국립공원 예상 접근로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①의 경로는 태안-당진간 국도로써 현재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넓은 도로를 통하여 손쉽게 태안읍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안면도를 포함한 만리포 또는 안흥항 등 국립공원의 여러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진-서산 간 국도에는 대산공업단지를 향하는 운송차량이 폭주하는 등 일반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안읍에서 안면도로 진입하는 도로폭이 좁아서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병목 현상이 예상된다는 점이 약점이며, 이동로 상에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에서 부석면을 통과하여 안면도로 향하는 길은 과거 안면도 주민들이 서산으로 나들이하던 길이었다. 이 일대에는 무학대사의 출생과 관련한 전설이 깃든 유적들이 몇 군데 있으며, 서산의 명현(名賢)들을 제향하는 송곡사(松谷祠)와 주변의 울창한 송림, 도비산 부석사, 갈마리의 검은녀제와 창리의 영신제 등의 역사 또는 민속 자원들이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라는 점과 북한과의 교류를 상징하는 '통일소' 반출의 현장이라는 사실 등도 일반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 현재 부남호 방조제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있으므로, 이동 인구의 분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광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③에서 운산면에서 해미를 거친 이후에 다시 서산으로 향하는 경로는 우회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산면과 해미면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주변에는 농치기 아까운 관광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내방객들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하다.

운산면의 톨게이트를 나서서 해미로 향하는 순간 곧바로 현재 축협한우종축장의 드넓은 초지가 펼쳐진다. 주민들에게는 아픈 과거일 수도 있고, 환경론자들에게는 무차별적인 개발의 상징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보긴 드문 풍경이므로 찾는 이들의 시선을 잠시 머물게 할 수 있다. 목장 한

북편 낮은 구릉에 위치한 팔각정까지 이르는 도로변의 벚꽃은, 이미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알려진 축제의 마당이므로 꽃박람회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만하다.

목장 초지 동쪽 가야산록에는 아늑한 산사(山寺)가 자리잡고 있다. 문수사와 개심사는 운산에서 해미로 가는 길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으며, 일락사는 해미면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심사에서 일락사에 이르는 임도(林道)가 한창 공사 중이므로, 진입했던 도로로 다시 되돌아 나오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해미면은 조선조의 대표적인 읍성이며, 천주교의 순례성지(巡禮聖地)이다. 지금도 찾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곳으로, 읍성 내의 복원과 주변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더욱 많은 방문객들이 찾으리라 본다. 개심사와 일락사를 연결하는 임도가 개설된 후에는 일락사에서 해미읍성으로 향하는 여정도 생각해 볼 만하다.

해미에서 서산으로 가는 길은 우회로이지만, 위의 유적들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 그 외에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해미읍성 주변 3개의 미륵(황락리, 반양리, 조산리), 정순왕후 생가, 김기현 고택, 전통 삼베마을(반양리 2구)을 둘러볼 수도 있다. 서산시내로 들어선 이후의 여정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④의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해미-갈산 구간을 국도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일반인의 눈을 끌 만한 자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추천할 만한 이동로는 아니다.

해미면 톨게이트를 나왔을 경우, 운산-해미 구간의 유적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운산면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경로와 다를 바가 없다. 단 현재 현대그룹 소유의 서산농장을 관통할 경우, 거리가 훨씬 단축되는 효과, 그리고 드넓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장쾌한 맛이 있다. 이 점은 운산면 톨게이트를 나와서 해미로 이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사유지인 서산농장과 함께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해결 가능한 사안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에 속한다.

갈산면 톨게이트를 나와서 서산 A·B 간척지 방조제를 타고 안면도로 가는 방법(㉑)은 안면도로 가는 최단코스이다. 현재 갈산에서 방조제 동쪽 끝에 이르는 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비포장 구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방조제 북쪽 겨울철새도래지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탁트인 육지와 바다를 아울러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한 간월도와 창리는 이 일대에서 대표적인 포구로서 풍어제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와 연계한 행사도 계획해볼 만하다. 다만 방조제도로가 왕복 2차로에 불과하므로,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병목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광천 톨게이트를 나오면 홍성 또는 보령 쪽으로 우회하여야 한다. 광천 자체가 짓갈의 유명산지이고, 천수만을 따라 서산 방조제로 가는 도중(㉒)에 남당 한원진을 모신 양곡사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를 경유할 수 있으며, 대하의 산지로 이름난 남당 포구에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보령시 대천 톨게이트를 나서는 길은 남쪽에서 접근하는 길이다. 현재 보령과 안면도를 잇는 연육교가 계획되어 있으나, 단시일 내에 완공될 공사는 아니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하여 안면도 고남면으로 이동하는 방법(㉓)과 천수만을 따라 서산 방조제로 이동하는 길(㉔)이 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력적인 여행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이동량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보조적인 운송수단 이상이 될 수는 없을 듯하다.

이상을 종합 검토해 볼 때, 2002년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안면도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최선으로 판단된다. 첫째 (운산 톨게이트)-해미-서산A·B 간척지(관통)-부석면 창리-안면도로 가는 길, 그리고 둘째 갈산 톨게이트-서산A·B 간척지 방조제-부석면 창리-안면도로 가는 길이 방법이 있다.

첫째의 여행길은 꽃박람회 외에 주변의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코스로서 일정을 넉넉하게 잡은 경우에 권장할 만하며, 둘째 코스는 최단코스라는 점에서 추천할 만하다. 따라서 이 두 코스를 축으로 하고, 다른 경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해미에서 서산A·B 지구간척지를 관통하여 서산 간척지의 서남쪽 끝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도로를 위해서는 사유지인 서산농장 및 군 시설인 공군기지가 있어서 도로개설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방객 대부분이 간척지 방조제를 이용하리라 예상되는 바, 관광객의 분산을 위해서도 북쪽에서 진입하는 방문객을 신설 간척지 도로로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체 관광객 이외에는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코스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천수만 북·동쪽에 산재한 관광자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운산면 톨게이트와 갈산면 톨게이트는, 가야산자락에 분포한 불교유적을 찾아가는 코스의 시발점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운산면은 가야산의 북쪽 끝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동남쪽의 중심지는 홍성과 덕산이다. 북쪽으로는 운산면 톨게이트를 나와서 운산면과 해미면에 있는 유적들을 탐방할 수 있고, 갈산 톨게이트를 나와서 덕산과 홍성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가야산 순환코스

내포의 명산 가야산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못지 않은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도로망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한 거점 도시가 성장하지 못한 관계로,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특히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2002년 꽃박람회의 파급 홍보효과를 잘 살린다면, 장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대중관광에서 갔던 길을 되돌아 나오는 것은, 흥미를 반감시키는 한 요인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 된다. 따라서 순환코스가 제격이다. 그런데 가야산 일원의 온천자원을 제외한 관광자원들은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처럼 접근하기 어렵고, 순환코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대중관광의 유치에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의 지명도가 낮다든지 또는 도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지 개발이 미비하였음의 반영일 뿐이지, 결코 그 가치가 낮다는 증거는 아니다. 사실 백제시대로부터 면면이 이어지는 내포 불교의 전통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비했던 발굴과 복원이 본 궤도에 진입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적만으로도, 교통 여건의 미비에 의하여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상황을 역전시키기에는 충분하다.

한국 관광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과의 교통은 서해안고속도로에 의하여 일거에 해결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바가 있다. 사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가야산의 서쪽 사면을 따라 개설되고 있으므로, 그 공사에 의하여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교통 여건을 논할 바가 아니다. 가야산을 둘러싸는 세 꼭지점, 즉 해미·덕산·운산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된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내부의 교통 문제이다.

최근 내포지방의 교통 여건이 매우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나, 덕산온천관광단지 주변을 제외하고는 가야산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현재 덕산온천관광단지 우회 국도 및 개심사와 일락사 사이의 임도 공사를 진행 중일 뿐이며, 다른 도로 주변의 경치는 1970년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가야산을 순환하는 해미-운산 및 운산-덕산 간 지방도는 외딴 농촌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게 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환코스를 가능케 하는 도로가 신설되기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대를 답사해 보면 과거의 중요한 이동로였으나,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남연군묘에서 북쪽 서산 마애삼존불이 있는 용현계곡까지는 일제강점기에 군

사도로로 개설된 길이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가 통행했다고 하며, 그곳에서 개심사까지 뺀 임도도 과거 주민들이 이용하던 장길이었다고 한다. 덕산에서 해미로 가는 45번 국도도 일제강점기에 개설된 신작로이며, 그 이전에는 안흥정이 위치한 해미면 산수리를 경유하여 덕산-해미를 왕래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한 구 길만으로도 가야산의 주봉인 원효봉·가야봉·석문봉·옥양봉을 순환하는 도로가 된다.

물론 과거에 이용하였던 도로를 모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확·포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도로망이 개설된다면, 이 일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 즉 충의사·덕산온천·상무사-남연군묘(가야사지)-보원사지-서산 마애삼존불-개심사(축협 목장초지)-일락사-해미읍성-수덕사로 이어지는 순환관광코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외에도 남연군묘에서 등산을 시작하여 석문봉과 옥양봉을 거쳐서, 개심사 또는 보원사지 - 마애삼존불로 하산하는 길도 매력적이다. 또한 수려한 계곡이 도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레저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지금은 자취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관광자원으로 복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도 많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자원과 역사유적을 연계한다면 뛰어난 휴양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대중 관광객들은 특정 대상만을 고집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식상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자원을 갖춘 이 지역의 잠재력은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발을 일거에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대중관광단지로 조성된 덕산 일대를 거점으로 삼고, 점차 대상지역을 넓혀 나가는 순차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듯하다. 그러한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위치하게 될 운산과 해미를 염두에 둔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관광거점에 관한 제언

앞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내포지방의 관광거점으로 상정할 수 있는 몇 곳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가야산 주변으로는 서산 마애삼존불을 비롯한 불교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서산시 운산면 일원, 수덕사 등의 불교유산과 아울러 온천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예산군 덕산면 지역, 해미읍성 등으로 알려진 서산시 해미면 등이 우선 꼽힌다.

태안해상국립공원과 관련해서는 꽃박람회가 예정된 안면도 꽃지 주변, 선사·역사 유적이 알려진 영목과 원산도, 안면도의 진입로이면서 운하유적과 풍어제로 널리 알려진 백사장·황도 일원, 안흥성이 있었고 바다낚시로 유명한 안흥항, 해수욕장과 수목원으로 유명한 만리포,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지이다.

그러나 관광상품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관광거점의 선정은 개발사업의 개시 여부나 소요자금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태안해상국립공원 개발은 구체화되어 있고, 특히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라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에 속한다. 반면에 가야산 일원에 대한 광역의 개발은 아직 가시화된 바가 없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로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편 예산군 덕산면 일원은 온천관광단지로 이미 대대적으로 개발된 상태이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완공에 따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투입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발을 시작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해미면 일원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태안해상국립공원 진입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미읍성 등의 자원만으로도 일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안면도 꽃박람회와 보조를

맞추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연계개발에 의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각 후보지의 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예산군 덕산면

덕산의 개발은 온천관광지로 시작되었다. 천하의 길지(吉地)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지역이지만,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한 풍수가의 묘역이 불법 조성된 1998년 이후의 일이다. 수덕사라는 고찰(古刹)이 있다고는 하나, 외지에서 접근하기 불편한 관계로 덕산온천을 찾았던 관광객이 잠시 들르는 데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외에도 윤봉길 의사의 사우(祠宇) 충의사가 있고, 상무사 관계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며, 최근에는 수덕사 인근에 사설 한국건축박물관이 개관하였으므로, 관광자원은 한층 다양해진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개발은 온천자원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찾는 발길이 급증하고 있는 남연군묘의 경우 진입로조차 분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단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온천수의 양은 제한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곳곳에 수많은 온천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덕산의 특성을 살리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야산 일대에 산재한 불교유적들은 다른 온천관광지를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예덕상무사의 근거지였다는 사실이나 윤봉길 의사의 유적 등은 관광단지를 풍요롭게 가꿀 수 있게 해주는 가치가 크다고 본다.

현재 관광단지를 관통하는 45번 국도는 우회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우회도로의 동·서쪽 지점에 과거 덕산의 대표적인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45번 국도 공사에서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지점에 객주집을 모방한 주막거리 형태의 휴게소를 조성하는 것도 색다를 수 있을 듯하다. 장승이나 솟대 등을 세워서 진입로임을 표시하고, 텃마루와 봉긋방을 갖춘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간이)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관광철이나 주말에는 난장(亂場)을 개설하여 특산품을 판매하고, 중앙 광장에는 화랭이패나 남사당패처럼 보부상과 관련된 전통공연, 때로는 과격적인 현대적인 라이브공연으로 흥을 돋굴 수도 있다. 특산품이라고 하여 반드시 농·수산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홍선대원군이나 윤봉길 의사와 같이 이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인물의 유품을 복제하거나, 그들의 글이나 그림을 각인한 목공예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¹⁸⁹⁾

이런 구상이 가능하다면, 현재 덕산면사무소 귀퉁이에 웅색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무사 유품전시관은 진입로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4월 29일 충의사 주변에서 시행되는 매헌문화제와 관련한 행사의 일부도 중앙 광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

충의사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프로그램을 개발 필요가 있을 듯하다. 충절에 한정된 교육내용이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윤봉길 의사의 농촌계몽운동을 포함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에 설립 예정인 농업박물관과의 연계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수덕사는 승려의 교육기관으로 이름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고 싶다. 이 문제는 불교교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불교 대중화라는 대 명제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큰 반대는 없을 듯하다. 한편 명상 또는 참선 등을 통한 불교의 참 뜻을 알게 해주는 교육도 한국인의 정서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으므로, 그와 연관된 역사적 연원을 안내하는 교육도 역사교육의 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덕사의 큰 스님 만공선사, 그리고 그와 교유했던 만해 한용

189) 목공예품이라 하여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소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배달할 수 있다면, 장롱과 같은 큰 가구도 못할 바는 아니다. 참고로 홍선대원군의 난을 치는 재주는 당대에 일품으로 꼽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윤봉길 의사의 글귀를 새긴 소품은 상품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운 스님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온천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의 문화유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막상 덕산의 매력은 가야동을 중심으로 서산시 해미면과 운산면까지 걸쳐 있는 불교유적에 있다.

덕산 방면의 불교유적은 남연군묘로 가는 진입로로부터 시작된다. 덕산 읍내의 구 시가지를 관통하여 서쪽으로 가면 옥계저수지가 나타난다. 이 길 동쪽 서원산자락에는 우리나라 최후의 원찰(願刹)이라 할 수 있는 보덕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남연군묘는 본래 가야사지였다. 묘역을 떠나 북쪽으로 향하면 울창한 밤나무단지가 펼쳐지는데, 이 일대가 원래는 고종황제 친가의 사패지로서 황실재산이었던 곳이다.¹⁹⁰⁾

한편 남연군묘는 속설에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로 알려진 명당으로, 최근에 유명 풍수가의 묘역이 들어섬으로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가 있다. 그 결과 이 일대를 찾는 내방객들이 급증하였다. 남연군묘 외에도 고종황제 친가의 묘소가 많이 자리잡고 있으며, 옥계저수지 북쪽 봉우리는 현종대 왕 태실 유허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분묘공원으로 조성할 명분은 충분한 듯하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풍수가의 묘소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풍수를 믿는 주민들이 투장(偷葬)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차제에 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듯하다.

남연군묘에서 서산시 보원사지에 이르는 약 5km의 구간에는 현재까지 분명히 드러난 불교유적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 이후 모든 지형도상에는 옥양봉 아래 약 800m 지점에 마애석불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¹⁹¹⁾ 주민들이 ‘도두개성안’이라 부르는 성터가 있다고 전해지며, 해

190) 해방 후 관리자로 봉직했던 향토사가에 의하면, 고종황제 친가의 사패지는 약 3,500정보였다고 한다. 이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황실소유지로 바뀌었다가, 해방 후에는 국유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일부 토지는 민간에 분양되었는데, 밤나무단지도 민간에게 불하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 한다. 현재 밤나무단지는 외지인의 별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발 2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의현동과 신사동은 사하촌(寺下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불교유적이 발굴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불교유적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바는 아니다. 고개 정상의 대문동 남·북사면에 조성된 밤나무단지를 포함하여, 해발 200~300m의 높이의 대문동·의현동·신사동 일대는 깊은 산 속을 연상시키는 곳으로 휴양지를 조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지역에서 남·북쪽으로 불과 3km가 안되는 지점에 유서 깊은 역사유적들이 있으므로, 산촌(山村)을 모방한 숙박시설, 그리고 가능하다면 레저타운 등을 갖춘 휴양단지로서는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온천지로서의 지명도, 풍수설에 입각한 명성, 추가적인 불교유적의 발굴 가능성 등으로 미루어 가야동을 찾는 발길은 점진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야동으로 가는 진입로조차 변변치 못하다. 기존의 임도(林道)를 이용하여 고개만 넘으면 곧바로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있는 유적지와 연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망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왕에 개발된 온천관광단지를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가야동으로 진입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서산으로 가는 임도를 보수하여 서산 마애삼존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서산시 운산면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용현리는,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있는 용현계곡으로 가는 길목이다. 보원사지라는 대 가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문화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

191) 답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마애석불이 표시된 지점은 백암사지로 추정된다.

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이유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외진 곳이라는 인식은 일거에 불식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난개발의 가능성을 우려해야 될 상황이라 하겠다.

더욱이 간단한 답사만으로도 유적지라고 지목할 만한 곳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에 알려진 유적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새로운 유적들을 발굴된다면,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 하겠다. 특히 여미리는 고려조 여미현의 치소(治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유적들도 대거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운산면 일원의 관광개발은 추가 조사의 실시와 더불어 구체화시켜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예산군 덕산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언급했거니와, 가야산의 남·북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후보지라는 점, 그리고 교통 여건의 개선과 함께 급속하게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정비방안은 모색해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이전에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복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²⁾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가 취한 후에,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개발·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야만, 문화재 훼손과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운산면의 문화자원을 살핌에 있어서, 용장리를 중심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동의례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운산면 소재지인 용장리를 포함한 여미리·수당리·갈산리에서는 음력 정월 대보름에 동시에 산신

192) 용현계곡 동쪽 산 정상부에는, 서산 마애삼존불에서 보원사지에 이르는 구간과 거의 일치하는 산성이 있다. 물론 현재까지 성의 축조 연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 5호의 농가와 농경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산성취락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 산성 내부 사유지가 순복음교회측에 매각되었고, 지금은 교회와 수련장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에 따라 산성 내부의 유물은 수습할 길이 없어졌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외에도 운산면 일원에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한 이야기는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와 장승제를 지낸 후, 용장리 시장으로 모여 농악과 함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렸다고 한다. 수당리 장승제는 지금까지도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1998년 서산문화제에서 시연하였다고 하는데, 실상 이 대동의례의 한 부분이었다고 한다. 현재 일부 주민들이 의례 부활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용현계곡에서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옛 길을 타고 상왕산을 넘으면 보현동 마을이다. 과거 보현사가 있었다고 하는 곳으로, 동학운동 당시에는 동학군들의 집결지이기도 했고, 최근까지 장승제를 지내던 산골 마을이다. 가야산 서쪽 산록의 대표적인 사찰인 문수사와 명종대왕태실은 보현동의 북쪽에, 개심사는 남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으로 더 나가면 축협한우종축장의 초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가야산 서록에도 이러한 유적들이 줄지어 분포하고 있는 바, 그 중간 지점에 해미읍성이 위치하고 있다.

3. 서산시 해미면

조선조 이후 현재까지 가야산 서쪽의 중심은 해미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해미현이 서산으로 편입되면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부분적으로 상실했지만, 아직까지도 읍내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태안해상국립공원과 덕산관광단지로 이동하는 교차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북쪽으로부터 접근하는 방문객이라면 운산면의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해미로 향하는 지방도를 이용하면 두 갈래의 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찰을 탐방하려는 사람은 개심사와 일락사를 연결하는 임도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4월말이라면 축협한우종축장 초지를 가로지르다가 벚꽃 축제장에 잠시 들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미읍성을 나선 후에는, 태안해상국립공원과 덕산관광단지 중에서 여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미고개를 넘으면 덕산이요,¹⁹³⁾ 고북면으로 향하면 서산간척지 방조제를 건너 안면도로 향할 수 있다. 덕산을 향하는 도중에 남은들상여¹⁹⁴⁾가 있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홍성으로 가는 길을 이용한다면, 근접 거리에 위치한 한국건축박물관과 수덕사를 거쳐서 덕산관광단지로 갈 수도 있다. 안면도로 향하는 경로는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해미는 주목되는 곳이다. 특히 안면도 꽃박람회 기간에는 내방객들을 덕산을 비롯한 가야산 주변 관광지로 유치하는 통로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현대그룹 소유의 서산농장과 공군기지이다. 광대한 면적을 점하고 있는 두 곳 때문에, 안면도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도로개설이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 만일 두 곳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만 가능하다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내방객에게, 해미는 두 관광지로 가는 교통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부가적으로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천수만 간척지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가야산 주변의 관광거점으로는 덕산·운산·해미를 꼽을 수 있다. 덕산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개발이 진행된 온천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가야동 계곡으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서산시 운산면 용현계곡으로 이어지

193) 일제강점기에 신작로가 개설되기 이전, 해미-덕산을 왕래하는 길은, 안흥정이 있었다는 산수리 큰한티고개 또는 대곡리의 작은한티고개였다. 현재 45번 국도는 작은한티 아래에 터널을 뚫는 공사가 계획되어 있다.

194) 남연군을 이장할 때 사용하였던 상여가 바로 '남은들상여'(중요민속자료 제31호)이다. 현재 보호각 안에 보존하고 있으나,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실정이다. 간혹 내려서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 해도, 관리상태가 나쁜 관계로 좋은 인상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곳은 왕래가 빈번한 해미·덕산·홍성의 교차로이므로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덕산과 홍성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해미에서 홍성으로 향하는 경우 급경사에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서 교통사고 우려되므로 휴게소 설치와 더불어 도로의 변경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는 임도(林道)를 보수한다면, 불교유적을 포함한 문화유산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포 불교유적 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서산 마애삼존불이 있는 운산면의 관광개발은 미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인 조사·연구가 부족하고, 외부에서 이곳까지 접근하기 어려운데다가, 대표적인 유적지라 할 수 있는 용현계곡이 서산-당진 간 국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교통여건이 개선된다면 사정은 일변하게 된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계획에는, 바로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덕산의 불교유적 등과의 연계개발을 포함시켰을 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미는 해미읍성을 비롯한 자체의 관광자원과 함께, 태안해상국립공원과 덕산관광단지의 갈림길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북쪽을 향하더라도 현재 공사 중인 임도를 따라 일락사와 개심사를 찾을 수 있으며, 기존의 해미-운산 간 지방도 주변은 광활하게 펼쳐진 초원지대로서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도중에 유명한 벚꽃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봄철이라면 이 길을 택할 만하다. 단지 서산A·B지구 간척지와 공군기지로 인하여 서남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관계로, 태안해상국립공원으로 접근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점이 단점이다.

앞서서 언급했거니와, 관광도로는 고속주행에 목적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거리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관광 목적지를 이동하는 특색 있는 관광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도로망을 간선도로와 관광도로로 이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¹⁹⁵⁾

이상 가야산 주변의 세 곳을 거점으로 삼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명

195) 현재 한국의 도로계획은, 대부분 기존 국도의 확·포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취를 느낄 수 있는 구 도로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데, 머지 않은 장래에 불편하다고만 느꼈던 도로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가 높은 덕산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관광자원과 해미읍성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우선 사찰과 마애불·미륵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유적의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그러할 경우, 사찰 주변에 요사채 형식을 빌린 숙박시설을 건설하거나, 불교와 관계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안면도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안면도는 해수욕장과 휴양림으로 알려졌을 뿐, 관광지로서의 지명도는 높지 못한 곳이었다. 뚜렷한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따라서 안면도 개발계획에서는 마땅히 관광거점 문제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던 곳이므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연 관광거점을 조성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광거점 개발 여부는, 개발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비로소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대대적인 개발전략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점개발은 포기되어야 한다.

안면도는 거점 선정에 앞서서 개발 방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환경문제 외에도 주민의 동향과 개발 참여, 개발자금 조달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은 극히 일부분의 고려 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다.

현재 안면도의 개발계획은 다양한 경로로 통하여 모색·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처럼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를 검토해야만 하는 작업은 필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이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다만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일별하고, 거점으로 상정할 수 있는 후보지를 제시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현재 안면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꽃박람회(花博)가 예정되어 있는 꽃지해수욕장과 휴양림 부근 지역이다. 할아버지바위와 할미바위를 배경으로 하는 서해의 낙조가 일품인 해수욕장이 있고, 바로 인접하여 조선시대 금산(禁山)이었던 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숲과 바다가 어울리는 휴양지로서는 제격이라 할 것이다. 서해안에서는 드물게 해녀들의 작업광경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매력이다. 인접한 포구 부근에 전통적인 어촌을 모방한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전통 염밭(鹽田)을 재연하거나 전통 한선(韓船)을 제작하는 이벤트 행사로 일반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그러나 휴양림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대규모 관광단의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변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관광객을 유치하되, 휴양림을 찾는 인원은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휴양림 안의 시설은 전통적인 산촌(山村)을 모델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안면도의 남쪽 끝 영목 및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양레포츠단지도 검토할 만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목(要兒梁)은 조선초기 수영(水營)이 있었던 곳이며, 원산도는 원산진(元山鎭)으로 보령에 있던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일대 조운(漕運)을 총괄하던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 또한 원산도에는 국마장(國馬場)이 있었고, 삼시도에도 사슴목장(鹿場)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여 개발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보령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인다. 역사적으로 보령에 설치되었던 수영(水營)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니와, 보령시는 이미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므로, 두 곳을 연결하면 하나의 관광벨트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안면도의 북단 또한 역사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조선 인조조에 안면도운하가 굴착되면서 안면도는 섬이 되었고, 주민들은 나룻배를 이용하여 서산·태안·광천·보령 등지로 나들이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 천수만 안강망어업의 중심지였던 황도는 붕기풍어제로 유명한

곳이다. 천수만 간척사업 이후 안강망어업은 쇠퇴하였으나, 주민들은 이제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풍어제와 함께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황도에서는 부석면 창리와 간월도가 지척에 보인다. 모두 풍어제가 행해지는 곳이며, 서산 A·B 지구 간척지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해산물을 즐기는 명소로 부각되는 곳이다.

서산 간척지에 의하여 형성된 부남호와 간월호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도래지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생태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데, 부남호의 북단은 굴포운하 유적지가 있는 곳이며, 부남호 중간 지점에서는 검은늪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들을 살펴보면, 안면도 북단에서 천수만에 이르는 지역을 묶을 수 있는 관광개발이 가능하리라 본다.

5. 만리포와 안흥항

안흥항은 안흥진성(安興鎭城)이 있는 곳이며, 만리포해수욕장 뒤편에는 소근진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항해가 어려웠다고 하는 관수각이 바로 가의도의 동북쪽 해역이었으니, 의항운하를 굴착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며, 안흥성과 소근진성 역시 그 때문에 설치되었던 것이다.

현재 안흥진성의 안흥항은 바다낚시로 유명하다. 의항운하가 굴착되었고 소근진성이 자리잡았던 외곽에는 만리포해수욕장과 파도리해수욕장이 있다. 만리포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이며, 그 남쪽 파도리 해변 역시 고운 자갈돌이 깔려 있어서 최근에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물살에 씻긴 파도리 해변의 자갈돌은 고운 무늬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를 가공하여 해옥(海玉)으로 판매하고 있다. 과거 항해를 방해하였던 거친 환경이, 지금은 사람들을 찾아들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은 안면도 남단의 영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더욱이 만리포와 바로 이웃한 천리포수목원은 목련을 비롯한 다양한 수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목으로 이름높은 곳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양레포츠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곳으로 보인다. 다만 태안해양국립공원을 하나로 잇는 해변 관광도로가 두 지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한 예술가는 한국의 농촌을 그리려면 내포가 좋다고 했다 한다. 내포는 이처럼 아늑한 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한국의 멋을 연출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그러므로 내륙이라면 전통 농촌 또는 산촌(山村)을 모델로 삼고, 해변이라면 전통 어촌 또는 방어시설로 연출하여 전통의 정취를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혼한 초가와 기와집으로 단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경사면을 이용하여 한국적인 후원(後園)을 조성하고, 토담길 옆으로 도랑을 내어 물이 흐르도록 하다가, 적당한 곳을 택하여 작은 연못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 곁에 작은 누정(樓亭)을 지으면, 요즘 산꼭대기에 지은 누정보다는 훨씬 운치가 있을 듯하다. 관광지 입구에는 장승과 솟대를 세우는 데에 그치지 말고, 난장(亂場)을 개설하여 상가,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어촌에서는 단순히 갯벌 채취업을 체험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전통 어법 및 자염(煮鹽)을 재연하는 행사를 마련할 수도 있으며, 전통 한선(韓船)을 운항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어족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 보존책으로서 치어를 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려면, 고층의 관광시설에 비하여 넓은 대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내포지방의 지가가 낮은 수준이므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이를 포함하여 필자가 제시한 여러 자원 및 개발방안 가운데 취사선택하는 문제는 관광 담당자들의 몫이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자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지역 감정을 조장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였다. 사실 충청남도민에게 있어서, 내포지방이 구별된다는 생각은 거의 잊혀진지 오래된 듯하고, 그저 역사적 관념인 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충청남도청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일부에서 내포의 상대적 퇴보를 지적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청이 내포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역감정

이 표면화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집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문제였다.¹⁹⁶⁾

내포의 역사적 성격과 관광개발을 다룬 이 글에서, 필자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 우선 각 지역을 언급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령, 당진, 아산, 홍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는 사실이다. 아산의 경우 온양은 대표적인 온천관광지이며, 보령은 서해안 가운데 이름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가로림만이나 임존성이 이웃하고 있는 예당저수지 등과 같은 지역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조사·연구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후일의 자세한 자료조사를 기약하면서 일단 접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실 이 연구는 기초연구에 불과하며, 또한 문화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 시론에 불과할 따름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의 방안 역시 중요한 주제이지만, 본 연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큰 주제이므로,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196)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첨언한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내포권과 타지방의 접경지였던 몇 곳이 있었다. 천안·아산 지방이 경기와 내포의 접경이었다면, 서천·남포는 금강권과 내포권의 경계에 있던 군현이었으며, 유구와 청양은 공주와 내포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해결에 조그만 보탬은 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增補文獻備考』

『忠淸道邑誌』 (영조~헌종 연간)

『忠淸南道誌』 (1870년대)

『牧場地圖』 (孝宗 연간.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古20650)

『鰈域地圖』 (규장각 청구번호 古4709-43, 국립중앙도서관 청구번호 한-61-69)

『靑丘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1834)

『大東輿地圖』

『大東地志』

『擇里志』

『萬機要覽』

『萬姓大同譜』

『近齋集』

『洪陽紀事』 (임한주)

『서산군지』 (李敏寧, 1927)

권정안 외, 1988, 『朝鮮朝 儒學思想의 研究』, 여강출판사.

김상기, 1997,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김용덕, 1977, 『朝鮮後期思想史研究』, 을유문화사.

- 김태년, 1993, 「洛論系의 知覺論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규호, 1996, 『論註 八域歌』 忠淸道, 민속원.
- 서산문화원, 1991, 『瑞山·泰安文化遺蹟』 (上).
- 서산시, 1998, 『서산시지』 서산시청.
- 서현정, 1992, 「상품소비의 문화적 규칙 및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봉학, 1995,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 이병도, 1989, 『韓國儒學史』, 아세아문화사.
- 이종영, 1963, 「安興梁 對策으로서의 泰安漕渠 및 安民倉 問題」, 『동방학지』 제7 집.
- 최남선, 1948, 『朝鮮常識: 風俗·地理·制度 編』 (1997년 민속원 영인본).
- 최완기, 1993, 『韓國性理學의 脈』, 느티나무.
- 최완기, 1994, 『朝鮮後期 船運業史 연구』, 일조각.
- 최완수, 1994, 『名利巡禮』 ①②③, 대원사.
- 최완수, 1998, 『朝鮮王朝 忠義列傳』, 돌베개.
- 한경구, 1982, 「상징전달의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의 曖昧와 模糊性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사상사연구회, 1994, 『人性物性論』, 한길사.
- 한국사상사연구회, 1996, 『朝鮮儒學의 학파들』, 예문서원.
- Boissevain, Jeremy, 「Tourism and Development in Malta」, Tourism and Economic Change, 1978,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 Durkheim, Emile, (노치준·민혜숙 역), 1992,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영사. (원저 : 1916, 『Lé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 Graburn, Nelson, 「The Anthropology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3, 10(1).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제2장 관광인류학)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Hobsbawm, E. and T. Ranger(eds) (최석영 역), 1996, 『전통의 창조와 날조』, 서경문화사 (원저 :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 Huizinga, J. (권영빈 역), 1989, 『놀이하는 인간』, 기린원 (원저 : 1938, 『Homo Ludens』.)
- Lett, Jr. James W., 「Ludic and Liminoid Aspects of Charter Yacht Tourism in the Caribbean」,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3, 10(1),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 MacCannell, Dean (오상훈 역), 1994, 『관광객』, 일신사,(원저 : 1976, The Tourist, Shocken Books Inc..)
- Stanton, Max,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Host and Guest, 1977. (전경수 편역, 1987, 『관광과 문화』, 까치)
- Turner, Victor W., 1969, 『The Ritual Proc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van Gennep, Arnold (전경수 역), 1985,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원저 : 1909, 『Les Rites de Passage』.)

■ 집 필 자

오 석 민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기본연구 98-06

내포지방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자 : 황 용 주(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발 행 일 : 1999년 5월 20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7층~18층

전화 : (042)472-1900

팩스 : (042)472-1912

인 쇄 처 : 필성인쇄사(042-252-16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